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學位論文

근대 전환기 한국 지식인의 진보적 시간의식 연구

2019년 2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金 明 載

文學碩士學位論文

근대 전환기 한국 지식인의 진보적 시간의식 연구

指導敎授 許 洙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8년 10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金 明 載

金明載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근대 전환기 한국 지식인의 진보적 시간의식 연구

김명재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사에서 시간의식의 ‘근대적 전환기’로, 근대 서구 사조와 조선 후기 이래의 전통적 시간의식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구의 진보적 시간의식의 한국 도입과정은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근대 시기 시간의식과 결합하여 한국인의 독자적인 시간의식을 형성하는데 활용되었던 전통적 시간의식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본고의 목적은 서구 진보 개념과 전통적 시간의식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한국 근대의 진보적 시간의식의 형성과 전개를 규명하는 데 있다.

18세기를 전후로 보편적 역사의 진보를 상정하는 ‘進步’ 개념이 형성된 서구와는 달리, 조선 후기 進步 용어는 주로 ‘개인의 도덕적·학문적 향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진보적 시간의식의 수용과정에 개입하는 전통적 시간의식으로 정통론은 ‘동국’의 정체성과 기자 문화의 계승을 나타내는 ‘연속’의 측면에서, 순환론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역사와 시세가 전환(순환)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변화’의 측면에서 시간의식을 담지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을 거친 서구의 근대적 ‘진보’ 개념이 수용되면서, 進步 용어는 개인 단위를 넘어 문명·국가로 확장되고 단계적 시간의식을 띤 ‘진보’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진보’ 개념은 1900년대 중반 전후 사회진화론과 국가 위기론 속에서 서구문명 및 민족국가를 목표로 하는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지식인들은 ‘진보’를 舊에서 新으로의 변화이자, 우주

및 역사의 진화 법칙과 퇴보의 언설을 통해 시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인식된 한국사의 전개는 서구의 직선적 진보와는 대비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근대 역사학의 3시기 구분법과 사회진화론의 단계적 발전론은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낙후된 현실과 진보의 부재를 인정하는 공통인식 상에서 '암흑기'를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암흑기'는 특히 한국사를 고대 이후 현재까지 하강·쇠퇴의 구도로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시간의식으로 사회진화론의 '보편적 법칙'을 설명하여 쇠퇴 원인과 그 극복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절대적 정체'처럼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 순응 논리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대한제국 지식인의 '암흑기'는 '일시적이며 그 속에 주체적 진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미를 가진 '制限的 停滯期'의 성격을 가졌고, 이 '정체기'를 인정하며 전통적인 시간의식과 결합한 '螺旋的 進步'가 창출되었다. 다시 말해 '나선적 진보'는 한국의 '정체기'를 전통적인 순환론과 정통론적 사유에 기대어 진보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서구의 직선적 진보 및 식민주의 역사학의 '절대적 정체'와 구분되며 민족국가의 퇴보와 침체 속에서 한국사의 부흥과 재생을 상정하는 근대 시기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이었다. 이와 같은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는 1900년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민족 주체가 국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단한 실천과 독립의 방략을 모색하는 원천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 기반의 '진보' 개념은 1920년을 전후로 한 개조론 시기에 전환되었고, 主義·反動 등과 함께 쓰이면서 시간의 표상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강하게 띠었다. 또한 '제한적 정체기'론은 여전히 성쇠를 역사 진보의 맥락 속에서 보는 인식이 강고하게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문명 비판의 시대사조에 힘입어 한국사 차원을 넘어 세계사의 굴곡진 전개를 설명하는 논리로 변화하여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진화론의 지배적인 위치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나선적 진보'는 서구와 전통적 사유를 경유한 '정체기'를 기반으로 개조론의 사상과 세계사의 전환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다. 즉, '제한적 정체

기’론의 확장과 ‘나선적 진보’의 공고화에는 근대 시기의 세계 정세와 서구 사조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유도 여전히 강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적 정체기’를 바탕으로 한 ‘나선적 진보’는 3.1운동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과 방법론 차원에서 결합되었는데, 그 내적 논리에 따라 지식인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일어났다. 「민족개조론」 논쟁과 「물산장려논쟁」의 핵심 쟁점은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나선적 진보’와 그 내적 논리로서 역사 발전의 법칙성 및 이를 추동하는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제한적 정체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 진보적 시간의식(進步的 時間意識), 진보(進步), 개조론(改造論),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 전통적 시간의식(傳統的 時間意識), 근대 역사학(近代 歷史學), ‘제한적 정체기’론(‘制限的 停滯期’論), ‘나선적 진보’(‘螺旋的 進步’)

학 번 : 2015-20068

목 차

【국문초록】

머리말 ····· 1
一. 조선 후기의 ‘진보’와 전통적 시간의식
1. 개인의 도덕적 · 학문적 향상 ····· 6
2. 정통론 · 순환론적 시간의식 ····· 10

二. 개항기 진보적 시간의식의 형성
1. 서구의 근대적 ‘진보’ 개념의 도입 ····· 18
2. 전통적 사유를 경유한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 ····· 29

三. 1920년 전후 진보적 시간의식의 전개
1. ‘정체기’론의 확장과 ‘나선적 진보’의 공고화 ····· 47
2. 내적 논리로서 ‘주체성’과 ‘법칙성’ 논란 ····· 62

맺음말 ····· 76
【참고문헌】 ····· 79
【Abstract】 ····· 86

표 목차

〈표 1〉 개항기 ~ 1910년대 초반 한국 출판 '進步' 혹은 'progress'의 영(불)한사전 등재 양상 ····· 27
〈표 2〉 개항기 ~ 1910년대 초반 한국 출판 '進步' 혹은 'progress'의 한영사전 등재 양상 ····· 27
〈표 3〉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출판 '進步' 혹은 'progress'의 이중어 사전 등재 양상 ····· 60

그림 목차

〈그림 1〉 「참 世上은 進步하는군! 京城서 革命歌!!」····· 50
〈그림 2〉 「이광수의 '민족운명도'」 ····· 64

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시간의식이란 선진 사회라면 당연히 갖추어야할 기본 요소로 인식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사회는 계몽되지 못하거나 미발전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간의식은 근대적 시간의식으로, 근대 서구에서 형성된 단계적 발전론이나 진보적 역사의식을 통해 구현되는 일회적이며 단선적인 시간의식으로서 흔히 '진보적 시간의식'으로 불린다.[1)]

이와 같은 진보적 시간의식과 근대 서구 진보 개념의 수용 여부는 비서구권에서 근대화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한국 사상사·제도사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을 사회진화론과 개조론으로 인한 (서구)근대로의 이행기로 묘사한다. 이 때 서구 진보 개념과 진보적 시간의식의 수용 여부는 한국의 근대가 타자에 비해 '지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었다. 또한 역사 진보 의식은 근대 이전에 이미 맹아를 보이다가 민족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동력으로 별다른 이질감 없이 지식인들에게 내재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2)]

---

1) 자연적 시간관이 시간을 동질적 연속과 순환으로 본다면, 진보적 시간의식은 시간을 일회적이고 단선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시간의식은 미래에 대한 그치지 않은 희구와 도약을 요구하고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진보사관을 창출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구의 진보적 시간의식과 진보사관은 근대 계몽주의 이래 밀접하게 상호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시간의식의 직선적 구조와 그 내적 논리, 그리고 진보사관에 대해서는 라인하르트 코젤렉 저, 한철 옮김, 1979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제1장 '근대사에 있어서의 과거와 미래의 관계'; 알렉산더 데만트 저, 이덕임 역, 2018 《시간의 역사》 북라이프; 김정하, 2015 〈지중해 : 역사철학의 전통과 문명적 정체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6; 데이빗 베빙톤 지음, 천진석 외 옮김 1986 《역사관의 유형들》 두란노서원; 진기행, 1999 〈근대성에 관한 역사철학적 탐구 - 서설〉 《철학논총》19 등 참조.

2) 윤해동은 한국사의 진보를 검출하려는 내재적 발전론과 그 대표 격인 김용섭의 연구를 정리하고 1980년대 이후 민중사학 등 한국사 연구의 전개를 이 내재적 발전론의 고착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윤해동, 2010 〈'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근대역사학의 황혼》 책과 함께). 식민지 근대화론 또한 그 주체와 식민성에 대한 평가만 다를 뿐, 역사 진보의 거대서사를 추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는 내재적 발전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내재적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정연태, 2011《한국 근대와 식민 근대화 논쟁》 푸른 역사 제1장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전개' 참조.

그러나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에 서구의 직선적이고 진보적인 시간의식의 도입과정은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당시 진보적 시간의식과 결합하여 한국인의 독자적인 시간의식을 형성하는데 활용되었던 전통적 시간의식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단계적인 발달·향상'의 의미와 역사철학적 측면에서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운동'하며 대개 '직선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서구 진보 개념이다.[3] 그리고 둘째, 진보적 시간의식의 도입과정에 개입한 전통적 시간의식인 조선 후기의 순환론과 정통론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서구 진보 개념과 전통적 시간의식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한국 근대의 진보적 시간의식의 형성과 전개를 규명하는 데 있다.

한국 근대의 시간의식은 일찍이 제도사, 사상사, 사학사, 개념사 방면에서 주로 다뤄 왔다. 먼저 제도사 연구에서는 철도, 학교, 역법, 기년 등 근대적 시간체제 및 제도 도입의 역사적 과정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보적 시간의식을 내면화한 '근대인'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갈등과 혼재의 양상에 집중하여 근대와 전통의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4]

다음으로 사상사 연구에서는 진보 개념을 비롯한 서구 근대사상 일반의 한국 수용 과정과 근대적 전환 양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5] 사학사 연구에서는 주로 1900년대 중반과 1930년대를 주목하여 근대 민족주의 사관의 성립을 규명하고,[6] '발전적 민족사'를 검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진보(進步)〉; Morris Ginsberg, 櫻井万里子 外 譯, 1987 〈近代における進歩〉 《進歩とユートピア》 平凡社, p.59; 윤해동, 2007 〈'진보라는 욕'에 대하여 - 메타 역사학적 비판〉 《문학과 사회》 20 등 참조.

4)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 숲; 이창익, 2002 〈근대적 시간과 일상의 표준화〉 《역사비평》 59; 정상우, 2000 〈개항 이후 시간관념의 변화〉 《역사비평》 50; 조현범, 2003 〈일요일의 종교사 - 근대 한국종교문화의 형성과 시간의 재구획〉 《종교연구》 32; 김미화, 2016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기년법 - 제왕의 시간에서 민족/국민의 시간으로〉 《사회와 역사》 110.

5) 이광린, 1989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아카데미 등 참조.

6) 조동걸, 1998 《현대한국사학사》 나남; 한영우, 2002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등 참조.

‘근대주의’적 경향을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한국 근대사상의 전개를 개항 이전의 전통적 사상과 적극적으로 결부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근대 역사학의 형성과정과 역사인식을 규명한 성과가 있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이후 역사 서술에서 확인되는 ‘停滯期’를 식민주의 역사학의 영향으로 보거나, 서구 진보 개념을 내재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근대 사상의 전개를 전통과 근대, 혹은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 구도로만 파악할 경우 전통적 사유가 서구 근대 사상의 이해와 수용에 끼친 영향은 간과될 우려가 있다.

한편, 개념사 차원에서는 개항 초기 혹은 대한제국 시기에 서구의 진보 개념이 도입되어 그 의미와 시간의식이 변화해 간 양상을 규명한 성과가 있다.[8] 그러나 여기서도 근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전통적 의미와 서구 진보 개념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의 진보적 시간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서구 진보 개념과 전통적 시간의식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기간을 한국 진보적 시간의식의 ‘근대적 전환기’로서 주목하는데, 이 시기는 사회진화론 및 개조론 등의 서구 사조와 조선 후기 이래의 전통적 시간의식이 역동적으로 결합하며 상호작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9]

---

7) 이신철, 2013 〈동국사략의 당대사 역술과 서술을 통해 본 한국 근대 역사학의 ‘국민 만들기’〉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신주백, 2013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식의 내면적 교류〉 《한국사연구》 160; 김정인, 2016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사학연구》 125 등 참조.

8) 노관범, 2013 〈대한 제국기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 – 언론 매체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두 시점의 개념사》 푸른역사; 양일모, 2014 〈진보개념의 기원과 전개 – 개항기에서 식민지시기까지〉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 푸른역사; 박근갑, 2014 〈역사·문명·진보 – 후쿠자와 유키치와 유길준의 시간인식〉 《사총》 83; 송민호, 2015 〈문명적 이상의 굴절과 진보하는 시간〉 《한국학연구》 제38집.

9) 한국의 근대 역사학 연구에서는 근대적 역사학의 성립 시기로서 1900년대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형성과 조선학운동 시기로서 1930년대 각각에 주로 집중하고 이 시기들을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김종준, 2012 〈일제시기 ‘역사의 과학화’ 논쟁과 역사학계 ‘관학아카데미즘’의 문제〉 《한국사학보》 49; 이신철 편저, 2013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신주백, 2011 〈1930년대 초중반 조선학학술장의 재구성과 관련한 시론적 탐색〉 《역사문제연구》 26; 이진경, 2007 〈근대 계몽기

따라서 해당 시기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개항 이후 서구의 진보적 시간의식이 한국에 도입되고 그 현실에 착안하여 설정된 '정체기'가, 전통적인 순환론과 정통론을 활용하여 진보·부흥의 가능성을 담보한 이른바 '제한적 정체기'론과 한국적인 진보적 시간의식으로 형성·전개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 '제한적 정체기'는 서양사의 전개 양상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절대적 정체'와 달리, 한국인의 주체적인 발전 가능성을 포함하는 일시적이며 한정적인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3.1운동 전후 '정체기'론과 한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의 전개를 바라보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진보적 시간의식이 공고화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전개된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근대의 여러 시기와 국면에 따라 전통적 사유를 거친 '정체기'를 설정하고, 역사 진보의 지향을 잃지 않은 한국 지식인들의 진보적 시간의식의 치열한 자기화의 과정임을 정리한다.

이를 위해 진보, 進步, progress 등의 기표로 드러난 한국 '진보' 개념과 시간의식의 통시적 전개를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기존의 '진보'는 주로 정치사적·운동사적 입장을 투영시켜 進步的 知識人 혹은 進步黨 등 수구, 보수, 개량 등의 대척적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11] 이와 달리 진보를 '시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목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

『대한매일신보』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 《사회와 역사》 74 등 참조.) 그러나 필자는 첫째, 개항 이후 도입된 진보적 시간의식과 조선후기 이래 전통적 시간의식이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1900년대 중·후반과 1920년 전후의 전개를 연속선 상에서 파악하고 둘째, 이를 근대 역사학이 본격화된 1930년대 혹은 한국 근대 전체적인 역사학의 전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우선 본 논문에서는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기까지를 한국에서 진보적 시간의식의 '근대적 전환기'로 설정하여 분석 시기로 삼았다.

10) 정연태는 서양인의 한국관 연구에서 그 특징 중 하나를 '상대적 정체성론'으로 정리하면서, "조선 사회는 자연환경과 민족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사회였지만, 집약경영을 하고 있던 농업을 포함하여 산업전반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연태, 1999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 상대적 정체성론·정치사회 부패론·타율적 개혁 불가피론〉 《역사와 현실》 34) 여기에서 '상대적'이라는 용어는 절대적 정체를 상정하는 식민주의 역사학과의 차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서양사회와 비교되거나 진보의 속도에서 차이가 있는 遲滯期 정도의 좁은 의미로 이해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보다는 한국 지식인들이 진보적 시간의식을 수용하면서 한국사와 현실인식 상에서 한국의 주체적인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한시적·한정적 의미의 정체기를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제한적 정체기'로 지칭하고자한다.

11) 이광린, 1989 앞의 책; 박찬승, 1992 앞의 책; 양일모, 2014 앞의 논문 등 참조.

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진보’ 개념의 범위를 한정하면서도, 해당 기표가 근대에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당대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지식인들의 ‘진보’ 개념뿐만 아니라 이와 동반되는 ‘정체기’ 설정의 계보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핌으로써, 기존 시간의식 및 사학사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사철학을 토대로 한 시간의식을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시대의 변천과 그 전개양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기에 걸쳐 역사 발전론에 영향을 준 사회진화론과 맑스주의 그리고 ‘고대-중세-근대’라는 역사학의 시대구분법 등을 함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一장은 서구의 진보적 시간의식과 전통적 시간의식이 결합되는 양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 진보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여 개항기 서구 ‘진보’ 개념의 수용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살핀다. 근대 진보 개념의 유관의미들과 시간의식에 관한 전통적 사유를, 조선 후기 편년자료와 통사의 進步 용례 및 정통론·순환론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二장에서는 개항기 ‘진보’ 개념을 살피고, 민족국가의 위기와 근대 역사학의 성립을 배경으로 한 ‘제한적 정체기’론과 진보적 시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三장에서는 1920년 전후 ‘제한적 정체기’론의 양적 확장과 진보적 시간의식의 공고화, 그리고 실천과 방법론의 차원으로 옮겨간 ‘정체기’ 해소 논쟁을 사회세력 간의 ‘주체성’과 ‘법칙성’ 논의를 기준으로 정리하겠다.

주요 사료로는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까지 ‘진보’개념을 사용한 유길준,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안확, 이돈화, 최남선, 김명식, 신일용, 이성태, 나경석 등 지식인의 通史와 史論자료들을 이용했다. 대표적으로 갑오개혁 이후 편찬된 교과서 및 통사(1895~1910), 《독사신론》(1908), 《대동청사》(1909) 등과 일제시기 《조선문명사》(1923), 《신편조선역사》(1923), 《조선사연구초》(1920년대 초반 추정) 등과, 개항기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잡지·신문자료, 그리고 《학지광》, 《공제》, 《아성》, 《신생활》 등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진보’ 용어의 의미와 그 동향을 알 수 있는 이중어사전을 활용하였다.

一. 조선후기의 '진보'와 전통적 시간의식

1. 개인의 도덕적 · 학문적 향상

근대 서구의 진보 개념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고대 라틴어 'progredior'에서 유래했는데,[12] 주로 '기술의 향상을 통해 삶이 개선된다'는 의미였지만 그 의미가 적용되는 분야가 제한되었으며, 17세기까지도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을 집단의 의식적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았다.[13]

그런데 근대 초기 기독교 종말론, 생물의 비유를 통한 피할 수 없는 몰락의 의미를 지닌 자연 메타포(생로병사의 의미)나 순환 의미 등의 탈각 과정을 거치면서,[14] 계몽주의 전후 지식인들이 설정한 중세라는 문화 쇠퇴의 시기를 '진보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퐁트넬(Fontenelle, Bernard Le Bovier De)은 무한한 진보의 관념을 분야별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여 예술과 문학은 더 이상의 진보가 불가능하지만 과학과 철학의 영역에서는 진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중세를 진보의 시기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18세기 후반 이후 정치, 사회, 역사 등의 영역에서도 진보 개념이 도입되어,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는 '보편적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프랑스 혁명의 당위성을 옹호하였다.[15]

서구 진보 개념의 전개와 비교하여 조선 후기에도 기술이 시대가 갈수록 나아진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技藝가 정교하게 되고, 世代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기예가 더욱 공교하게 되니, 이는 사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에게서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인식이 보인다.[16] 그러나 근대 서구

---

12) 황수영, 2011 〈서양 근대사상에서 진보와 진화 개념의 교착과 분리〉 《근대 동아시아에서 진보의 재발견 - 동아시아 기본개념의 상호소통 제4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4쪽.

13) 라인하르트 코젤렉·크리스티안 마이어 지음, 황선애 옮김,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 - 진보, 푸른역사. 18~19쪽; H.E.반스 지음, 허승일·안희돈 옮김, 1994 《서양사학사》 한울아카데미, 230쪽.

14) 라인하르트 코젤렉·크리스티안 마이어 지음, 황선애 옮김, 2010 위의 책 제4장 '근대적 진보 개념의 형성' 참조.

15) 황수영, 2011 앞의 글, 4~6쪽.

처럼 기술의 진보가 곧 역사와 시세의 진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조선 후기에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17]

한국에서 개항 이후 서구 진보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진보 용어가 근대적 개념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후기의 진보 용례와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선 후기에 進步 용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걸어가다', '나아가다' 등 공간적인 의미에서 동사로 쓰이는 경향이 있었다.[18]

또한 조선의 성리학이 16세기 중반 정점에 도달하고 17세기 중반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한 유교 문명 보존 의지로 재규정되는 배경 속에서,[19] 進步 용어가 주로 쓰이는 형태들은 '竿頭進步', '進步之地', '進步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통시적으로 많이 쓰인 용례 중 하나인 竿頭進步의 경우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개인의 도덕적, 학문적으로 '충분한 성취를 이미 이루었으면서도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함'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20] 이는 宋

16) 정약용, 《여유당전서》 卷 11, 「기예론」 "... 故人彌聚則其技藝彌精, 世彌降則其技藝彌工, 此勢之所不得不然者也。" 조선 후기 서구 진보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지식인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금장태, 2005 《한국 유교의 현실인식과 변혁론》 집문당 참조.

17) 대표적인 예로 游齋 李玄錫은 「時勢氣數說」에서 세상의 기술과 지혜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사에서 진한 이후 요순시절보다 더 훌륭한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현석, 《游齋集》 권19 「時勢氣數說」(노관범, 2016 〈정녕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가?〉 《실학산책》 제395호 재인용) "今之去三代也。又歷幾千百年。而變故之更也。又豈可數乎。是其經世之術。比唐虞三代。宜益備矣。而自漢以降。世壞時汚。有百世無善治之歎。抑何哉 ... 人工莫不巧於古。而經世之工獨拙。治生莫不盡其術。而治國之術猶疏。豈所謂天數者是耶。於是作時勢氣數說。"(고전번역DB 참조)

18) 《광해군일기[중초본]》 13권, 2년 12월 19일 庚寅. "王親臨揀選, 使近于前, 或使之進步, 或使之轉眄, 多有褻慢之事, 無復以禮之意矣。"; 《선조실록》 83권, 29년 12월 25일 丁亥. "左議政金應南曰: "小臣尙未逢黃愼而語矣。 大抵賊勢, 亦與當初有異, 朝夕立至, 雖或未必, 他日更肆, 少無疑矣。 備禦之策, 不可頃刻敢忽。 自上有傳敎 ... 臣等不勝感激。 必須自上進步一寸之地, 則賊必退步百里之地。 賊雖鴟張, 亦當自滅"; 《인조실록》 3권, 1년 11월 12일 戊辰. "且待四方之兵, 相機進步, 賊若深入, 上自將與諸將幷進, 則賊非難禦也。"

19) 이경구, 2013 《조선후기 사상사의 미래를 위하여》 푸른역사, 40~44쪽; 2016 〈이용후생 - 중세의 균열과 근대의 기획〉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푸른역사, 18~20쪽; 이경구는 유학과 성리학이 개인의 일상과 도덕의 수양에서 정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4월 2일 乙丑. "上曰, 孟子七編, 何爲而作也? 世孫對曰, 敎後人以遏人慾存天理之意也。... 上曰, 百尺竿頭更進步, 何義也? 世孫對曰, 工夫之進進不已

대에 道原이 저술한 佛書인 《景德傳燈錄》(1004)에 景岑(招賢大師)의 揭句인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에서 유래된 것이다.[21] 또한 竿頭進步는 송대 朱熹가 陳亮에게 보낸 편지에서 “百尺竿頭進取一步”[22]라 하고 鞏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百尺竿頭 更進一步之勢”[23]라 하여 학문과 업적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면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進步之地·進步處의 경우도 주로 수양을 통한 ‘도덕·학문 상 나아갈 경지 혹은 여지’ 등으로 해석된다.[24] 이 중 進步處는 주희가 임종 전날 여러 제자들에게 “다만 서로 인도하고 통솔하여 굳세게 고통을 이겨가는 공부를 하여 견고하게 발을 딛고 서면 바야흐로 진보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25]

한편 進步 용어는 개인적인 학문과 德의 수양 측면에서 나아가 國勢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 신이 삼가 생각건대 ... 세도와 인심이 날로 점점 변하여 야박해져 마치 오래 병에 걸린 사람이 원기가 이미 소진되고 온갖 질병에 침해되어 좋은 약이 아니라면 가히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지금 國勢는 마치 百尺竿頭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으니 여기에서 한 마디 땅

也...”; 《정조실록》 권33, 15년 10월 9일 庚戌. “左議政蔡濟恭曰: 竿頭進步, 莫如從聖質不足處猛省 ... 竊覩聖上, 凡於政令施措, 所不足者武毅也。以其不足於武毅, 故王綱有日輕之慮, 國政多委靡之漸。... 上曰: ″卿言可謂頂門藥石 ... 當此荐雷修省之辰, 盛陳奮勵之義, 其言卽對症之萬金良方, 當體念矣。”; 《승정원일기》 순조 9년 2월 10일 庚子. “且伏念, 帝王之德, 尤難於終始如一, 宣王, 中興之哲辟也, 太宗, 創業之英主也, 及其享國久長, 怠心自生, 以千畝之籍十漸之疏, 言之, 虛受之量, 漸不如前。伏願殿下, 進步於尺竿之上, 存戒於屋漏之中, 兢惕之念, 愈久愈切, 無負向日疏批之意, 區區所望也。 上曰, 所陳好矣, 當留念矣。 上曰, 下番陳之。”

21) 四部叢刊 三編子部, 《경덕전등록》 1, 卷 第10. “師示一偈曰, 百千竿頭不動人, 雖然得入未爲眞,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22)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朱書百選·雅誦》 卷之三 제2책 138쪽. 여기에서 ‘百尺竿頭’의 출처로 앞서 언급한 초현대사의 게송을 들고 있다(“招賢大師偈, 百尺竿頭須進步十方世界是全身”).

23) 서울대학교규장각, 2000 《朱書百選·雅誦》 卷之六 「答鞏仲至」, 371쪽.

24) 《광해군일기[중초본]》 권20, 4년 9월 29일 庚申. “鄭仁弘 啓曰: ″自古帝王圖治, 與士子學道, 事雖異, 而志則同。 士子欲學道, 則必先立其遠大之志, 操持必固, 鄙俗之事, 無存於心, 利欲之念, 不留乎中, 然後念念在玆, 方有着脚進步之地矣.”; 《영조실록》 권59, 20년 1월 26일 甲辰. “上曰: ″正心、誠意, 不可分爲兩件。 誠意根也, 木無根則必枯。 人而無誠意, 則豈有進步處乎? 上下交勉好矣。″ 寅明曰: ″聖敎如此, 深得爲學之方矣。”

25) 《朱子年譜》 卷4. “但相倡率, 下堅苦工夫, 牢固著足, 方有進步處.”

> 만 떨어져도 실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하께서 처음으로 정사를 시작하는 날로, 경계하고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26]

우의정 이광좌는 영조가 왕위에 등극하여 정사를 살피기 시작할 때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의 운세가 백척간두에서 걷는 것과 같다(國勢如進步百尺竿頭)"고 표현하였다. 이광좌는 조선이 건국된 지 300여 년 만에 백척간두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형세임을 비유하였는데, 영조가 더욱더 경계하고 정사를 태만하게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즉 이 진보 용례 또한 국가의 운세와 진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비유적인 차원에서 쓰였고, 용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는 여전히 개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인 학문과 덕의 수양 측면에서 쓰인 조선 후기의 進步의 용례는 개항 이후에도 나타난다. 고종이 황해 감사로 임명되는 姜蘭馨에게 교서를 내려 그의 자질과 성품을 칭찬하면서 "일찍이 풍문은 중국에까지 전해지고 성균관에서 인재를 길러 나아가게 하였다(長國子而進步)"[27]고 하였다. 이는 강난형이 과거에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면서 그 인재들이 도덕적 학문적으로 나아가게(進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주로 조선 후기의 進步 용어는 '앞으로 나아가다'의 의미를 바탕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학문을 연구하고 德을 수양하는 하나의 행위로 표현되었고, 빈번히 쓰지는 않았으나 성리학적 체계 속에서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28] 즉, 서구 진보 개념과는 달리 조선 후기의 진보는 시간의식과 관련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과 학문의 향상'의 의미로 쓰였고, 개항 이후에도 유사한 용례가 나타났다.

---

26)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일 辛丑. "臣竊惟, 朝鮮爲國, 至于今三百年有餘矣。當初樹立, 豈不洵美且善哉? 然世道人心, 日益澆薄, 如久病之人, 眞元已削, 百疾交侵, 非大藥不可救。... 今國勢如進步百尺竿頭, 下此一寸地, 實無着手處矣。 是日, 誠殿下始初之日, 警戒罔怠之時也。"

27)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1월 3일 辛未. "惟卿, 靑氈詩禮, 素履廉平, 恬然有端諒之姿, 本色儒雅, 粹而蘊經濟之策, 餘事文章, 夙播華譽, 長國子而進步, 蔚有重望, 佐銓曹而參聞, 一區西州, 尙留循吏之蹟, 萬里北海, 克著專對之才。"

28) 양일모, 2014 앞의 논문, 66~69쪽; 노관범, 2013 앞의 논문, 135~137쪽; 김준현, 2014 〈1950년대 '진보'개념의 변화와 반공주의 내면화의 문제〉 《한국학연구》 제35집, 51쪽.

2. 정통론 · 순환론적 시간의식

근대 서구와 동아시아에서 'History' 혹은 '歷史'로 표현되는 개념은 근대 이전에는 史 혹은 史記로 쓰였으며, 이 '史'는 주로 과거를 기록하여 현재의 교훈으로 삼는 鑑戒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史의 의미에는 '정통의 흐름'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정통론'을 활용한 역사서술이 대두한 것을 의미한다.[29] 조선 후기에는 주자학 이해와 조선중화주의(혹은 소중화주의)가 심화되었는데, 이를 배경으로 한 정통론적 역사서술은 역사에 일정한 계통과 체계를 수립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30]

특히, 강목체[31]를 통해 정통론을 구현한 안정복의 《동사강목》(1778)에서는 이 정통의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부터 "史家의 大法은 統系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32] 기자를 중심으로 한 정통의 계보를 '단군 - 기자 - 마한 - 신라 문무왕 이후 - 고려 태조 19년 이후(중간은 無統)'로 삼았다.

> 무릇 統系는 사가가 책의 처음에 第一義로 삼는 것인데, 《동국통감》은 檀箕의 사적을 따로 外紀로 삼았으니, 그 뜻이 옳지 않았다. 이제 정통을 箕子로 시작하고, 檀君을 기자가 동래한 사실 아래에 붙이며 《통

29) 正統論은 일반적으로 학설, 종교의 교의, 국가의 정통성 등을 바르게 이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논리인데, 주희는 《자치통감강목》을 저술하여 전대의 나라들을 중주, 진, 한, 진, 수, 당만을 정통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無統'의 시기를 설정하여 특정한 정권의 정통적 지위를 엄격히 하여 명분을 중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2015 《역사용어사전》 〈정통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549~1551쪽; 김정심 외, 2000 〈조선후기 정통론의 수용과 그 변화〉《한국문화》26, 174~175쪽 등 참조.

30) 이우성, 1976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한국의 역사인식》下 창비, 360~361쪽. 선행 연구에서 조선후기 정통론의 강화는 前 민족주의적인 것으로써 근대 지향적으로 해석되거나 중화계승의식으로도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선후기 역사인식 연구사는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참조.

31) 오항녕은 강목체 서술인 《자치통감강목》의 출현이 왕조의 흥망을 나타내는 斷代史 기전체 역사편찬에서 벗어난 통사의 성립으로 보았다. 오항녕, 1999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22~26쪽; 2003 〈성리학 역사서의 형성과 구조〉 《한국실학연구》 6, 5~8쪽 참조.

32) 안정복, 1989《동사강목》 제1집 경인문화사 「序」 "大抵史家大法, 明統系也, 嚴纂逆也, 正是非也, 褒忠節也, 詳典章也."

감강목》 篇首의 三晉의 예를 본받았다 ... 正統은 단군-기자-마한-신라 文武王 9년 이후-고려 태조 19년 이후를 이른다."[33]

안정복은 "홍범의 교화(敎)가 唐·虞·夏의 시대부터 殷·周를 거쳐 기자에 이르러 東方에 전해졌"고 이 '교화'가 "아직도 다 민몰되지 않"[34]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東方은 단군·기자가 개국하면서부터 역대로 '統'을 전하여, 오랑캐 부락이 수시로 취산하는 것과 다르다"면서[35] 다른 종족과 구별되는 '연속적인 正體性'을 강조하였는데, 이 정체성과 독자성은 중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설정되었다.[36]

이와 같은 東國이라는 정체성의 연속은 왕조를 초월한 어떤 주체가 초역사적으로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발달한다거나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는 진보적 시간의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대신 유교 지식인들은 태초의 야만에서 삼대 이후 유교교화와 문명화의 과정을 상정하고, 중화문명을 익히고 실행하는 것이 개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37] 이를 통한 시대 변천의식을 통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안정복은 "기자가 東來하여, 彝倫으로 우리를 도탑게 하고 禮樂으로 우리를 교화하고, 민인들로 하여금 살에 배고 뼈에 사무쳐서 큰 교화 속(大化之中)에 길러지게 하였"는데 기자의 교화가 "四郡·二府 때에 기울고, 三國 때에 사라지고, 신라·고려 때에 어그러졌"다고 하였다.[38] 《東史》(1803)에서 이종휘 또한 '我東'이 기자의 교화 이후 예의와 인연의 나라로 불리다가 신라와 고려를 거치

33) 안정복, 《동사강목》 제1집 「凡例 - 統系」 "凡統系, 爲史家開卷第一義, 而通鑑, 以檀箕事蹟, 別爲外記, 其義不是, 今正統始于箕子而檀君, 附見于箕子東來之下, 倣通鑑綱目篇首三晉之例 ... 一, 正統, 謂檀箕馬韓新羅文武王九年以後, 高麗太祖十九年以後..."

34) 안정복, 《동사강목》 제1집 「題東史篇面」 "... 洪範之敎, 自唐虞有夏之世, 歷殷歷周, 至箕子而傳於東方, 尙有未盡泯者, 鑿鑿有徵焉... "

35) 안정복, 《동사강목》 제16 하, 무진년 전폐왕 우 14년 2월. "惟我東方, 自檀箕開國, 歷世傳統, 異於諸夷部落聚散之無常..."

36) 정통론의 민족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중화주의에 대해서는 김종복, 2011 〈조선 후기의 신라정통론과 발해사의 인식〉 사림 제39호; 허태용, 2009 앞의 책, 30~34쪽;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고대사연구와 중화주의의 변용〉 《역사학보》 202권, 51·59~66쪽 참조.

37) 渡辺浩,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 東京大學出版會, pp.228~229.

38) 안정복, 《동사강목》 제1집 무오년 기자 40년. "按皇天, 眷佑我邦, 太師東來, 篤我以彝倫, 敎我以禮樂, 使人淪肌浹骨, 涵育於大化之中, 雖其迹已遠其言已湮 而民之受敎而服習者 歷千祀而不泯 傾覆于四郡二府之際 夷于三國 佛于羅麗 而其禮義之根於心者 則愈久不替 ..."

면서 풍속이 비루해졌고 조선에 와서야 이적에서 華夏로 변했다고 보았다.[39] 이렇듯 조선후기 정통론이 강화되면서, 통사에서는 기자조선의 중화 문명을 이어받은 유교적 교화의 시작, 신라-고려시대의 異敎(주로 불교)로 인한 쇠퇴, 그리고 조선 왕조에서의 유교 교화의 회복 과정이 인식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당시 조선의 역사는 유교 교화의 여부에 따라 시대의 부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후기 중화주의의 흐름 속에서 정통론은 東, 東方, 東夷[40], 東國, 朝鮮 등으로 표현되는 당시 조선의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통해, 중화 문명을 계승한 기자문화와 그로부터 이어지는 교화가 '연속'되어 온다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였고, 그것은 '檀箕正統論' 혹은 '馬韓正統論'으로 표현되었다.[41]

이렇듯 조선후기의 주요 역사 서술법인 정통론은 갑오개혁 이후 교과서 및 통사 편찬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개항기 최초의 통사이자 갑오개혁 이후 학부가 편찬한 편년체 사료인 《朝鮮歷代史略》(1895)에서는 단군과 기자가 동국 統系의 처음이며, 마한의 왕 기준을 주자 강목의 예에 따라 정통으로 삼았다.[42] 즉, 史의 흐름 파악에 있어서 체계성을 확립하고 계통적인 東國의 전개를 인식하는 정통론 서술이 조선 후기 통사에 나타났고 이것이 개항기 통사 서술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43]

---

39) 《修山集》 卷之六, 「策 - 革舊俗」(이강한 외, 2015 《실학시대 역사학 연구》 사람의 무늬, 488쪽 재인용.) "我東雖小。亦秉禮之魯也。自箕氏以來。天下號爲禮義之邦。仁賢之國。然至於羅，麗之際。而風俗鄙陋。幾純乎夷。 聖祖撥亂。變夷爲夏。"

40) 19세기 초 한치윤이 간행한 기전체 통사인 《해동역사》에서는 가장 첫 부분에 '東夷總記'를 두어서 조선의 역대 종족 정체성을 '東夷'로 지칭하고 있다. 《해동역사》 世紀 1 「東夷總記」 참조.

41) 최근의 조선후기 정통론 연구에서 지식인들의 (소)중화주의적 태도와 동시에 청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태, 2018 〈이익과 안정복의 동국정통론 재검토〉 《한국사학보》 70; 조성산, 2009 앞의 논문, 73쪽; 김정심 외, 2000 앞의 논문, 186~196쪽 참조.

4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1 - 《조선역대사략》(1895) 서울아세아문화사, 271~273쪽. "... 然檀君乃首出之神君, 箕子卽立敎之聖后, 歷年始終猶可考信, 故尊而書之於東國統系之首. 箕準雖爲衛滿所逐失國, 徒都尙繼箕子之祀, 則猶漢昭烈之國於蜀而不失正統, 今亦依朱子綱目例以正統書之. … 三韓雖一時幷立正統旣歸馬韓況辰韓本馬韓之所割與而又常以馬韓人作主幷韓, 則東史諸書皆稱屬於辰韓辰弁之於馬韓蓋是屬附, 故幷低一字書之. … 故依綱目無正統例書之, 至新羅文武王統三爲一, 故始以正統書之."

43) 조선후기의 정통론을 통해 개항기 국사 교과서 및 통사의 '민족주의적' 서술과 '單線的'

이와 같이 정통론은 현 왕조의 이전 왕조에 이은 '계승성', 하나의 계통과 그 정당성이 이어져 왔다는 '연속적인 흐름'을 강조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 이를 기반으로 한 통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동국의 정체성과 기자 문화의 '연속성'은 개항 이후 진보적 시간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역사의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一治一亂',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否極則泰來', '極則反(返)' 등으로 표현되는 '순환론'이다. 주지하다시피 一治一亂은 《맹자》의 "天下之生久矣 一治一亂"[44]을 바탕으로 한 관념으로 순환사관 혹은 왕복사관으로 알려져 있다.[45] 一治一亂은 세상은 治亂이 되풀이되지만 성인과 현자가 노력하고 바로잡아야 비로소 亂이 治로 바뀐다는 교훈적인 의도가 내포된 견해로, 같은 유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46] 개항 전까지 고종은 조정에서 신하들과 《맹자》의 一治一亂과 요순의 정치에 대해서 토의하기도 하였다.[47]

이른바 變通論은 《주역》 「繫辭傳」에서 "躬하면 變하고 變하면 通하며 通하면 오래간다"[48]로 표현되는데,[49] 이를 통해 유교 지식인들은 폐단

역사흐름 파악의 유사성을 강조한 연구는 도면회, 김수자 등이 있다. 도면회, 2008 〈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 체계의 확립〉 《역사와 현실》 70; 김수자, 2015 〈20세기 신채호의 18세기 안정복에 대한 역사인식〉 《동방학》33 참조.

44) 《孟子》 滕文公章句 下 9 "公都子曰 外人 皆稱夫子好辯 敢問何也 孟子曰 予豈好辯哉 予不得已也 天下之生久矣 一治一亂."; 公孫丑章句 下 13 "五百年 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45) 와타나베 히로시는 중국의 전통사상에는 이를 통한 순환사관 혹은 왕복사관이 주류였다고 지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渡辺浩, 1997 앞의 책, pp.225~227. 참조.

46) 고병익, 1985 〈유교사상에서의 진보관〉 《중국의 역사인식》 上 창작과 비평사, 79~80쪽; 이선경, 2014 〈주역의 변통론과 율곡의 개혁사상〉 《사회사상과 문화》29 등 참조.

47) 《승정원일기》 고종 6년 11월 28일 乙未. "上曰, 聖堯之世, 宜無災異, 而亦有如此之災矣。 世均曰, 此正一治一亂者也。 蓋氣化之盛衰, 人事之得失, 反復相尋, 堯以雍熙之治, 至此時, 爲六十餘載矣。 氣化極盛, 而乃有洪水之災, 擧舜·禹而平治, 此誠制亂之大聖也。 孔子作春秋, 孟子息邪說, 此雖曰人事, 實由天生, 聖人以開萬世之治, 亦是氣數攸關也。"

48) 《周易》 〈繫辭傳 下〉 제2장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周易傳義》 下 卷二十三 第一章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蓋取諸乾坤." (동양고전종합 DB참조).

49) 선행연구에서 변통론은 조선 중·후기 유학자 혹은 실학자의 개혁론을 설명하는 데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용흠, 2006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1 혜안; 김현

이 생겨난 과정, 원인 등을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순조 대 서얼의 소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聖朝에 이르러서는 禮樂과 典章이 찬란하게 구비”되었지만, 서얼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습속을 답습하여 오랜 세월을 경과하다가 극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것인데, 이 역시 物理상 부득이한 것(而窮則變, 變則通, 亦物理之不能已)”[50]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은 폐단이 극단에 이르면 시세 상 개혁할 수밖에 없는 형세를 나타내, ‘窮 → 變 → 通 → 久 → 窮’의 전개 과정은 폐단 생성 및 개혁의 과정이자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순환론’으로 묘사된다.[51] 또한, 변통론은 “大抵世事, 窮則變, 變則通, 天道互環, 無往不復”[52]과 같이 명확하게 순환을 표현하는 구절과 함께 결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순환의 과정은 ‘泰괘’와 ‘否괘’의 교환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53] 否極則泰來 혹은 泰來, 回泰 등은 보통 좋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泰와 否의 교차와 순환을 의미하였다. 최명길은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 이후 인조에게 “천운은 순환하여 가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없고 陰이 극에 달하면 陽이 회생하고 否가 극에 달하면 泰가 오는 것”인데, “진실로 이때에 군신 상하가 협심 분려하여 함께 국사를 도모한다면 天意를 되돌리고 민심을 진정시키기 어렵지 않을 것”[54]이라고

우, 2013 〈구한말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변통론적 근대 인식〉 《인문학연구》 제24호 등 참조.

50) 《순조실록》 순조 23년 7월 25일 辛卯.

51) 주역 변통론의 개혁론과 순환의식은 곽신환, 2007 〈주역의 변통과 개혁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29; 최정묵, 2012 〈주역의 기본 논리에 대한 고찰〉 《유학연구》 제27집 참조.

52)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10월 21일 己酉. “天道互環, 無往不復” 혹은 “天運循環, 無往不復”은 《大學》 序에서 주나라가 쇠하고, 공·맹 이후에 쇠한 기운이 송나라의 덕이 융성하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과정을 “天運循環, 無往不復”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大學》章句序 新安朱熹 序 “... 天運循環 無往不復 宋德 隆盛 治教 休明”, 동양고전 DB 참조.)

53) 《주역》에서의 ‘泰괘’는 64괘의 하나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사형통하는 象이며, ‘否괘’는 음양이 화합하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周易傳義》 上 卷五 11. 泰와 《周易傳義》(上) 卷五 12. 否참조 (동양고전 DB 참조).

54)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5월 15일 壬午. “願殿下, 毋爲戚戚於斯也。 天運循環, 無往不復, 陰極則陽回, 否極則泰來。... 誠及此時, 君臣上下, 協心奮勵, 共圖國事, 則天意不難回, 人心不難定矣。”

하였다. 즉, 그는 사건 이후 민심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天運循環·否極則泰來라 하여 군신이 분투, 노력한다면 천운이 순환하여 그 형세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極則反(返)은 주로 物極則反 혹은 事極則反으로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만물이 극단에 이르면 반대로 돌아오는 경향을 지칭하여, 《周易傳義》에서는 "事極則反 理之常也"[55], 《宋大家歐陽文忠公文抄》는 "夫物極則反 數窮則變 此理之常也"[56]라고 하였다. '極則反'의 대표적인 예는 영조가 신하들에게 탕평책에 관해 하유하는 내용에 나타나 있다. 영조는 당의 명목은 "우리 왕조 중엽 이후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 그 거대함을 이뤘"고, "老論과 少論은 斯文에서 고질이 되"자 "끝에는 서로 忠逆으로 헐뜯어 천고에 없는 바 무신년의 逆亂을 빚어냈다"고 하였다.[57] 영조는 당의 명목을 만들고 서로 공격하던 끝에 무신란이 일어났지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돌아오는 것이 이치의 상례"이며 "天道는 循環하는 것이니 돌아오지 않는 때는 없는 것"으로 "이제는 노론과 소론·남인과 북인이 모두 聯章을 올려 다 '舊習을 씻었다.'고 하였다"고 기대를 보였다. 즉, 영조는 사물이 極에 이르렀으면 돌아오는 것이 이치의 상정이며 천도가 순환하여 당쟁의 구습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순환론은 인간사회의 변화와 자연의 변화를 구분하지 않았고, 왕조 또한 생명체나 유기체처럼 성장과 발전, 노화와 죽음을 거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서 '자연 메타포'[58], 즉 자연의 생물처럼 인간 세상도 생

---

55) 《周易傳義》 上. 卷十 26. 大畜 [傳] "予聞之胡先生, 曰 天之衢亨, 誤加何字, 事極則反, 理之常也 ..."

56) 《宋大家歐陽文忠公文抄》 卷13, 論 03. 本論下 "夫物極則反, 數窮則變, 此理之常也, 今佛之盛久矣, 乘其窮極之時, 可以反而變之不難也."

57) 《영조실록》 권103, 40년 5월 26일 丁丑 "... 噫四十載臨御, 年又至望八, 夙宵一心, 惟在祛黨。 噫! 彼黨目, 從何世來? ... 而逮于東國, 自檀君至前朝, 其無聞焉。 我朝中葉以後, 起於微而成其大 ... 噫! 彼東西, 起於郎通, ... 噫彼老少, 痼於斯文, 一轉再轉, 三轉四轉, 初則互相斥以賢邪, 末則互相加以忠逆, 釀成千古所無之戊申亂逆。 ... 物極則反, 理之常也。 ... 天道循環, 無時不復。... 噫! 今則於老於少於南於北, 其皆聯章, 咸曰滌舊, 時不可踰, 機不可誤, 卽日躬詣眞殿, 仰奏其事, 奏殿之語, 諸臣之章, 藏諸史閣, 以垂于後。"

58) 코젤렉은 한스 블루멘베르크(Hans Blumenberg)의 은유학을 언급하면서 개념사의 명제들을 보완하는 은유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은유'는 개념처럼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는 역사적 증언이며 개념의 자산보다도 더 원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모든 개념형성의 밑바탕에 남아있는 "내부언어적 지침들로 가능한다"면서 그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박근갑, 2012 〈'근대'의 의미론〉 《개념과 소통》 제9호, 122쪽·132쪽.

로병사의 전개를 겪는다는 사유와 연관된다.[59] 그리고 이 전통적 순환론과 자연메타포는, 인간사회를 포함한 만물에게도 계절의 순환과 생명체의 생로병사처럼 성장과 발전을 거쳐 거스를 수 없는 쇠퇴와 죽음이 있고, 나아가 다시금 '소생'하며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순환(전환)을 활용한 시세관·시간의식은 조선 후기 유교지식인들이 당시 쇠퇴와 폐해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更張 혹은 改革해야 한다는 '우환의식'을 바탕으로 시간의 전개를 순환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60] 즉, 전통적 순환론은 단순히 시세의 필연적인 변화만을 관조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쇠퇴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여 이를 전환하거나 경계하고자하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적 순환론은 표면적으로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책임과 주체성을 내재하고 있었다.[61] 순환적 시간의식을 통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전통적 순환론은 개항 이후에도 활발히 활용되었다. 당시 국제정세에 따라 '자주독립'과 '황제칭호'의 요구가 활발했던 대한제국 선포 전후의 논의를 살펴보자.

>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箕子 이래로 스스로 강하지(自强) 못하여 제후국을 면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 멀리 우리 仁祖 대왕과 孝宗 대왕 같은 聖神이 서로 이어서 복을 베풀게 되었지만 대체로 사대하는 예절은 한결같이 成規를 따랐으니 朱子의 이른바 '통분을 참으며 원한을 품으면서도 절박하여 부득이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天運은 순환하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陛下는 하늘이 낸 큰 성인으로서 不世의 위업을 이룩하여 옛날의 수치를 씻고 우리 祖宗 성취하지 못한 뜻있는 일

59)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 왕조 변혁의 순환설이 있었고 그 과정이 유기체의 생로병사 과정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고병익, 1985 〈유교사상에서의 진보관〉 《중국의 역사인식》 上 창작과 비평사, 80쪽.

60) 조선시대 유학자들과 개항기 지식인들의 우환의식과 감계주의를 기반으로 전통적 순환론에 관해서는 금장태, 1990 《한국 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제1장 '한말 유학의 역사의식'; 박충석, 1982 《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45~46·227~229쪽; 전복희, 1996 앞의 책, 107~109쪽; 이선경, 2014 앞의 논문 82·84~85쪽 등 참조.

61) 전통적 순환론과 숙명론이 구분되는 측면은 금장태, 1990 위의 책 참조.

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나라가 생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경사스러운 기회이니 국가의 억만년 끝없을 복이 장차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62]

농상공부 협판 權在衡의 상소에서 고조선 이래의 조선의 정체성을 '동방'으로 표현되고 이 동방이 기자 이래로 제후국으로서 인조-효종 이후까지 원한을 품으면서도 청에 사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天運이 循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있어서 '성인'인 고종의 노력으로 '不世의 위업', 즉 사대관계를 버리고 자주 독립국가로 이끌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皇城新聞》에서는 "내가 易理를 嘗思함에 否極泰來오 困極亨至"이며 "어찌 이와 같은 極否極困의 時를 當하여 因變達權의 策을 亟圖치 아니하고 天時人事가 自泰自亨하기만 坐待"할 수 없는데, "有曰 窮則變變則通이라 하니 是를 事權在手한 大官에게 所望하는 者이로라"[63]하여 시세를 고찰하면서 여러 순환론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독립신문》 서재필의 글에서도 "다행히 갑오경장하는 기회를 만나 국운이 회태하고 성은이 하늘같이 크사"라고 하였다.[64] 즉, 서재필은 갑오개혁을 통해 국운이 回泰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개항 이후의 순환론 또한, 서세동점의 위기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과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담보 되어야 시세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시간의식을 특징짓는 정통론은 東國이라는 정체성 및 기자 교화를 계승한다는 '연속'의 의미를, 순환론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역사와 시세가 전환(순환)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시간의식은 개항 이후 지식인들의 진보적 시간의식 수용의 매개로 활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

62) 《고종실록》 권 36, 34년 9월 25일 "惟我東方, 自箕聖以來, 不能自强, 其能免夫藩封者幾希 ... 亦越我仁祖大王曁孝宗大王, 聖神相承, 克迓申休, 而凡事大之節, 一遵成規, 朱子所謂'忍痛、含冤, 迫不得已'者, 是也。天運循環, 無往不復, 惟我陛下, 以天縱之大聖, 建不世之偉業, 湔洗舊日之恥, 克成我祖宗未就之志事。 此, 實我東土肇判以後初有之慶會。而國家萬億年無疆之休, 其將基之於是矣。"

63) 《황성신문》 1899년 7월 28일 논설.

64) 《독립신문》 1898년 5월 5일 논설.

二. 개항기 진보적 시간의식의 형성

1. 서구의 근대적 '진보' 개념의 도입

한국의 진보 용어가 근대적 개념어로 사용된 것은 일본의 영향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일본의 문명 개념은 진보 개념의 수용을 동반하였다. 《西洋事情》(1860)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progress'를 '세상이 열림', '문명(혹은 개화)이 진보한'의 의미로 이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善을 향해 가는 법'이라고 풀이하여 서구 진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65]

이러한 일본의 서구 진보 개념은 1880년대 초반 조선에 수용되었다. 수신사에 참여한 이후 일본에 유학하면서 후쿠자와의 영향을 받았던 유길준은 진보 개념을 선구적으로 문명개화와 연결시켜 사용하였다. 1883년 조선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의 간행사에서 그는 신문의 조목과 간행 빈도수를 "開化 文明의 進步를 따라 事理를 살펴" 증가시키고 종국에는 "현재 文明하다 지칭되는 諸國에서 행하는 신문"과 같이 발간할 것이라 포부를 밝힌 바 있다.[66]

이러한 '진보' 개념을 토대로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개화의 등급」에서 국가를 문명 수준에 따라 '야만-미개-반개-문명'으로 나눴고,[67] 「나라의 등수」에서도 "현금 동 서양 각국이 다 등수가 잇스니 제 一등은 문명국이요 그 다음에는 개화국이요 그 다음에는 반 개화국이요 그 다음에는 개화 못한 야만국이라"고 하면서, 다시 "대한은 정부와 인민이 서로 밋지 안 하야 점점 정의가 섯기여 서로 도을 생각이 업는 고로 나라 등수가 겨우 반 개화국에 잇"다고 하여 반개화의 단계로 조선을 위치시켰다.[68] 이렇듯 유길준의 예를 보았을 때 근대 이전 개인적 의미가 강했던

65) 일본의 문명개화와 서구 진보 개념의 도입에 대해서는 야나부 아키라 지음, 박양신 옮김, 2013 《한 단어 사전, 문화》 푸른역사, 29~30쪽 참조.
66) 兪吉濬 全書 編纂委員會 編, 1971 「한성순보 간행사」(1883) 《유길준전서》 제1권 일조각.
67) 이광린, 1979 앞의 책, 258~259쪽.
68) 《독립신문》 1899년 2월 23일 「나라 등슈」.

進步는 그 단위가 개인에서 문명·국가로 확장되었으며,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단계적 시간의식을 기반으로 한 서구의 '진보'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0년대 중반에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진보' 개념이 점차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한다. '진보'는 주로 "부국강병 진보하세", "進步於開明之界", "文明進步"와 같이 문명, 개명, 개화의 경지로 '나아가다'라는 동사형으로 쓰였으며, 문명, 국가, 자주독립, 부국강병, 교육, 학문 등과 함께 활용되었다.[69] 《독립신문》은 영국 사회학자이자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의 논의[70]를 게재한 「진보론」에서는 '진보' 개념에 대해, "사람은 점점 나아가므로 지혜가 밝아지고 나라도 점점 나아가므로 정치가 흥성하는 것"인데 "그 나라의 쇠패한 근본을 궁구하건대 착한 데 나아가기를 다투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였다.[71] 즉, 지식과 학문의 '경쟁'을 통해 국가도 "점점 나아"지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때 '점점 나아진다'는 의미로 '진보'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종도 1890년대 중반부터 기존 용례와 다른 '문명진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72]

하지만《독립신문》의 폐간으로 인해 '진보' 개념의 활용은 침체되었다. 그러던 중 1900년대 중반 러·일 전쟁과 을사조약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급변속에서 국가 위기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겨난 계몽적 성격의 신문과 잡지들에서 '진보'개념이 활발히 사용되었다. 특히 이때의 '진보' 개념은 중국 양계초의 《飮氷室文集》과 일본의 사회진화론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73]

---

69) 《독립신문》 1898년 9월 29일 논설; 《독립신문》 1897년 3월 6일 논설; 《황성신문》 1898년 10월 6일 「僉照撮要」; 《황성신문》 1900년 5월 9일 기서 愚軒生 등 참조.

70) 이는 《萬國公報》에서 논의된 벤자민 키드의 사상 소개를 중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은 Young John Allen 編, 1968 「論進境」(《萬國公報》 1899년 3월호 大同學 제2장), pp.18355~18359; 「相爭相進之理」(《萬國公報》 1899년 4월호 大同學 제3장), pp.18422~18426, 《萬國公報》 29권 華文書局股份有限公司 참조.

71) 《독립신문》 1899년 8월 5일 「진보론」.

72)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1월 1일 丙申. "詔勅, 朕承祖宗付畀, 君臨於八域萬姓, 玆三十有餘年 ... 重之開國五百三年六月以後, 有國家文明進步之名, 而尙無其實。 故群黎百姓, 不無徒懷疑貳之心."

73) 일본과 중국의 사회진화론은 국가유기체설과 결합되어 수용되었고, '진화'가 '진보'와

국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에서는 문명개화와 민족국가의 부흥을 위해 교육·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인재를 양성할 목적을 띤 사회단체와 학교들이 다수 설립되었다.[74] 이에 따라 그를 알리는 취지서와 광고·소개 글 또한 대거 작성되며 '진보' 용례가 빈번히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文明進步'를 의미하는 '進明會'와 '開明進步'를 의미하는 '開進學校', '東亞開進敎育會' 등 진보가 명사형으로 쓰이는 용례가 다수 나타난다.[75] 一進會 역시 "一心進步홀 主義"의 설립 취지를 명칭으로 삼은 것으로,[76] 이를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와 학교 등에서 진보 개념을 사용하였다.

190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헤이그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정미조약 등에 대한 반발과 위기의식으로 단체와 지회설립이 더욱 활발해지고 일제의 식민지화 교육 정책에 대항한 지식인들의 사립학교의 설립도 이어졌다.[77] 이에 따라 '진보' 개념에는 서구 문명과 민족국가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근대화'와 '주체화'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채보상운동을 들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시작하여 1년여 동안 지속되었는데,[78] 당시 언론에서는 志士와 僉彦들이 "斷烟滅粮하고 血心幹旋하여 국채를 보상"하고 "남녀노소아동이 自債의 如히 損輸者가 踵相接"하니 "卽 此 進步하며 庶幾를 何言가 興機을 確信"[79]하며, "國償報債의 問題로 斷烟同盟하고 捐金을 募集하는 義擧"가 "大韓人民의 愛國思想이 如是發生"하여 "吾人은 此會의 成立을 甚喜하고 其有進步를 深願"하니 이는 "韓人의 愛國心과 國民의 自重心을 可見"할

유사하게 이해되어 추상적인 진보 개념이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진화법칙으로 입증되었다. 일본·중국의 사회진화론의 수용에 대해서는 미야카와 토루 외 엮음, 이수정 옮김, 2001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89~92쪽; 전복희, 1996 앞의 책, 44~96쪽; 양일모, 2013 앞의 논문, 76~87쪽 등 참조.

74)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23일 「論社會」.

75) 《황성신문》 1904년 11월 29일 「進明趣旨」; 《황성신문》 1905년 7월 29일 논설.

76) 《황성신문》 1904년 9월 2일 「一進會趣旨書」.

77) 전재관, 1997 〈한말 애국계몽단체 지회의 분포와 구성〉 《숭실사학》 제10집, 174~177쪽; 변승웅, 〈한말 사립학교 설립동향과 애국계몽운동〉 《국사관논총》 제18집 등 참조.

78) 국채보상운동의 구체적인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는 신용하, 2004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사회사》 나남출판 제1부 제3장; 이송희, 2011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국학자료원 제7장 등 참조.

79) 《서우》 제6호, 1907년 5월 1일 「禁酒ᄒᆞ라 報償ᄒᆞ세」 太極魂 安憲.

것이라고 하였다.[80]

그런데 이 시기 한국의 '진보' 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는 영국과 미국의 국민을 "세계에 최진보된 국민"으로서 "혁명에 의치 안코 개혁에 의하여 진보하는 인민"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프랑스 국민은 혁명을 통한 "천박한 진보주의"를 가져서 "건전한 발달에 유해"한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인은 "활동 진보의 기상"과 "보수적 특성"이 있어 보수적 성격의 진보주의에 어울린다고 주장하였고,[81] 이러한 맥락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우려하였다.

오가키는 한국인이 국채보상운동에만 집중해서 "국민이 主要의 교육, 식산에 주의치 아니하면 국가의 위험을 예측키 불능"하고 "단체가 각처에 할거하여 각자 기치를 수립함은 정부에서 畏敬치 아니"하게 되었다고 경계하였다. "국민의 행복, 국가의 진보는 시국 긴절의 취지 목적으로써 국민의 한 단체를 성립하여 질서를 세우고 완급을 도모"해야 "국민에게 건전한 정신이 있고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危頹를 구제하고 또 後年의 발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였다.[82] 이처럼 오가키는 진보를 위해 교육, 산업의 기초를 닦아야할 것을 강조하고, "천박한 진보주의"를 떠올리는 무분별한 단체와 운동을 통한 '진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통감부가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막는 보안법, 신문지법 실시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대한자강회와 동우회를 1907년 8월에 해산시키자,[83] 일본은 점차 '주체적 진보'의 방해자로 표상되어갔다.[84] 이렇듯 '진보'에는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의 '근대화'와 '주체화' 욕구가 표출되었고 1900년대 후반에 '진보'개념의 활용도 정점을 이루었다.

이처럼 1900년대 중반 전후 쟁점화 된 '진보'개념은, 근대 이전의 공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시간의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

80)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8일 「國債報償의 問題로 外報의 論評」 논설.
81) 《대한자강회월보》 제2호, 1906년 8월 25일 「偉大한 國民에난 三個特性이 有함을 見함」 大垣丈夫.
82) 《황성신문》 1907년 3월 26일 「警告文」 大垣丈夫.
83) 이송희, 2011 앞의 책, 299쪽.
84) 《황성신문》 1907년 12월 19일 「壓制時代論의 謬」; 《황성신문》 1908년 4월 7일 「淸廷의 義務敎育實施」; 《대한협회회보》 제10호, 1909년 1월 25일 「敎科書檢定에 關혼 忠告」.

‘진보’가 유행하면서 기존의 ‘尙古主義’[85] 대신, 옛 것(舊)을 버리고 새로운 것(新)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로 여겨졌다.[86] ‘究新子’라는 필명을 가진 자는 “現我靑年은 惟日 勤勉하야 新學에 進步”[87]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대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革舊從新하는 主義는 國家進步를 爲”한 것이요, “革舊刷新之事에 關하는 一事二事에 오직 進步하기로 爲主홈이 可”[88]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옛 것은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며 새로운 것은 추구해야할 대상이었다.

박은식은 ‘文明新化’라는 말을 문명진보의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89] 그는 ”文明新化를 吸收하여 進步의 勇銳와 團體의 固結“해야 ”我大韓國 名譽가 世界에 藉藉하여 獨立之權을 白可復焉”이라고 하였다.[90] 즉, 진보란 새로운 문물을 추구하는 것이며,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국가의 독립이자 진보였다.

반대로 ‘舊’의 화신으로서 유림과 자제의 교육을 방해하는 완고한 부형들은 ‘新化’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국가와 사회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91] 왜냐하면 “過去社會의 腐敗는 前人의 罪”이며 이로 인해 “現在社會가 改良進步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92] 이처럼 당시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근대 이전부터 변화하지 못하고 오래된 것은 퇴보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진보한 것으로 인식하여 신구의 차이로 그 우열을 평가하였다.

대신 그러한 시간의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므로 노력한다면 따라잡

85) 조선시대의 시간의식은 대체적으로 가치의 기준이나 행동규범이 前代나 古代를 존중하면서, 과거를 당대를 살아가는 준거로 삼는 尙古主義의 관점에 맞춰져 있었다. 신형식, 1989 《한국의 전통사회의 역사의식》 백산, 152쪽.

86) 개항기 신-구 관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충석, 1997 〈한국 근대사에서의 개화적 사고의 성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7; 이행훈, 2011 〈신구 관념의 교차와 전통 지식 체계의 변용〉 《한국철학논집》 제32집 등 참조.

87) 《서북학회월보》 제8호, 1909년 1월 1일 「新學과 舊學의 區別」 究新子.

88)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5일 「斷髮可否」.

89) 《황성신문》 1909년 6월 27일 「勞動力作의 身範 (續)」.

90) 《서우》 제4호, 1907년 3월 1일 「機會」 박은식; 《서우》 제3호, 1907년 2월 1일 「團體成否의 問答」 會員 朴殷植.

91) 《황성신문》 1908년 7월 24일 「儒林界의 新敎育家 新學問과 新敎育」; 《황성신문》 1908년 12월 13일 「警告頑固父兄」

92) 《황성신문》 1909년 1월 29일 「敬告社會上」 僉君子.

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윤치호는 1885년부터 1894년간에 중국과 미국 유학을 통해 근대지식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M. Townsend가 저술한 《아시아와 유럽》(Asia and Europe)을 읽으면서 백인종과 아시아 인종의 간의 진보의 우열을 시간의 문제로 설명한다.

> 백인은 우리를 숙명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대한다. 하지만 ... 인종적으로 따지면 갈색 인종과 황인종은 백인종이 정글에서 벗어나기 훨씬 전에 높은 수준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설령 진보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다시 백인종을 따라잡거나, 또 다시 백인종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93]

윤치호는 다년간의 미국 유학생활과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서 백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백인이 문명국가를 세우기 전에 아시아 인종이 먼저 발전된 문명을 만들었으므로, 현재 이들이 열등한 취급을 받고 그 '진보'가 지체되었더라도 백인종을 다시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a question of time)라고 하였다. 그는 인종 간 진보 우열의 차이를, 신지식의 학습을 통해 따라잡고 더 나아가 추월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94]

'진보'가 내포하는 시간의식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를 통해 대한제국 지식인에게 각인되었다. 진보와 관련하여 '시대'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쓰였다. 하나는 '진보 시대', '경쟁시대', '신시대', '現今시대', '二十世紀의 시대'처럼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를 규정하여 '진

93) 《윤치호일기》 6권, 1903년 1월 15일 목요일. "The whiteman approaches us as inferiors not only but inferiors by predestinatio ... As a race, the brown and yellow man developed a high degree of civilization long before the whiteman was out of his jungles. If we have halted, and halted too long, in our progress, we are still capable of learning. It is only a question of time—and time is admittedly immaterial in Asia—that we shall again catch up with the white race and, who knows? we may surpass them once more"(한국사 DB 참조).

94) 문명과 야만의 개념, 그리고 진보가 개항 이후 시간의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송민호, 2015 앞의 논문; 신승엽, 2017 〈시간을 차이로, 차이를 시간으로 - 19세기말 20세기 초 외국인들이 인식한 조선의 시간과 문명의 위계〉 《한국학연구》 45 참조.

보'해 나가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향이었다. 그들은 "目今 産業競爭의 時代를 當하여 何種營業이던지 發前未發하여 進步하는 能力이 有한 者는 生存의 幸福을 得"하며,[95] 대한제국이 정치, 학문, 교육, 지식, 사회상의 "過渡時代"에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진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6]

다음으로 시대는 시기 구분을 통해 낙관적인 방향과 단계로 향상·발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문명의 정도에 따른 야만·미개-문명시대 구분,[97] 정치·제도의 측면에서의 상고-중세-근세, 家族-酋長-有國시대의 발달 과정[98]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렵-유목-농경-상업-공업 시대',[99] '상고-중고-근세' 산업의 진전,[100] 분업과 공업의 진보 시대 구분[101] 등이 있고, 역사학에서의 '고(상)-중-근'의 역사학의 시기 구분[102] 등으로 세계 일반의 분야별 '단계적 진보'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유길준도 사상은 시대의 수요에 따라 산출되며, 그 수요에 따라 도덕정치시대, 법령정치시대에 이어 현재 기술정치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정치제도의 진보과정을 제시한 뒤, 당시의 문명국들처럼 한국도 이를 위해 기술 진작에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103]

이와 같이 '시대의 진보'라는 관념은 추상적이긴 했지만 대한제국 지식인에게는 당시가 진보된 시대이며,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지식인들은 세계 일반의 진보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였고, 그 진보의 부재를 인식하면서 한국사의 전개 과정이 낙관적인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大韓每日申報》의 「進化와 降衰」 논설[104]에서는 미래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95) 《황성신문》 1909년 7월 24일 「淸國繡業에 對ᄒᆞᆫ 觀念」.
96)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9일 「大韓의 過渡時代」.
97) 《태극학보》 제26호, 1908년 11월 24일 「先覺者의 三小注意」 成川支會長 朴相駿; 《서북학회월보》 제10호, 1909년 3월 1일 「植物學大要」.
98) 《대한유학생회학보》 제3호, 1907년 5월 25일 「警察要義」 鄭錫迺; 《대한협회회보》 제5호, 1908년 8월 25일 「政治의 進化」 元泳義.
99) 《황성신문》 1904년 4월 11일 「農業改良策(一)」.
100) 《대한유학생회회보》 제2호, 1907년 4월 7일 「勞力」 李昌煥.
101) 《대한협회회보》 제8호, 1908년 11월 25일 「商業發達의 時期 續」 權東鎭 述; 《서북학회월보》 제13호, 1909년 6월 1일 「工業大意」 H生.
102) 《대한유학생회회보》 제2호, 1907년 4월 7일 「勞力」 李昌煥.
103) 《대동학회월보》 제1호, 1908년 2월 25일 「時代思想」 兪吉濬.

‘진화설’과 더 퇴락하여 간다는 ‘강쇠설’을 비교하였다. 논설의 필자는 서구국가들이 “인류의 희망이 무궁하며 인류의 진보도 또한 무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동양국가들은 “진화의 공례와 반비례를 이루”어 “진보의 길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05]

또한, “현금시대는 세계 열강의 문명 경쟁이 비상히 극렬하여 우승열패가 勢所固然”인데, “오직 我大韓民族이 幾百年 폐쇄 중 습관으로 桃源鄕裏에 春夢이 自若하여 세월을 不知하였으니 烏得免 今日慘境”[106]하거나, “全世界에 曰 皇帝 曰 君主 曰 統領이라 稱하는 國家의 進步한 程度와 發展한 範圍를 吾人의 雙眼을 拭하고 一回 周察”해보면 “貧國도 我韓이요 弱國도 我韓”으로 “最古의 문명국으로 矜式하던 惟 我韓國 민족이 장차 빈약한 비경에 陷入”[107] 하였다고 탄식하였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서구 및 세계 일반의 단계적이고 발전적인 과정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시대와 함께 ‘진보’라는 시간의식을 규정하는 주요 관계어는 ‘진화’와 ‘퇴보’였다. 먼저 ‘進化’는 “進化公例에 感覺이 敏活치 못하여 文明進步가 遲遲緩緩한 結果로 今日 我民族의 墜落이 此境에 遂至”[108]하고, “天地大運의 進化하는 風潮를 拒逆하고 不動不變하여 萬般事業의 進步하는 能力이 無하면...”[109] 등의 용례에서 法則이자 公例로서 자연계와 인간계 등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進化의 公例를 從하야 進步되는 것은 不易의 定理”[110]이며, “宇宙間萬物은 活動變化하여 暫時라도 進化의 程路를 不息하니 吾人人類의 生活도 또한 此 一大 法則을 免치 못하리다”[111] 등의 용례와 같이, 진화는 ‘보편적 법칙’이자 자연도태의 철칙에

104)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13일 「進化와 降衰」.
105) 노관범 또한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의 「競爭進化論의 大槪」와 같은 내용의 「경징의 진보」을 비교하여 ‘진화’가 ‘진보’로 해석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대한제국기 진보와 진화의 개념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는 노관범, 2013 앞의 논문, 140~142쪽; 양일모, 2013 앞의 논문, 90~92쪽 참조.
106) 《서북학회월보》 제2호, 1908년 7월 1일 잡저.
107) 《대한흥학보》 제2호, 1909년 4월 20일 「我韓에 對ᄒᆞ야 富强의 基礎를 論홈」 編輯人 姜荃.
108) 《황성신문》 1909년 10월 24일 「讀慶南日報」.
109) 《황성신문》 1910년 2월 24일 「度厄의 第一妙方을 陳述홈」.
110) 《황성신문》 1909년 10월 22일 「孔子誕辰休暇ᄒᆞᆫ 報에 對ᄒᆞ야 又一觀念」.
111) 《대한매일신보》 1906년 9월 27일 「普通敎育論」.

적용되는 필연성을 담지한 것이었다.[112]

결과적으로 진보의 유의어로서 진화는 '진보'개념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문제는 대한제국의 지식인이 단계적 혹은 직선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와 우주, 진화의 법칙에서 배제되어 "자연도태사멸"될 위기[113]를 겪고 있는 한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였다.

이 문제는 '퇴보'로 연결된다. 기존에 진보의 반의어는 보수, 수구, 완고 등 정치적·집단적 개념이었으나,[114] 1900년대 중반 이후 이와 더불어 '退步', '退化', '敗亡', '滅種' 등의 반의어가 빈출하였다. 특히 퇴보는 19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주와 역사의 진화 법칙 아래에서 진보하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하게될 것임을 환기시켰다. "日益 退步하는 者는 其 國家와 民族이 禍敗를 自招"하는 것이며,[115] "其能進步發達者는 勝利를 得하고 退步萎縮者는 敗亾을 取"할 것이라는 언급은 상당히 빈번하였다.[116] 李得季는 유교가 "進步的 精神의 自由를 阻碍"했음을 지적하면서 "進步의 國民은 前途의 希望이 有하거니와 過去를 理想으로 하는 國民은 退步와 滅亡이 有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117] 다시 말해 지식인들은 쇠퇴하는 민족국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생존경쟁 법칙의 당위성을 '퇴보'라는 개념을 통해 부각시켰던 것이다.

특히 직선적·단계적 진보를 상정하는 서구 및 세계일반의 진화의 법칙과 그와 구별되는 한국 역사의 진보와 퇴보의 교차는 '진보'의 당위성과 그 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역사 진보의 전개 방향을 '盛衰' 혹은 '消長'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중어사전이었다.[118]

---

112) 개항기 사회진화론의 자연도태적, 법칙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 선인 참조.

113) 《서북학회월보》 제17호, 1908년 5월 1일「본교의 측량과」 박은식.

114) 《독립신문》 1897년 4월 8일 논설; 《독립신문》 1896년 12월 29일 논설; 《황성신문》 1899년 7월 13일 논설; 《황성신문》 1907년 4월 24~26일 「保守와 改進」 등에서는 정치적 집단적 개념으로서 진보 혹은 진보당은 그 반의어인 보수, 수구, 완고, 보수당, 수구당, 완고당 등의 상대 개념으로 쓰였다.

115) 《태극학보》 제26호, 1908년 11월 24일 「師範養成의 必要」, 秋醒子.

116) 《황성신문》 1908년 7월 25일 「卒業生懽迎」.

117) 《대한흥학보》 제6호, 1909년 10월 20일 「我韓社會觀」 李得季.

118) 이중어사전이란 표제항과 풀이문장이 서로 다른 언어로 구성된 사전으로 흔히 '對譯辭典'으로도 불린다.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은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 혹은 외교 관리

영(불)한 사전 명	'進步' 혹은 'progress'의 등재양상	비고
스콧(J.Sott), 《영한ᄉᆞ뎐》(1891)	progress : 낫다, 자ᄅᆞ가다, 느러가다	295쪽
C. aleveque, 『법한ᄉᆞ뎐』(1901)	progres : 나아감	260쪽
G.H.Jones (한국명 趙元時), 《영한ᄉᆞ뎐》(1914)	progress : 진보(進步), (in skill) 젼진(前進), (in civilization) 기진(改進), (advance or decline) 셩쇠(盛衰)	160쪽
	development : (progress), 진보(進步), 발달(發達), 기발(開發), expansion 확장(擴張)	62~63쪽
	* Evolution : (development) 발달(發達) : 진화(進化) - theory, 진화론(進化論)	75쪽

〈표 1〉 개항기 ~ 1910년대 초반 한국 출판 '進步' 혹은 'progress'의 영(불)한사전 등재 양상

한영 사전 명	'進步' 혹은 'progress'의 등재양상	비고
언더우드, 『한영ᄉᆞ뎐』(1890)	progress : 압흐로가오, 더가오, 나아가오.	438쪽
J.S.Gale, 《한영ᄉᆞ뎐》(1897)	젼진 : 前進 (압) (나올) the best, the foremost - in studies. 젼진ᄒᆞ다 : (압) (나올) to progress ; to advance.	780쪽
J.S.Gale, 《한영ᄉᆞ뎐》(1911)	진보 : 進步, progress, advancement 진보당 : 進步黨, the progressive party	931쪽
	기진ᄒᆞ다 : 開進 to progress, to develop, or reform; to renovate	189쪽
	退步하다 : 退步 to step back; to retrograde ↔ 進步	1026쪽
	* 진화론 : 進化論(나아갈) (될) (의론) Evolution.	935쪽

〈표 2〉 개항기 ~ 1910년대 초반 한국 출판 '進步' 혹은 'progress'의 한영사전 등재 양상

위의 〈표 1〉과 〈표 2〉에서 보듯이 1890년대부터 1910년대 초까지 한

들이 편찬하였다는 점, 사전 편찬 과정에서 같은 시기 일본과 중국의 사전을 다수 참고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용어사용 양상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19세기 말 ~ 20세기 초 한국의 언어 자원의 활용에 중국과 일본의 영향이 컸다는 점, 일정부분 한국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어사전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개항기 ~ 일제시기 이중어사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황호덕, 2010 〈번역가의 왼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 《상허학보》 28 참조.

국에서 발간된 이중어 사전을 참고하였을 때, ‘progress’는 1900년대까지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와 같은 고유어나 ‘進’, ‘前進’과 같은 한자어로 설명되었으나, 게일(J.S.Gale)의 《한영ᄌᆞ뎐》부터 ‘進步’ 기표가 번역어로 채택됐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표 1〉에서 G.H.Jones의 《영한ᄌᆞ뎐》(1914)을 참고하였을 때, 진보의 의미에 ‘(advance or decline) 셩쇠(盛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한국에서 수용되어 토착화되었던 진보의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진보는 서구 근대의 ‘진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서구 문명과 민족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한 향상·발전의 의미로 나아갔다. 지식인들은 舊에서 新으로의 변화가 곧 진보의 과정이고, 우주 및 역사의 진화 법칙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는 퇴보의 언설을 통해 시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진보’를 규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당위성’을 산출해냈다. 특히 퇴보와 멸망의 위기에 있는 현재와 이를 포함한 한국사의 전개는 직선적·단계적 진보를 상정하는 서구와 명확하게 구별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인들은 전체적인 한국사의 전개를 ‘낙관적 직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2. 전통적 사유를 경유한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

한국의 '진보'개념은 역사의식의 차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의 근대적 역사학은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朝鮮史》(1892)와 《朝鮮近世史》(1901)를 譯述한 현채의 《중등교과 동국사략》(1906), 그리고 양계초의 사론들을 바탕으로 한 신채호의 「독사신론」(1908) 등에서 시작되었다.[119] 여기서 소개된 근대 역사학의 고대-중세-근대의 3시기 구분법과 사회진화론의 단계적 발전론이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120] 이렇듯 서구의 진보적 시간의식은 1900년대 중반 한국사 속 진보의 부재와 국가위기론의 현실인식 속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시 한국의 낙후된 현실과 진보의 결핍에 대한 인식은 사론과 통사에서 잘 드러난다. 海雲子라는 필명을 가진 지식인은 「進步하라 同胞여」에서 당시가 "세계 각족이 勇을 賈하고 猛을 誇하여 분주하며 도약하며 용맹하는 進步時代"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현 상황을 "문명계인가 암흑계인가"고 반문하면서, 다시 "退한 자", "약한 자", "멸망의 비경을 만난 者가 我韓"이라며, 대한제국의 현 상황을 '암흑'으로 설명하였다.[121] 신채호도 아래의 「대동제국사 서언」을 비롯하여 한국 역사를 통관하면서 퇴보와 함께 '암흑시대'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 발해 멸망한 이래로 滿洲入寇 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를 버리고, 동해 한 구석을 보존하야 국맥은 비열한 外交에 의하야 유지하며 민중은 幾個 전제 악마에 임하야 좌우케 하고 비굴 퇴보의 지경에 신음하얏스니 이것이 한 시대라. 이 시대는 특별히 명하야 암흑시대라 함이 가하다 ... 만주입구 이래로 佛寇擊退의 전에 이르기까지, ... 충분한

119) 근대 국사교과서 · 통사에서 역사 서술의 변화와 근대 역사학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조동걸, 1998 앞의 책 제2장 '근대사학의 대두와 초기의 역사학'; 한영우, 2002 앞의 책 제2부 3장 '근대민족주의역사학'; 김종복, 2013 〈대한제국기 역사서의 고대사 인식과 유교적 사유체계의 변동〉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도면회, 2008 앞의 논문 등 참조.

120) 사회진화론의 단계적 발전론과 개항기 한국에서의 수용에 대해서는 데이빗 W. 베빙톤, 1979 앞의 책, 101~102쪽; 전복희, 1996 앞의 책, 151쪽; 박정심, 2016 《한국근대사상사》 천년의 상상, 157~163쪽.

121)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7일 「進步ᄒᆞ라 同胞여」.

발달을 이루지 못하였(다)...[122]

황의돈도 《대동청사》(1909)에서 삼국시대를 “우리 4천년 역사 상에 最壯 最榮한 시대”로 삼았지만, 고려 말 원의 간섭 기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文興武衰時代’로 지칭하여 “사회가 암흑할 뿐 아니라 유교도 또한 퇴패”하며 “사대주의를 고취하여 국민의 뇌수 중에 노예성을 주입하여 국세로 하여금 위미부진”한 시대라고 정리하였다.[123] 이렇듯 갑오개혁이후 교과서·통사와는 달리,[124] 19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지식인들은 한국사의 근세와 그와 연결되는 현재 상황이 퇴보했다는 공통인식 상에서 암흑, 흑암, 암매의 시기라는 의미에서 ‘암흑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암흑기 설정은 당시 발간된 서양사 통사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국에서 발간된 서양사 통사들에서 고-중-근의 3시기 구분법이 활용되고 있었는데,[125] 그 중 중세는 암흑기로 설정하고 있었다. 주로 유럽사를 중심으로 한 김상연의 《정선만국사》(1906)에서는 “중세사는 西羅馬(서로마 - 인용자, 이하 같음)의 멸망 즉 기원후 476년에 기하야 東羅馬(동로마)의 멸망 즉 동 1453년에 이르”렀는데, “이 西羅馬의 멸망으로 10세기말에 이르기까지 500여년 간은 史家가 혹 이를 칭하여 暗黑時代”라고 지적하였다.[126]

이 시기 한국 지식인이 수용한 서양의 3시기 서술에는 서양사의 암흑시대 극복과정을 모방하여 한국사의 암흑기를 극복하고자 한 의도도 엿보인다. 예를 들어 신채호는 한국을 ‘동양이태리’로 비유하면서 이탈리아사와 비교하였는데, “광개토왕의 웅략이 君士但丁(콘스탄티누스 대제 - 인용자)과 방불하며 연개소문의 무력이 氏蛇(율리우스 카이사르)와 近似하고 중

122)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대동제국사 서언」(1909~10년 추정)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50~351쪽.
123) 황의돈, 1909《대동청사》(동국대학교 소장본).
124) 1890년대 이래 학부 편찬의 교과서·통사에서는 본조인 조선 서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역사 편찬에서 해당 왕조사를 다루지 않는 근대 이전의 경향이 지속되었고 왕조와 일제의 검열 등의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5) 고유경, 2011 〈대한제국 후기(1905~1910) 서양사 교과서에 나타난 유럽중심주의〉 역사학연구 제41집, 273~276쪽.
126) 김상연 저, 임이랑 역, 2011 《근대역사교과서》 6 - 《정선만국사》(1906) 제2편 「중세사 - 중세연한」 소명출판, 영인본 48쪽.

세 이래 누백년을 타국의 覇絆을 받음도 양국이 酷類"하다고 하여 고대에서 중세까지 역사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물론 "근세 수십년 이래 事를 비교하면 이태리는 天上에 登하고 한국은 地下에 陷"하였다고 구분하였지만, 이탈리아사가 중세의 암흑기를 거쳐 부흥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지리상에만 동양 이태리를 作할 뿐 아니라 인사 상에도 동양 이태리를 作"할 것[127]이라고 한국 또한 암흑기를 극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서양사 지식은 19세기 서구역사학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128] 그 주안점은 중세 자체를 쇠퇴한 시기로 부각시키는데 있기보다는, 역사 진보의 보편법칙 속에서 고대와 근대를 접속하고, 근대를 중세와 단절하는 데 있었다. 한국에서 서양사 활용의 전형적인 예는 「二十世紀新國民」에서 볼 수 있다. '文明의 進步'이라는 소제목에서 동양과 구분되는 서양사의 전개를 정리하였는데, "서양에는 希臘(그리스)과 羅馬(로마)의 문명"이 발달하였다가 중세의 암흑시기가 되고, "暗黑時代가 지나고 황금시대가 회복하여 문명의 기운이 정신계와 물질계에 팽창"하여 "장족의 進步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고대에서 근대의 문명진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韓國의 地位'에서는 "今日韓國에 精神이 發達되엿는가 曰否라 實力이 擴張되엿는가 曰否라 文明이 進하엿는가 曰否라"며, "오즉 道德이 腐敗하며 經濟가 困乏하며 敎育이 不振하며 萬般의 權利가 他手에 歸하며 民氣의 墮落이 極度에 達"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한국 진보의 부재를 지적하였다.[129]

이와 같이 한국의 암흑기는 그 퇴보의 상황이 '현재'의 위기상황과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양의 그것과 달랐다. 서양사의 중세는 침체 속에서도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지표들과 근대로 이어지는 여러 혁명적인 사건

127)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동양이태리」 (1909년 1월 28~29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661~664쪽.

128) 1900년대 중반 당시 한국에 도입된 근대 역사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유경, 2011 앞의 논문, 제3장 '유럽중심주의의 내면화'; 이진일, 2013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국사' - 동아시아로의 학문적 전이를 중심으로〉 ; 정현백, 2013 〈일본 근대 역사학의 형성과 서구 역사학의 영향 그리고 개화기 조선 - 트랜스내셔널 전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H.E 반스 지음, 1994 앞의 책 제9장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시대의 역사서술' 등 참조.

129)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2~23일 「二十世紀新國民」.

들이 진보하는 근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김상연은 서양의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이 연간에는 볼만한 문물이 없는 까닭으로 이러한 이름을 붙였으나 그 안에 이미 새로운 문명의 징후가 확실히 발현"되었다고 하였다.

유승겸은 《중등만국사》(1907)에서 서양의 중세를 전·후기로 나누면서, "전기는 희랍라마의 개명으로부터 소위 중세의 정태에 遷하는 시기"이자 "암흑시대라 칭"하였다. 그렇지만 후기는 "문명정도에 점진"하고 "공예기술과 문학재지가 거대히 진보"하여 "제반의 개량, 발명, 발견 등"으로 "일신문명한 근세에 轉至"하였다고 정리하였다.[130] 즉, 중세 전기는 암흑기였지만, 후기의 발전으로 인해 그 침체가 중세 시기 내에서 해소되었고 그 점진적인 발전은 "근세개화의 문명"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1900년대 중반 한국 지식인들에게 갓 수용된 서양사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대체적으로 직선적, 단계적인 발전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131]

한편 지식인들은 한국사의 암흑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一斧에 수백년 암흑방면을 타파"[132]하고, 그 쇠퇴가 "다 맷백년래로 사대주의를 고취한 악결과가 아닌가"의 용례처럼,[133] 암흑기 담론을 한국의 과거 수 백년 이래 쇠퇴 상황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국사는 주로 "우리 한국 종족은 모두 단군 후예"로 "실로 세계상 우등 민족"이지만 "다만 수백년래에 폐쇄 중 생활"로 인하여 쇠퇴한 것으로 진단하거나,[134] 한국 민족은 "단군 기자의 신성 후예라 충실하고 두터운 풍속이며 정직 온아한 근성은 세계 상 우등인종이라 칭송"되었지만, "다만 수백 년 폐쇄"로 "국가의 권력과 인민의 생활이 조금도 나아가

130) 유승겸, 《중등만국사》(1907) 제2편 「중세사」, 61~62쪽.

131) 당시 한국 지식인의 세계사 이해 방식은 대체적으로 서구중심주의에 입각하였다. 보수적이며 지체된 동양과 진보된 서양의 구분을 토대로 모범이 되는 서양사의 전개에 주목하거나, 멸망·정체의 實例이자 타산지석의 대상인 폴란드,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의 역사가 부각되었다. 서양사와 세계사 통사 서술의 성격에 대해서는 백옥경, 2010 〈한말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인식〉 《한국사상사학》 제35집, 194쪽; 고유경 2011 앞의 논문, 280쪽 등 참조.

132)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1908년 8월 25일 「기호흥학회는 하유로 기하얏는가」 신채호.

133)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5일 「일심심산촌에 일 완고학구가 잇다」 검심(신채호).

134) 《황성신문》 1908년 12월 3일 「社會가稍稍進步乎」.

지 못하고 날마다 점차 퇴보"[135]하였다는 언설이 대세를 이루었다. 즉, 지식인들은 서양사와 달리 '신화적인 고대와 쇠퇴한 (최)근세[136]'라는 현재로 이어지는 하강·쇠퇴 구도 속에서 암흑기를 파악하였던 것이다.[137]

이렇듯 대한제국 지식인들의 암흑기 설정은 서양의 중세 암흑시대처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138] 대체로 서양사와 한국사의 전개는 구분되었다. 왜냐하면 서양사의 발전과정은 앞서 살펴본 시대의 전개, 진화 공례 속에서 확인된 '낙관적 직선'으로 이해되었고, 지식인들은 이와 대비되는 한국사에서 근세 이래 현재까지의 암흑기를 부각시켜 대한제국이 서구 문명과 민족국가로 나아가야한다는 당위성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보의 결핍과 부재를 인식하면서 설정된 '암흑기' 담론과 한국에 수용된 '진보'개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는 진보를 3가지 단계로 설정한 문일평의 경우다.

> 一 個人의 發達이던디 一 社會의 進就던디 恒常 三層 階級을 經由ᄒᆞᄂᆞ니 卽 獨斷 懷疑 聰明이 是라 ... 此 進步의 階級을 更移하야 國家社會에 推論ᄒᆞ면 大抵 一治一亂의 跡이 亦是 此 三階級을 經由하도다 ... 我太祖씌옵셔 登極ᄒᆞ시미 遠近이 說服하고 國境이 安堵ᄒᆞ야 其 德化涵育과 文運隆盛이 聰明一致의 時代러니 此 時代가 愈久愈變ᄒᆞ야 獨斷 盲從에 至ᄒᆞ엿고 또 由此로 幾度의 變遷이 不息ᄒᆞ야 輓近 數十年부터 懷疑時代가 漸露ᄒᆞ더니 爾來에 尤

135) 《황성신문》 1908년 2월 8일 「[寄書] 觀歐美各國山水人物圖有感」.

136) 이는 개항기 발간된 동양사의 고-중-근의 시대전개와도 유사하지만, 당시 서양과 일본의 동양사 인식의 구도 속에서 보수적이며 정체 상태인 동양은 지리적 결정론과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인식되었으며, (미쓰이 다카시, 2009 〈일본의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참조) 이는 '절대적 정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식민주의 역사학과 관련하여 후술하겠다.

137) 한말~일제시기 초의 한국사 연구는 단군,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고대사를 통해 자강 사상과 민족의식의 고취, 외침으로 인한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에 대한 각성이 이뤄졌다. 20세기 초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 대해서는 김현철, 2011 〈한말 조선의 대외관과 영토 인식 - 박은식·신채호의 자강사상과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2; 류시현, 2015 〈한말 일제 초 단군과 고조선 인식의 체계화 - 신채호·최남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1; 박걸순, 2004 〈일제강점기 망명 인사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이만열, 1977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인식 시고〉 《한국사연구》 15 등 참조.

138) 장지연의 《만국사물기원역사》(1909)에서 시대를 3시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석기-청동기-철기 시대'의 초보적인 시대 구분이 보일 뿐이다. (장지연 저, 1978 《만국사물기원역사》(1909) 제3장 '인류 - 三時代' 서울아세아문화사, 29~30쪽) 이는 당시 지식인의 3시기 구분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甚ᄒᆞ야ᄂᆞᆫ 大懷疑時代가 되야 ... 참 危急ᄒᆞᆫ 秋로다. 然이나 此 懷疑時代가 極度에 旣達ᄒᆞ얏슨 則 不遠에 又 一變ᄒᆞ야 光明時代가 到達ᄒᆞ리니 我同胞人士ᄂᆞᆫ 此 三階級의 理則에 深히 用心ᄒᆞ야써 雄飛의 準備을 勿怠할지여다[139]

문일평은 우선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린이 시기의 독단을 거쳐 청소년 시기의 회의를 지나 장년의 총명의 시기를 겪는 성장과정을 개인 진보의 3단계로 묘사하는데, 이를 더욱 확장하여 국가사회도 이러한 독단-회의-총명의 시기를 반복하는 일치일란의 3단계를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이 태조 이후로 융성하며 총명한 시기를 거쳐 독단맹종의 시기를 지나, 최근 수 십년 이래로 회의시대가 시작하여 현재는 대 회의시대가 되어 더욱 위급한 시기가 되었다고 현재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극도에 달하면 다시 총명한 시기에 도달할 것이니 동포가 이러한 진보의 법칙에 잘 따라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즉, 그는 국가 사회 진보의 3단계 중 회의에서 총명으로의 전환을 亂에서 治로 바뀌는 일치일란으로 설명한 것이다.

《태극학보》의 이어지는 글에서도 그는 국가·사회의 전개 과정을 동·서양 세력 간의 순환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세계문명이 陽氣의 대세와 같이 間斷없이 輪次廻轉"하는 것인데, 태고에는 "東亞 諸民族은 활극을 연출"한 반면 "저 서양 諸國은 黑黑暗暗한 洞中에 준동"하는 암매한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순환하여 "동양은 漸黑漸暗하고 서양은 愈文愈明"하게 되어 처지가 반대로 바뀐 것이다. 그렇지만 "天道는 至公하사 變易이 없"기 때문에 "이 勢가 再轉하야 십 수년 전부터 동양의 長夜乾坤에 返照"하였으니 그 증거가 일본이고 "그 다음은 我韓"이라고 주장하였다.[140] 그는 廻轉과 再轉의 순환 과정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은 치세 혹은 총명, 진보의 가능성이 내재된 일치일란의 난세이자 진보의 회의이며 黑暗 시대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였다. 이렇듯 그는 사회진화론으로 인식된 암흑기를 전통적인 순환론과 자연메타포를 활용하여 생명체의 성장과정이자 국가의 치란으로 설명하였다.

---

139) 《태극학보》 제11호, 1907년 6월 24일 「進步의 三階級」 文一平.
140) 《태극학보》 제12호, 1907년 7월 24일 「韓國의 將來文明을 論홈」 文一平.

이렇듯 대한제국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되, 순환론과 자연메타포 등의 전통적 사유를 통해 현재의 암흑기의 원인과 그 극복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였던 예는 자연메타포를 통해 암흑기인 국가의 상황을 '老年'국으로 해석하고 이에서 벗어나 젊은 '少長'국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신채호는 "日人이 한국을 老耄國"이라고 희롱하였는데, "대저 人이 老耄하면 死期가 在邇함과 같이 國이 老耄함에도 또한 死期가 在邇"하니 "만약 한국인이 이와 같은 모멸을 遭하면서도 오히려 분발이 無하면 과연 한국은 老耄國"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가 "한국은 老耄國이 아니"며 단지 병에 걸린 小壯國이라고 반박하였지만,[141] 국가 위기론에 자연메타포를 결합하여 설명하고 한국인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더 나아가 김광재는 「願學少年」에서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노년의 시기에 있으므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여 끝내는 '멸망'할 것이라는 논리로 진보의 당위성을 한층 강조하였다. 그는 "我韓人과 國에 程度로 老少를 論之하면 人은 老年界라 謂할지며 國은 少年界라 謂"할 수 있는데, "以我堂堂한 少年國으로 人 亦 學少年하여 進進不已면 勇斷堅確한 特性을 世界에 公示"할 수 있는데, 반대로 노년계에 있는 한국인은 "一寸의 進步와 一鼎의 扛力이 無"하여 "人與國이 俱爲衰退ᄒᆞ야 自招滅絶"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夫我國人이 一體決心하여 老年性習을 除却하고 更以少年氣力으로 學得少年步武하고 做得少年事業"[142]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진화론의 원리 속에 이야기되는 '퇴보'와 '멸망'의 레토릭을 자연메타포와 결합하였고 한국인이라는 노인이 소년을 배우고 신학문을 학습해야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전통적 순환론도 사회진화론과 결합하여 당시의 국가 위기를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강조하는데 활용되었다. 박은식은 평양과 개성이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융성하였고 조선시대 수백 년 이래 차별로 인해 쇠퇴하였지만, "極則必反하고 窮則思通은 理之常"으로 "현 吾國중에

141)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소장국」(1909년 12월 12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30쪽.
142) 《기호흥학회월보》 제3호, 1908년 10월 25일 「願學少年」 金光濟.

人民之思想이 점진하고 社會之風氣가 일개하는 기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현재 세계를 보면 “某國의 강력은 兵額이 幾百万이오 强食弱肉하여 滅國易種이 幾多邦國”인데, 한국은 “국권과 인권이 전연추락하야 타인의 노예와 우마가 된 참상”이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와 서북지방이 ‘극즉필반’의 상황을 만들었듯이 나라가 쇠퇴한 상황 속에서 “이 두 곳의 社會 進步”가 “오늘날 전국의 前茅”로 기능하길 기대했다.[143] 그는 쇠퇴가 극단에 이른 암흑기인 현 상황이 곧 서북지방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서양 학문의 학습과 단체의 단결, 애국사상의 고취로 전환(진보)되길 기대한 것이다.[144] 이처럼 박은식은 전통적 순환론과 사회진화론의 원리를 결합하여 한국의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전통적 순환론과 사회진화론을 결합하여 설명하는 다른 예로 현채를 들 수 있다. 그는 《유년필독》(1907)에서 유태인과 波蘭(폴란드)인의 멸망 사례를 통해 “대저 망국한 신민은 타인의 노예가 되어 賤役이 牛馬와 같고 鞭하고 撻하며 生하고 殺”[145]하는 것이라고 사회진화론의 암울한 현실을 설명하여 한국의 위기 상황을 각인시켰는데, 이러한 현실인식이 역사서술로 나타난 것이 《중등교과 동국사략》이었다.[146]

현채는 조선시대 중엽 이후를 외침, 당쟁과 외척, 세도정치로 인한 암흑기로 설정하였는데, 서문에서 “지난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에 일본인 야비(野狉)하고 우리는 문명을 이루었”으며 “또한, 근세를 가지고 말”해도 “실제로는 우리의 문물과 전장이 저들보다 나”았지만, “지금은 문물까지 함께 남보다 못하게 되어 옛날의 면목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본의 문명은 우리의 옛날보다 크게 앞서가게 되었”으며 반대로 “우리는 波蘭(폴란드), 이집트(埃及), 인도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는 쇠퇴의 기점을 조선시대 중엽으로 소개하면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완고하고 비루함이 습성을 이루”었으며 “정치

143) 《서우》 제9호, 1907년 8월 1일 「平壤과 開城의 發達」 박은식.
144) 《황성신문》 1908년 4월 23일 「平壤에 各校聯合運動盛況」 박은식.
145) 현채 발행 겸 편집, 이정찬 편역, 2012 《유년필독》(1907) 도서출판 경진, 영인본 제4권 54~56쪽.
146) 하야시 책과 이를 역술한 《중등교과 동국사략》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林泰輔 저, 편무진 외 옮김, 2013 《조선사(번역, 해제)》 인문사; 박주국, 2013 〈구한말 한일 양국의 한국사 인식 비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어육이 되며 기강이 느슨해져 國脈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서술하여 암흑기로 설정하였다.[147]

그런데 현채는 쇠퇴의 기점인 조선시대 중엽 이후를 '盛極將衰'로 이해하였다. 그는 조선 성종의 시기도 "문화가 蔚然하야 洋洋히 태평 기상이 융성한 운에 달"하였으나 반대로 "정사가 관후하야 賄賂가 점차 행"해지고 "燕山의 허황되며 음란한(荒淫) 습관을 열었"으니 "성종의 재위 25년간은 盛極將衰하는 때"[148]라고 하였다. 이후 "조선의 文化는 성종 대에 이르러 극히 발달하고 그 후 쇠운에 趨"하다가 "숙종 대에 점점 회복하고 영조, 정조 대에 이르러 다시 융성한 경지에 이르니 이는 실로 제2회 진흥"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시기도 또한 "일면에는 당쟁의 알력이 심하고 일면에는 문화의 進步가 日盛"하였다면서[149] 당쟁과 이후 외척과 종친의 병권,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를 부각시켜 조선 쇠퇴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갑오년 이후 10년 기사」를 부록으로 넣으면서 이러한 쇠퇴가 현재로 이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즉, 현채는 당시 사회진화론의 국가위기의 암흑기를 '성극장쇠'와 결합하여 한국의 근세 이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당시 사회진화론의 '보편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데 기존의 전통적인 시간의식을 활용하였고, 근세 이래 진보의 부족과 퇴보를 인정하면서 당시를 '암흑기'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암흑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식산, 학교·단체 설립, 관습과 풍속의 개량 등을 제시하였지만, 그 실천론은 비교적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당시에 "其言論을 聞하면 風雲을 籠絡하는 手段과 山海를 移轉하는 氣概가 有"하고 "曰政治改善이니 曰風俗改良이니 曰教育擴張이니 曰實業研究니"하지만,

147) 현채 저, 임이랑 역, 2011《중등교과 동국사략》(1906) 「自序」 소명출판. "向者羅麗濟時, 豈不曰日人野狉而我固文明者耶, 迺自衣服車馬宮室, 以至文章制度各般技藝, 莫不師我則我, 式至于今誇耀我者, 行莫非我出耶 ... 何今則幷我文物而亦盡輸於人, 無復舊日面目, 乃令人謂我狉野, 猶不及前時日本, 而日本之文明則大勝於我之舊日, 嗟乎嗟乎, 是誠何哉 ... 乃我則不免爲波蘭爲埃及爲印度 ... 乃猶忮心尙存頑陋成習, 頓不自悟久而益迷, 政治敗腐人民魚肉, 紀綱頹弛國脉已喪."

148) 현채 저, 《중등교과 동국사략》(1906) 권3 근세사 조선기 상, 영인본 19~20쪽.

149) 현채 저, 《중등교과 동국사략》(1906) 권4 근세사 조선기 하 「문화급당쟁」, 영인본 35~36쪽.

“其實地履行으로 觀하면 自己의 虛譽와 私利를 弋取”하며 “眞實히 長足進步로 彼岸에 到達하고 奮鬪生活로 凱歌를 奏唱하는 勝利가 有한 者를 得見키 不能”하다는 내부 비판이 빈번했다.[150] 또한 “近年以來로 或 有志人士가 文明國의 模範을 依倣하여 幾個社會를 組織”하였으나 “朝聚暮散하야 一社도 完成한 者가 無”하며,[151] “我韓의 學校之興이 非不多也로되 敎育之발達은 未見其進步요 會社之設이 非不盛也로되 團體之成立은 未聞其完全”[152]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실질적인 진보에 대한 자기비판은 곧 구체적인 실천과 방법론의 부재로 기인한 것이었다.

더불어 당시 한국지식인들이 전통적 시간의식으로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흡수하고 이해하여 한국사에서의 이러한 ‘암흑기’를 인정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에 순응적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될 우려가 있었다.[153] 나아가 자연메타포의 노화와 죽음을 사회진화론에 따른 민족국가의 쇠퇴와 멸망 과정에 연결시키거나, 한국이 아닌 일본을 포함하는 동양을 주체로 하여 인종론이나 아시아주의의 관점에서 순환론을 흡수할 수 있었다. 또, 일본의 한국 강점이 전통적인 왕조교체 혹은 순환의 한 과정으로 인식될 경우 당시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한 문명화와 식민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진화론을 통한 패배주의적 논리의 극단에 위치했던 것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이었으며, 이는 ‘한국은 애초에 스스로 진보할 수 없다’는 ‘절대적 정체’를 증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54] 대표적

150) 《황성신문》 1908년 10월 25일 「徒言이 不足以濟事」 논설.
151) 《황성신문》 1907년 9월 24일 「社會의 團體」 논설.
15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9일 「告我同胞」 姜世馨.
153) 기존 연구에서 1900년대 중반 국권회복운동 중 문명개화론자와 개신유학자들을 포함하는 지식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진화론의 세계관 속에서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통해 열패자의 지위를 극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사유 또한 사회진화론을 이해하고 그 논리에 순응하는 데에 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사회진화론이라는 사상의 지배적인 위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중반 지식인들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성격 구분에 대해서는 박찬승, 1992 앞의 책; 김도형, 1994 《대한제국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최기영, 2003 《한국 계몽사상 연구》 일조각 등 참조.
154) ‘停滯’는 본래 진보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완만하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개념이었지만, 구미 및 일본 등의 식민지 사업 정당화 차원에서 고정 불변하는 ‘절대적 정체’의 개념으로 탈바꿈하였다.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정체성론’ 또한 이 절대적 정체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900년대를 전후로 한 일본 국사의 형성과

으로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는 《朝鮮王國》(1896)의 총론에서 “반도 7朝의 역사는 오욕으로 보내고 암흑을 거쳐왔”고 “세계의 대세는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고 우자 열자를 침략”[155]하는 것인데, 한국은 “평화, 광영, 발달, 진보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반도사는 모두 사회의 추락을 의미한다”[156]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시 유행한 사회진화론은 인종의 성격에 대한 탐구로도 이어졌다. 츠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는 《朝鮮開化史》(1900)에서 한국을 族制시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국가로 발달하지 못한 무로마치 막부시기의 단계[157]로 설정하고 ‘인종편’에서 “반도 혈파가 크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반도인에게 자주 자립의 정신이 결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58] 즉, 한국의 인종적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애초부터 주체적인 진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 정체’를 ‘봉건제 결여론’으로 체계화한 것이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의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1903～1904)이다. 그는 “인류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기에라도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 같은 列의 발전을 이루”지만, 한국은 “그 특례 중의 특례에 속”하여 “그 발전사 중에 있어서 가장 특수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봉건제도의 결여” 상태라고 하였다.[159] 그는 서구 사회의 발전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사에서 봉건제를 창출해냈지만, 그 예외로서 한국을 설정하여 한국사가 고대에 정체해 있다는 ‘봉건제 결여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의 독창의 발전이 어렵다면 자발적인 것이 아닌 전래적”인 영향이 필요하고 “다른 문화에 접촉 침염하여 그 특성을 근저에서 개조”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 사명을 가장 적당한, 자연적 운명과 의무를 가진 유력 우세한 문

정에서 나타났다.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에 대해서는 강진철, 1992 〈일제 관학자가 본 한국사의 정체성과 그 이론〉 《한국사회의 역사관》 일지사; 조동걸, 1998 앞의 책, 제4장 ‘식민사학의 성립과 확산’; 이만열,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제3부 ‘근대 일본사학의 한국사 인식’;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2000 〈일본 ‘국사’의 성립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한일공동연구총서》 3 참조.

155) 菊池謙讓, 1989 《朝鮮王國》(1896) 景仁文化社, pp.19～20.

156) 菊池謙讓, 《朝鮮王國》(1896), p.169.

157) 恒屋盛服, 1989 《朝鮮開化史》(1900) 景仁文化社, p.388.

158) 恒屋盛服, 《朝鮮開化史》(1900), p.237.

159) 福田德三, 1904「第2篇 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改正增補)經濟學研究》(1909년 판), p.176·235.

화적 사명의 重任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160] 이는 한국을 타율적이자, 정치·경제적인 '절대적 정체'의 상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체성론'과 한국 역사가들의 '암흑기'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졌다. 즉, 이를 '숙명적으로 고정·불변하는 절대적 정체'로 보느냐 혹은 '주체적 진보의 가능성이 내포된 정체'이자 '일시적인 정체'로 보느냐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후자의 '暗黑期'는 20세기 초 현재의 쇠퇴가 일시적이며, 한국 민족이 이 정체기를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는 점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의 절대적 정체와는 구분되는 '制限的 停滯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진화론의 압도적인 담론으로서의 권위와 암울한 위기상황의 막다른 길에서, 한국 지식인들은 '주체적 진보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일시적'인 '제한적 정체기'를 설정하면서 민족의 재생과 부흥의 논리적 돌파의 단서를 전통적 시간의식에서 찾았다.

특히 박은식은 국망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유교를 개신하여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161] 그는 한일병합이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저술한 《夢拜金太祖》(1911)에서 무치생이라는 화자가 꿈에서 옛 금나라 태조를 만나 문답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무치생은 "어찌 세상의 문명이 더욱 진보하고 인간들의 지식이 더욱 발달할수록 경쟁의 기회와 살벌한 상황이 극렬"해지고 "약육강식을 세상의 법칙이라며 우승열패를 천연으로 인식"하는가 탄식하였다. 그러자 금태조는 "상고 시대의 정도로 중고 시대에 적합지 못하고, 또 중고시대의 정도로 오늘날의 시대에 적합지 못한 까닭에 적자를 생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며 "만일 이 시대에 있으면서 舊시대의 정도에 머무르고 적의한 방법을 찾지 않는 자는 천지 진화의 예를 거역하여 도태되는 화를 스스로 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62] 즉, 금태조는 약육강식과 사회진화의 법칙은 '오늘날의 시대'에 적합한 것이며

160) 福田德三, 1904「第2篇 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pp.238~240.

161) 박은식은 19세기 경화학계의 주자학을 기반으로 한 역사학, 문학, 경세론을 사상적 기초로 마련하여 광무 년간의 문인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신서적을 통해 사상적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장태, 1990 앞의 책, 42쪽; 노관범, 2007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3장 1절 참조.

162)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몽배금태조」(1911) 《백암박은식전집》 동방미디어, 176~177쪽.

미래에는 다른 것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 옛날에 열국의 경쟁이 끊이지 않음에 묵자의 非攻論이 나오고 교황의 압제가 심함에 馬丁路得(마틴 루터 - 인용자, 이하 같음)의 自由說이 주창되고 君權의 전제가 극심함에 盧梭(루소)의 民約論이 유행하고 强國의 압력이 과중함에 華盛頓(워싱턴)의 自由義가 진작하였더니 이것이 일변하여 達爾文(찰스 다윈)이 强權論을 주창함으로부터 소위 제국주의가 세계에 獨一無二한 기치가 되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인종을 멸종함으로써 당연한 公例를 삼아 경쟁의 화가 더욱 참극함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進化의 常例로 추론하건대 평등주의의 부활할 시기가 멀미 않은지라. 그런즉 오늘날은 강권주의와 평등주의가 교환하는 시기를 맞았으니 ... 장래에 平等主義의 기치를 높이 걸고 세계를 호령할 자가 우리 大東民族이 아니고 그 누구리오.[163]

금태조는 위의 글에서 중국 및 서양사에서 전국시대의 경쟁, 교황의 압제, 군주의 전제, 강국의 압력이 극심해진 이후에 묵자, 마틴루터, 루소, 워싱턴 등의 사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들어 경쟁과 압제가 극심한 시기에 평등과 자유의 사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재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의 시기에도 적용되어 경쟁과 압제의 사상이 극심하여 경쟁의 폐해가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다시금 평등주의가 나타날 것은 "進化의 常例"로 추론할 때 자명한 이치며 이에 따라 "强權主義와 平等主義가 交換"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 박은식이 여러 사설에서 빈번히 활용하던 전통적 순환론을 명징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경쟁과 압제가 극심하여 평등과 자유의 사조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군권의 전제가 극함에", "경쟁의 화가 더욱 慘劇함이 極度에 達하여", "최종점에 極甚한 압력을 被한 者는 우리 대동민족이오"라고 하며, 그 과정을 '교환'이라고 지칭하였다. 박은식은 이에 앞서 과거 한국의 교육이 잘 정비되어 타민족이 스승이자 신성으로 삼다가 수 백년 간의 잘못으로 노예나 짐승으로 대우한다면서, 당시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담지하던 한국사의 '제한적 정체기'를 설정하고

163) 박은식, 「몽배금태조」(1911), 212~213쪽.

있었다.[164] 또한 그는 「유교구신론」(1909)에서도 이미 동·서양의 발달이 순환하는 역사 흐름을 지적하였다.[165]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몽배금태조」에서 박은식의 '교환'은 시대의 국부적인 사상 교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전통적 순환론을 토대로 한 한국의 위기 극복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의 進化는 교환이자 특정 국면의 진행을 의미하고, 강권시대가 극에 달하면 평등의 시대로 교환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곧 '交換의 반복'을 통한 '순환'을 의미하며, 그는 유교적 체계 내에서 순환론을 통해 사회진화론이라는 지배적 사상을 상대화하면서 설정된 '정체기'를 극복하려는 선구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을 토대로 민족국가의 퇴화, 멸종을 자연메타포의 생로병사 과정으로 설명한 뒤, 생명체의 필연적인 노화와 죽음이라는 '정체기'를 '부활'과 '재생'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신채호는 주체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국가의 사적 전개를 생명체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 다시금 '재생'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았다.[166] 그는 「進化와 退化」에서 한국 역사의 전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어느 학자가 進化說을 주창하여 ... 그러나 세계에는 進化만 아니라 退化도 있으니 ... 단군 부여 기자시대는 문명의 萌芽時代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문명의 方長時代오 고려 중엽 이후로는 文明이 날로 퇴하다가 본조 초업 이래로 문명 復長의 시기가 있었으나 오래지 않고 날마다 하강하여 본조중업 이후로 暗黑時代에 점차 추락하였고 이번 세기에 들어서는 드디

164) 박은식, 「몽배금태조」(1911), 211~212쪽.

165) 박은식은 「유교구신론」(1909)에서 "盖 과거 19세기와 現今 20세기는 서양문명이 대발달한 시기요, 장래 21, 2세기는 동양문명이 대 발달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서양사에 대해 "羅馬舊敎時代는 즉 구주묵암천지라 만일 馬丁路得의 대담과 열혈로 개량구신함이 無하엿스면 구주일월이 지금까지 黑暗 중에 在하야도 可"하다고 하였다. (《서북학회월보》 제10호, 1909년 3월 1일, 「儒敎求新論」, 謙谷生(박은식).) 즉, 박은식은 서양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암흑기를 지나 19~20세기 대발달 시기에 이르렀고, 반대로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명이 고대의 발달한 시기를 거쳐 20세기 초 당시에는 침체되었지만 미래에는 부흥할 것임을 지적하는 '교환'을 지적한 것이다.

166) 당시 유행한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설에서는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발전하면서 고유한 성장을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정을 동물이나 식물의 발전과정과 구별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지만,(전복희, 1996 앞의 책, 176~177쪽) 한국지식인의 경우 이와 달리 생로병사의 의미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자연 메타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 참담 비분의 天地를 만들었도다. 그러나 수년래로 신문명의 萌芽時代를 다시 만들어 ... 文明의 方盛時代가 또한 멀지 않았도다.[167]

신채호는 국한문본의 '진화설'을 국문 판에서 "문명이 진보한다는 의론"이라고 풀어 설명하여 진보와 진화를 유의어로 활용하고 있다.[168] 또한 그는 고대 문명의 萌芽(싹이 나는 시대) · 方長시대(한창 자라는 시대)를 거쳐 고려 중엽 이후와 조선조 중엽이후 문명이 날로 퇴보하여 결국 암흑시대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문명의 탄생과 진보, 쇠락의 과정을 하나의 생물체가 탄생하고 자라나다가 사라지며 결국 재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정통론도 사회진화론을 상대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주요 역사 서술 방법으로 제시된 정통론은 학부편찬의 1890년대 교과서 통사부터 1900년대 후반의 교과서·통사에서도 대체로 존속하였으며, 여전히 조선 후기이래의 단군-기자-마한정통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169] 이렇듯 근대 역사학의 도입 시기에 정통론이 존속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대표적이다.

正統의 正閏을 다투는 것은 유학자의 완몽이며, 조정의 진위를 변론하는 것은 노예배의 궤변이다. 지금은 學理가 크게 밝아져, 국가란 한 성씨의 사유물이 아니오, 만민의 公産됨을 발현한 까닭으로 역사를 저술하는 자가 신라기 고려기 등의 협소한 전례를 버리고, 국가 발달 방면에 관찰할 上中近 3시대를 구별하며 ... 이와 같은 頑陋의 聚訟이 없거늘, 금일에 내가 붓을 들어 누구는 正統이며 누구는 非正統이라 하여 春秋義理, 綱目義理를 변론하니 아, 나 또한 불필요한 일을 벌였다. 그러나 주권 상 主族, 客族의 구별은 역사가가 부득불 엄격한 변론을 가해야 할 부분이다.

---

167)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談叢(進化와 退化)」 1910년 1월 8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3쪽.

168)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진화와 퇴화」 1910년 1월 8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4쪽.

169) 조동걸은 한말 사서에 나타난 정통론이 "과도기의 저술이기는 해도, 전근대 방식의 정통론, 즉 정윤논의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조동걸, 1998 앞의 책, 96~136쪽 참조.

따라서 부득이 古文 今文의 大義를 並擧하야 壹次 曉曉함을 아끼지 않았다.[170]

신채호는 “正統의 正閏을 다투는 것은 유학자의 완몽이며, 조정의 진위를 변론하는 것은 노예배의 궤변”이라고 하면서 정통론을 봉건적 도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유교의 춘추·강목 필법이 한국사와 한국 쇠퇴 원인 중 하나로 보았다. 그런데 그는 국가에는 “주동력되는 특별종족이 있는”데 “대개 4천년 동국역사는 부여족 성쇠소장의 역사”이며 “부여는 당당히 단군의 正統을 받은 자”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위 민족주의는 물론에 付하고, 저 先儒氏의 춘추 강목 의리로 말”할지라도 “失德이 無한 부여왕조의 正統을 엇지 箕子로 遽代하리오”라고 하여,[171] 기존의 정통론 체계를 함께 활용하여 ‘단군-부여’로 이어지는 동국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172] 즉, 신채호는 근대의 역사서술과 정통론적 역사서술을 구별하면서도 “주권 상 主族, 客族의 구별”위해 “부득이 古文 今文의 大義를 並擧”하여 민족주의의 근대 역사서술(今文의 大義)뿐만 아니라 정통론(古文의 大義)을 아울러 열거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물론 신채호가 굳이 기존의 (단군-기자)정통론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동국)정통론을 활용하여 나타낸 것은 유교적·보수적 지식인들의 정통론 사학을 비판하고,[173] 기성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정통론을 통해 신채호는 ‘왕조’의 정통이 아닌, 고대 이래 근대민족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동국’ 혈통의 연속성을 확보하려 하였다.[174] 이러한 의도는 신채호가 국망이 현실화될수록 국혼(정신)의 지속을

170) 신채호, 「독사신론」(1908) 제2장 부여왕조와 기자, 317쪽.
171) 신채호, 「독사신론」(1908) 제2장 부여왕조와 기자, 316~317쪽.
172) 1900년대 중·후반 신채호의 사론에 대해서 이만열은 춘추필법의 해독을 지적하였음에도 독사신론에서는 춘추 강목의 의리에 입각한 정통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만열, 1990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연구》 문학과 지성사, 48~54쪽) 도면회도 신채호가 ‘왕조 정통론’에서 일종의 ‘민족 정통론’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여 신채호의 독창적인 정통론 활용에 주목하였다. 도면회, 2008 앞의 논문, 200쪽 참조.
173) 신채호는 김부식이 발해를 한국사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정윤의 구분을 통해 고려 조정을 정통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였다. 신채호, 「독사신론」(1908), 제10장 발해국의 존망, 339~340쪽.
174) 앙드레 슈미트도 신채호의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이 민족사의 혈통과 계보를 탐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선형성과 목적성을 다루면서 ‘시간의 연속성’은

강조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175] 다시 말해 그는 고대 이래 동국 혈통과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는 역사가 증명된다면, 국가의 위기가 사회진화론의 퇴보와 멸종이 아닌 민족의 '성쇠' 과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76] 따라서 그는 민족의 유구성과 영속성을 消長盛衰했던 동국의 혈통과 정신의 '연속성'을 찾는 데에 정통론을 적극 활용하였고, 한국이 優存劣亡의 공례에 따라 멸망한 다른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는 달리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혈연적 집단과 그 정체성으로 '실체화'하였다. 이렇듯 신채호의 정통론 활용은 조선후기 정통론에서 동국과 기자 교화의 연속성이 강조된 것처럼, 동국 주체의 혈통과 국혼의 지속을 강조하면서 사회진화론으로 인식된 '정체기'를 상대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9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은 서양사와 달리 한국사가 현재까지 '정체기'를 겪고 있지만, 만물의 원리에 관철되었던 전통적 순환론의 전환논리와 자연메타포의 부흥의 원리에 따라 다시금 진보로 전환될 것이라는 미래의 기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당면 현실이 낙후하고 정체된 것이며, 그러한 정체기를 전통적인 순환론과 정통론적 사유에 기대어 진보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제한적 정체기'론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 정체기'를 전제로 하여 서구의 직선적이며 낙관적인 진보과정과 한국사를 구별하면서, 지식인들은 현재 민족국가의 퇴보와 침체 속에서 한국사의 부흥과 재생을 상정하는 '螺旋的 進步'[177]를 창출하였다.

고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앙드레 슈미트 저,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440~442쪽.

175) 신채호는 정신적 요소(국혼, 국수)를 강조하였는데 정신상의 국가는 "그 국민의 독립할 정신, 자유할 정신, 생존할 정신, 불굴할 정신, 국권을 보전할 정신, 국위를 奮揚할 정신, 國光을 煥發할 정신 등"이며 "정신상 국가만 불망하얏스면 형식상 국가는 망하얏슬지라도 그 國은 불망할 國"이라고 하였다.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정신상 국가」 (1909년 4월 29일)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674쪽. 이외에도 신채호, 1908년 5월 26일·6월 25일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1908년 8월 12일 「국수보전론」 등 참조.

176) 당시 '正統'이라는 단어는 국혼(정신)과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吉昇翊은 "國滅人奴의 禍를 免"할 방법에 대해 "奴人의 肉體는 可失이언뎡 國魂의 精神은 不可滅"하며 "所謂 精神은 萬古 正統을 扶植함으로 殺身成仁의 綱常道理가 有"한 것이기에 '國魂의 精神'을 강조하였다. 《대한흥학보》 제8호, 1909년 12월 20일 「靑年國之元氣」 吉昇翊.

177) 근대 전환기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당시 용례 상 대표성을 가

그런데 전통적 사유를 통해 진보적 시간의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광범위하였지만, 반대로 전통적 사유와 사회진화론이 긴장을 일으키면서 '극복'의 논리를 만들어 내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지식인들이 국망의 급박한 위기 속에서 사회진화론 이외에 대안 논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현재까지 이어진 '정체기'를 타개하려는 운동과 방법도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0년대에는 한국적인 진보의식이라 할 만한 사유가 아직까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보적 시간의식의 도입 과정에서 전통적 사유를 서구 진보 개념과 결합하고 이를 상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제한적 정체기'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나선적 진보'가 등장하였다.[178] 이렇듯 국가 위기론에서 형성된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은 이후 민족 주체가 국망의 상황에서도 부단한 실천과 독립의 방략을 모색하는 원천으로 기능하였다.

지는 명칭과 관련 연구사들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개항 이후 1920년대 전기의 대표성을 지닌 진보의식의 용례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나선형 혹은 곡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여기서 '나선형'은 무한한 우주를 뜻하거나, 식물이나 동물 또는 태양계 그 어디든 불가피한 성장과 해체 과정에서 동역학적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저항을 통한 성장과 변환의 징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마이클 슈나이더 지음, 이충호 옮김, 2002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경문사, 138~177쪽; 황지선, 2014 〈양주별산대놀이 연행공간과 동선에 관한 연구 - 음양오행사상에 기반을 둔 형태심리학적 접근〉 《민족미학》 13 등 참조). 한편, 일반적인 역사철학·사학사에서는 계몽주의 이래 헤겔, 맑스 등의 직선적이며 목적론적인 역사의식과 대비되는 역사의식을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다층성 혹은 복수성을 가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에밀 앙게른 지음, 유헌식 옮김, 1991 《역사철학》 민음사; 프랑스아 도스, 최생열 옮김, 2004 《역사철학》 동문선; H.E.반스 지음, 허승일·안희돈 옮김, 1994 앞의 책 등 참조.), '나선'은 문학, 사회학, 역사학, 종교철학 등의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비정형화되고 목적론적이지 않은'의 의미로 쓰인다(최성실, 2005 《근대, 다중의 나선》 소명출판; 테리보스웰 외, 이수훈 옮김, 200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나선형》 한울; 김경재, 2008 〈함석헌의 나선형적 역사관〉 《제22차 세계철학대회 자료집》 등 참조). 결과적으로 대표성을 띤 용례와 연구사를 참조하고 형태학과 의미의 측면에서 따져보았을 때, '제한적 정체기'를 바탕으로 민족국가의 위기와 식민지화의 현실 속에서 서구의 직선적 진보와 전통적인 사유를 결합하여 미래의 주체적인 부흥과 재생을 상정하는 근대 전환기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螺旋的 進步'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78) 중국의 사학사 연구에서는 이미 양계초, 왕동령의 사론에 나타난 나선형 역사관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나선형이 주로 맑스주의 발전사관의 前史로 인식하여 절충적, 과도기적 성격으로 치부하거나, 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사유의 개입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최동운, 2007 〈양계초 만년의 사론에서 살펴 본 근대적 역사기술의 성격〉 《명청사연구》 27; 정지호, 2005 〈양계초의 근대적 역사서술과 국민국가〉 《이화사학연구》 32; 趙梅春, 2007 《20세기 중국통사 편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등 참조.

三. 1920년 전후 진보적 시간의식의 전개

1. '정체기'론의 확장과 '나선적 진보'의 공고화

식민지 조선인의 '진보' 개념은 한일병합 전후 국내·외 신문과 잡지의 발간이 막히면서 그 사용이 제약되었다. 일본 내 조선인 유학생들의 언론 활동이 위축된 와중에 1914년 4월에 창간된 《학지광》은 재일본 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로서 기능하였다. 당시는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을 전후한 시기로 종족 간의 배타성과 적대성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 개념에는 여전히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적자생존 세계에서 민족적 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179]

현상윤은 여전히 세계가 사회진화론의 "자연률 아래 지배받고 세계의 존재도 또한 이런 법칙 우에 건설되어 있는 것"[180]이라 하여 강력주의와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의 진보가 이(비판)에서 발단되고 인간의 향상이 이에서 기원"하며 "정체되었던 문명이 다시 전개 되"고 "침전되었던 잠세력이 다시 발현하고자 함에도 비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四時의 운행에 볼지라도 한 때의 茂盛이 잇으면 반드시 한때의 肅殺이 잇나니 숙살은 장차 무성할 장본"이며 "太極의 道에 증빙할지라도 한 번 陽이 生하여 動하얏으면 반드시 한번 陰이 生하여 靜하나니 靜하는 것은 장차 動할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현상윤은 사계절의 전개에 따른 봄-여름과 같이 생명체가 무성한 시기와 가을-겨울처럼 숙살 시기의 반복되는 자연 현상과 陰陽과 動靜의 순환론을 식민지 조선에 대입하였고, 당시가 "肅殺의 시대며 靜의 시대"로서 '정체기'임을 지적하였다. 즉, 여전히 '진보'는 '제한적 정체기'론을 기반으로 전통적 사유가 결합되어 활용되었다.[181]

---

179) 1910년대 《학지광》의 니체 사상의 강력주의 연구와 사회진화론의 연속에 대해서는 박찬승, 1992 앞의 책, 134~137쪽; 안지영, 2012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인식의 변화: 《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8, 88·97~101쪽; 권보드래, 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66권 등 참조.

180) 《학지광》 제4호, 1915년 2월 27일 「말을 半島青年에게 붙임」 현상윤.

181) 《학지광》 제5호, 1915년 5월 2일 「社會의 批判과 밋 標準」 현상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을 전후로 하여 변화하기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 デモクラシー)'의 경향이 나타났고,[182] 과학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동반한 진화론이 비판받았다.[183] 3.1운동과 문화통치 이후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서도 개조론의 사조인 신이상주의(문화주의)[184], 사회주의, 데모크라시 등이 소개되고 서구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 사조가 제기되었다.[185] 이에 따라 '진보'는 서구 문명 혹은 민족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지향을 가질 수 있는 이상주의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186]

1920년 전후 사상 경향은 "자연주의적 유물관에 얽매였던 사상계"에서 "염세비애의 검은 影子는 점점 사라(消)지고 사람은 다시 신이상의 광명을 바라"보고 "어디까지던지 향상정진하려 하는 雄雄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었다.[187]

> 우리의 과거는 理性의 訴求로는 심히 불가사의 중에 있어왔다 ... 모두가 불공평이었고 모두가 理想적이지 않았다 ... 또한, 과거 5년의 대전은

182) 다이쇼데모크라시의 배경과 그 사상 경향에 대해서는 三谷太一郎, 1995 《大正デモクラシー論》 제3판(2013) 동경대학 출판회, pp.1~18; 松尾尊兌, 1990 《大正デモクラシーの群像》 岩波書店, pp.4~22. 참조.

183) 다이쇼 기(1912~1926) 일본의 자연주의 비판과 시라카바파의 등장에 대해서는 미야카와 토루 외 엮음, 이수정 옮김, 2001 앞의 책, 133~141쪽; 이에나가 사부로, 2006 《일본근대사상사》 소명출판, 265~266쪽 등 참조.

184) 일본 다이쇼 기 물질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개인 및 정신주의 중심의 이상주의적 철학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한데, 필자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사상의 연속성, 그리고 1920년대 문화주의 철학의 개량적 성격과 이상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이를 '신이상주의' 혹은 '문화주의'로 지칭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구, 2004 〈1910년대 도일유학생의 사회사상〉 《사학연구》64; 박찬승, 2007 〈1910년대 도일 유학생의 사상적 동향〉 《한일공동연구총서》; 2004, 앞의 논문; 허수, 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등 참조.

185) 허수는 1920년대 초 《개벽》이 서구 근대사상 및 사상가를 일본이라는 창구를 통해 서구 근대문화를 중역적으로 소개하였지만, 식민지 조선의 제반 상황, 소개자 자신들의 처지 등에 비추어 '능동적인 개입'과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였다. 허수, 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푸른역사 제2부 '모방과 차이로서의 번역' 참조.

186) 《동아일보》 1921년 2월 25일 「第四階級의 解放과 佛蘭西大革命의 地位 (五)」 사설; 《개벽》 제24호, 1922년 6월 1일 「人格發展의 途程에 대한 私見」 在東京 裴成龍; 《개벽》 제52호, 1924년 10월 1일 「思想의 革命」 李東谷 등 참조.

187) 《아성》 제3호, 1921년 07월 15일 「近代思想과 文藝」 YA生.

> 여하튼지 우리에게 큰 교훈이었다 ... 세계의 오늘날은 이렇듯 부산한 중에 있다. 과도하면서 있는 금일이었다. 개조하는 도정에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向上進步하는 중에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여명이라 하며 서광이라 하며 개벽이라 하도다. 이를 추상적으로 말하면 정의 인도의 발현이오 평등 자유의 목표라 하겠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공존주의,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상보주의라 하리로다.[188]

위의 잡지 《개벽》의 창간호 사설 「세계를 알라」의 필자는 과거가 불공평하고 비이상적이었으며 비인도정의의 실험이었지만, 세계대전 이후로 온 인류와 세계가 과거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개조하여 정의와 人道, 자유의 세계로 향상 진보하는 도정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競爭처럼 事爲에 防害를 끼치고 人類에 害毒을 주는 것은 없"고 "競爭으로 因하야 進步가 생긴"다는 것은 "過去의 野昧"로,[189] 사회진화론은 이미 역사와 시대의 진보에 따라 뒤쳐진 '과거'의 것으로 상대화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세계 대전을 전후로 변화된 '진보' 개념은 主義·反動과 함께 활용되면서 시간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主義(-ism)'[190]는 개조론의 수용과 함께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191] 지식인들은 主義로 사상과 이념을 나타내면서 그 역사적 변화를 단계적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당시 대세는 "무력을 만능으로 하던 독일"이 패배하여 "군국주의의 최후역사에 일패를 가"하였고 "金力이 팽창하는 미국은 욱일승천"하였지만, "勞力을 중심하는 勞農(러시아)은 이상을 고조하고 주의를 선전하야 사회를 개조하며 세계를 위협"하여, 결국 "세계는 金力과 勞力兩大主義의 각축장이 될 것"이며 "인류역사와 세계조류가 무력으로부터 금력에 금력으로부터 노력에 至하는 추이"에 있다고 정리되었다.[192]

당시 가장 '진보된' 사상으로 평가받던 사회주의는 특히나 시간의식을 강하게 띤 개념이었다.[193] 계급의식의 각성과 사회주의의 도래라는 '때(시

188) 《개벽》 제1호, 1920년 6월 25일 「世界를 알라」 권두언.
189) 《개벽》 제24호, 1922년 6월 1일 「K兄에게」 一集生.
190) 일본에서 '~ism'의 '~主義' 번역과 개항기 한국에서의 정착은 최경옥, 2013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비교일본학》 제28집 참조.
191) 《개벽》 제45호, 1924년 3월 1일 「甲申年來의 「思想」과 壬戌年來의 「主義」」.
192) 《동아일보》 1922년 3월 14일 「武力으로 金力에 金力으로 勞力에」 사설.
193) 맑스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는 역사 발전론과 모순의 해소를 통한 단계적이며 직

〈그림 1〉 「참 世上은 進步하는군! 京城서 革命歌!!」 (《동아일보》, 1925년 9월 26일)

간)의 힘', '역사의 사명'에 따라,[194] "좀 더 加速度로 發展"[195]된 배경 속에서 사회주의는 1920년대 전반기 진보의 '가속화'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림 1〉은 당시 세계정세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보여준다. 이 만평은 서울주재 소련총영사관이 蘇日조약에 의거하여 개관하고 초대 총영사인 바실리 샤르마노프가 연설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196] '革命曲'을 부르는 총영사, 회집한 민중들, 그리고 적색 깃발과 "참 世上은 進步하는군!"이라는 언설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로 인한 '진보'를 기대하는 상징들이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전반기 일본 관련 논설 기사에서는 사회주의의 급진화, 무산정당의 출현 등이 관찰되었으며, 중국 관련 기사에서는 군벌의 혼란 속에서도 변혁적인 경향과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 강화 등이 소개되면서,[197] 당시 세계정세와 사회주의는 가속화되는 '진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용

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R.L.하일브론너, 신정현 외 옮김, 1994 《맑시즘》 한울, 제1~2장; 데이빗 베빙톤 지음, 천진석 외 옮김 1986 앞의 책, 제6장 참조.

194) 《개벽》 제49호, 1924년 7월 1일 「加藤內閣 出現에 對한 觀察의 一二」 朱鐘建.

195) 《개벽》 제69호, 1926년 5월 1일 「階級意識의 理論」 裵成龍.

196)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2004 《이정박헌영전집》 제9권 역사비평사 6장 「다시 맡은 고려공청 책임비서」 1925년(26세) 9월 10일, '고려공청 책임비서 자격으로 서울주재 소련총영사관에 파견할 대표자 김단야에게 위임장을 발급하다' 참조; 《개벽》의 「社會日誌」(《개벽》 제64호, 1925년 12월 1일)에서도 "경성 貞洞에는 赤露 총영사관 개관식이 有하고(총영사는 「샤르마놉」씨)..."라고 하였다.

197) 1920년대 전반기 세계정세에 대해서는 《개벽》 제34호, 1923년 4월 1일 「現日本 思想界의 特質과 그 主潮, 附 現日本 社會運動의 그 手段」 黃錫禹; 《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 「日本의 普選問題」; 《개벽》 제31호, 1923년 1월 1일 「中國의 政治的 現勢와 社會的 現勢(現勢的 政治의 破産과 革命的 氣分이 漲溢한 社會의 現態)」, 北旅東谷; 《동아일보》 1924년 11월 6일 「中國動亂과 國家改造」 (上) 등 참조.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속화된 진보에 반대하는 세력은 '反動'으로 지칭되었다. 특히 반동은 치안유지법의 적용 과정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는데, 1925년 5월 「치안유지법」 시행은 언론활동과 사회운동 상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198] 《개벽》에 실린 '反動에 나타난 進化相'이라는 비평에서는 "進化過程에 잇서서 反動的 傾向이 一時的이오 그 社會的 機構가 推移됨을 따라 反動的 性質의 그 崩壞해가는 것을 說明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社會가 어대까지든지 새로운 進化過程을 밟아오며 進化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반동도 진화 과정으로 평가하였다.[199] 또한 치안유지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는, "현재 과도기에 임하야 반동적 고압 하에"있지만, "그것은 필연한 역사의 운명에서 최후에 활약을 시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다수인의 해방과 자유로운 방면을 향하여 進步"하는 것임을 전제하여 지식인들이 '반동'을 사용하였으며,[200] 이를 통해 필연적인 역사 진보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개조론 이후 전환되고 가속화된 진보는 시간의식을 강하게 담지하였는데, 식민지 조선인들의 시간의식은 식민지 현실뿐만 아니라 자강운동기이래 형성되었던 '정체기'의 설정과 그 역사의식의 자장 안에서 구성되었다.[201]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조선 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 사대주의 노예가 된 것"[202]을 지적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실패를 기점으로 삼아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의 조선근세사를 쇠퇴기로 설정하였다. 황의돈도 《新編朝鮮歷史》(1923)에서 조선민족이 "남보다도 더 우월한 반만년의 文化的 기록이 있"었지만 "장원하고 위

198) 치안유지법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반응과 생각에 대해서는 《사상운동》 1925년 1·2월 합대호, 「시평」; 《동아일보》 1925년 5월 14일 「治安維持法은 反動運動의 刺戟劑 - 無政府主義者 森戶氏 談」; 《개벽》 제60호, 1925년 6월 1일 「治安維持法의 實施와 今後의 朝鮮 社會運動」 등 참조.

199) 《개벽》 제60호, 1925년 6월 1일 「開闢評壇」 月評人.

200) 《동아일보》 1925년 9월 14일 「過渡期에 臨하야」 사설.

201) 조동걸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인의 역사학에서 '정체기'의 설정을 지적하였지만, 식민주의 역사학의 정체성론에 대해서는 반격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1930년대 사회경제사학(대표적으로 백남운)에서야 이를 극복하였다고 정리하였다. 조동걸, 1998 앞의 책, 165~166쪽.

202)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재신채호전집 제2권 - 조선사연구초》 (1920년대 초·중반 추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98~299쪽.

대한 문명의 줄이 間斷이 되고 中絶"되었고,[203] 조선시대는 "300년 당쟁의 결과"로 "眼前의 당리사익뿐 營營苟苟하야 국운의 쇠퇴함을 초래"하였다고 서술했다.[204] 《朝鮮歷史要領》(1923)을 저술한 장도빈, 《朝鮮留記》 上권(1924)과 中권(1926)을 편찬한 권덕규도 이와 비슷한 서술 경향을 보였다.[205]

흥미로운 점은 개조론의 시기에도 '제한적 정체기'론이 존속하고 성쇠의 순환론을 역사 진보의 맥락 속에서 보는 인식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안확은 《조선문명사》(1923)에서 고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정치사를 서술하였는데,[206] 서언에서 기존의 역사학자들 중에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고려로부터 李朝에 이른바 무릇 1,000년간의 정치 및 문명은 삼국시대보다 퇴보된 자취로 오인한 자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조선이 외래문명을 수입하였지만, 이를 "進步發達의 참고 이용"하였으며 법 또한 "스파타(스파르타)의 헌법과 같이 고정성이 있다할지언정 殘落하다 할 수 없으며 羅馬(로마) 정치같이 변하기를 遲遲하다하리언정 퇴보라하기 불가"하다고 한국의 정치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207]

吾人은 역사에 대하여 정치의 진리를 발견하니 즉 一盛一衰는 進化의

203) 황의돈, 1923 《신편조선역사》(1929년 판), 서문.
204) 황의돈, 1923 《신편조선역사》(1929년 판), 132~133쪽.
205) 기존 사학사 연구에서는 장도빈에 대해 고대사를 강조하고 조선시대의 당쟁을 멸망 원인으로 보아 조선시대 사를 "역사의 퇴보 현상"으로 정리하였다고 보았고, 권덕규는 남북조시기를 '5천년사상의 성대'로 평가하면서 조선시대의 당파를 필요이상으로 부각하여 "식민사학의 논리와 큰 차이가 없"으며, "당파망국론으로 몰고 간 역사서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걸순, 1994 〈1920년대 한국사 통사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의 제문제》 우강 권태원교수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618~619·628~629쪽; 조동걸, 1998 앞의 책, 165~166·182~183·196쪽 참조. 이 외에 1910~20년대 전반적인 식민지 조선에서의 역사학의 전개와 通史 서술에 대해서는 박종린, 2014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지식 대중화 -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장신, 2016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 박은식과 신채호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 정민지, 2013 〈권덕규의 『조선사』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 《역사교육연구》 17 등 참조.
206) 안확의 '조선학'에 대한 관심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발견된다. 1910~1920년대 초 안확과 그 사상에 대해서는 류시현, 2009 〈1910~1920년대 전반기 안확의 '개조론'과 조선문화연구〉 《역사문제연구》 21; 이행훈, 2016 〈안확의 '조선' 인식과 '조선철학'〉 《한국철학논집》 제50집 등 참조.
207) 안확, 1994 「조선문명사 (5) 일명조선정치사」(1923) 《자산안확 국학논저집》 2 저서류 여강출판사, 270~271쪽.

> 형식이오 내용 상 정치 그것은 성쇠의 순환으로써 進步 發達을 만드는 것이라. 따라서 근세 말엽에 있어서 정치가 쇠퇴하고 민지가 폐락하였다 함은 舊政의 폐해를 발각하야 신 시대 善 政治를 운동하는 작용이니 ... 500년 전제정치라함도 ... 政治進化史의 한 단계에 過하다.[208]

안확은 기존 사가들이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조선시대 전제정치와 당쟁을 진보의 한 단계로 평가하며, 한국사를 "성쇠의 순환으로써 進步發達을 만드는 것"이자 근세 말기의 "정치가 쇠퇴하고 민지가 폐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209] 그는 《자각론》(1920)에서도 "교화와 여탈이 상통하는 동시에 인류는 더욱 改進하고 사회는 더욱 開化하여 원만의 영역에 도달"하는데, "사회를 상태 상으로 觀하면 盛衰循環에 불과하나 그 실상의 정도인즉 進步發達"이므로 "盛衰는 社會人事의 형태로서 발달의 계단"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러한 '제한적 정체기'론은 개조론의 시기에 역사 일반과 세계사를 보는 시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은식은 전체적인 순환 과정의 한 국면으로 사회진화론의 약육강식 시기를 상정했는데, 3.1운동을 계기로 이와 같은 해석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에서 과거 문명이 "적자생존의 이치가 오직 유일의 진리"였고 "우승열패는 하늘의 법칙"이였지만, 제1차 대전 이후 상황이 반전되어 "전에 극단적인 침략주의자였던 러시아가 일변하여 극단적인 공화주의가 된 것", "독일도 또한 극단적인 침략자"였다가 "평화를 주장"한 것,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제의 등 세 가지 사건을 각각 '세계 개조'의 '최선봉의 動機', '曙光', '進步'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박은식은 이와 같은 세계사의 흐름을 "天道는 돌고 돌아 만물은 극에 다다르면 반드시 돌아오며 본래부터 고정되어 불변하는 이치는 없다"는 '천도의 순환' 과정을 거친 '세계의 진보'로 설명하였다.[210]

---

208) 안확, 「조선문명사」(1923), 594~595쪽.

209) 조동걸은 1920년대 통사에서 조선시대사 를 발전적으로 서술한 것은 안확의 「조선문명사」뿐이며 나머지는 '역사의 퇴보 현상'으로 정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조동걸, 1998 앞의 책, 182~183쪽.

210) 박은시 저, 김도형 역, 2012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 하편 소명출판 제2장 '改造世界之新文化促我獨立運動'; 박은식 저, 2002 《백암박은식전집》 제2권 - 한국독립운동지

《개벽》의 주요 편집자이자 천도교의 이론적 지도자인 이돈화 역시 역사의 전개 과정을 전통적 순환론과 자연메타포를 통해 이해하는 '제한적 정체기'론을 주장하였다.[211] 그는 "天運은 巡還하는 것이며 歷史는 繰返"되는 것으로 한국이 "累百年來- 時代로 더부러 뒤"져 "문득 自然淘汰의 原理를 免치 못"하였으나 세계 대전 이후로 "天運은 循環하야 復치 안임이 업는지라 最近 우리에게 文化運動이 開始"되었다고 하여 순환론으로 한국사를 설명하였다.[212]

또 이돈화는 이른바 '歸幻作用'을 한국사에 적용하였다. 그는 "一文明이 그 時代에서 어느덧 發達의 極致에 達하고 보면 그 文明自身의 病的 現像으로 돌이어 壞滅乃已하는 衰運에 入하고 그 裡面으로 一種의 他一文明이 萌芽"하는 것인데, "吾朝鮮은 近代 屢百年 以來-文化의 極端한 消極的 變化를 致"하여 "今日의 衰退를 致"하게 되었으며 "그럼으로 朝鮮의 近代 現像은 衰함이 其極이며 退함이 其極"의 상태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제로부터 歸幻作用의 原理에 依하야 衰-轉하야 盛에 登하는 路程에 잇스며 老-化하야 少에 歸하는 作用"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13] 다시

혈사 (1920) 동방미디어, 영인본 145~147쪽. "嗚呼過去時代之文明者人類競爭之利用而非人道平和之事業也 是以物競天擇適者生存之論 爲惟一法門優勝劣敗爲天演强食弱肉爲公例軍國主義侵略政策爲生存之目的 ... 天道好還 物極必反 固無長此 不變之理 ... 乃者歐洲大戰演開闢以來未有之慘劇爲全世界之大刼運 ... 於是俄國革黨首擧紅旗推翻專制宣佈廣義許各族以自由自治向之極端侵略主義者 一變而爲極端共和 此改造世界之最先動機也 德國亦以極端侵略者欲以强兵利器征服世界 於是聯盟諸國合而制之 血戰五年終乃寡不適衆 德人力竭乃悟專制武力之不可以久也 於是社會黨起而逐帝改建共和主張和平 .. 標榜正義人道者方鳴得勝此改造世界之署光也 美國大統領要締國際聯盟而提出民族自決主義 ... 于時歐洲之弱國寡民得以脫人羈絆而復其獨立之光榮者 次第相望 此改造世界之進步也 彼日本亦極端侵略者不惟爲吾族之仇而爲世界人道之敵則決不能容於新時代也..."

211) 이돈화의 사상에 대해서는 주로 서구 사상의 비판적 수용과 천도교 교리의 체계화 과정 등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휘, 2015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77; 이철호, 2015 〈우주종교로서의 개벽사상〉 《한국학연구》 38; 육영수, 2015 〈트랜스내셔널 지성사 다시쓰기〉 《서양사학연구》 34; 허수, 2011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등 참조.

212) 《개벽》 제2호, 1920년 7월 25일 「人乃天의 硏究」 夜雷(이돈화); 《개벽》 제19호, 1922년 1월 10일 「歲在壬戌에 萬事亨通」 李敦化; 《개벽》 제45호, 1924년 3월 1일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天道教의 人乃天主義에 對한 一瞥」 李敦化. 이와 같이 순환론이 천도교의 사상과 연결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보았을 때, 이돈화는 이를 천도교 교리 정립에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13) 《개벽》 제16호, 1921년 10월 18일 「生活의 條件을 本位로 한 朝鮮의 改造事業, 이 글을 特히 民族의 盛衰를 雙肩에 負한 靑年諸君에 부팀」 李敦化 참조.

말해 이돈화는 한국의 문화가 발달의 극에 도달하여 쇠퇴를 겪었던 '정체기'가 있었지만, 이후 새로운 문명이 맹아하고 노년이 소년이 되는 것처럼 다시금 부흥할 '귀환작용'이 생겨날 것임을 순환론과 자연메타포를 활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돈화는 더 나아가 '제한적 정체기'론을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 일반과 세계사까지 양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사람의 進化 사실은 혹 시대에 있어서 그가 停滯함도 있으며 그가 退化함도 잇는 것"이지만, "도리어 進化를 촉진케 하는 反動性의 발동"이므로 "역사가가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 螺旋的으로 進化한다 함이 곳 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14]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한적 정체기'론의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자강운동기에 형성되었던 '나선적 진보'를 구체적인 형태로 지칭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돈화는 인간의 진보가능성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추상적인 진보적 시간의식을 '螺旋的'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명칭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화' 현상은 이돈화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당시 개조의 시기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잡지 《신생활》의 주필인 김명식은 사회주의 계급투쟁론을 수용하면서도 전통적 순환론을 통해 세계 정세를 이해하였다.[215] 그는 당시 세계의 전환이 "亂이 極하면 治를 思하고 否가 極하면 泰(泰의 잘못으로 보임 - 인용자)가 回함은 진리"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침략적 제국주의로 인도적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정의적 외교, 노동적 산업, 문화적 교육을 무시하던 결과 대전의 삼엄한 세례를 수한 인류"가 "물질 문명의 대결함을 발현하고 이에 평화를 보장할 정신문명으로 입하야 자각적 X(개)조를 경영하는 대세의 추향"[216]에 있다고 세계정세를 정리하였다. 김명식은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한 사회진화론의 퇴락과 개조론의 흥성의 과정을 '난극사치', '비극태회'의 전통적 순환론으로 이해한 것이다.[217] 이렇게 진보적 시간의식에 전통적

214) 《개벽》 제17호, 1921년 11월 1일 「時代精神에 合一된 사람性主義」 이돈화.

215) 김명식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참여와 이후 《신생활》 잡지 주필 활동과 필화사건, 1920년 초반의 신이상주의적 경향과 이후 맑스주의로의 전환이 지적되었다. 최선웅, 2007 〈1920년대 초 한국공산주의운동의 탈자유주의화 과정〉 《한국사학보》 26; 김동전, 2008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27; 박종린, 1999 〈꺼지지 않은 불꽃, 송산 김명식〉 《진보평론》 제2호 등 참조.

216)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 「大勢와 改造」 김명식.

사유가 개입된 ‘제한적 정체기’론을 기반으로, 그는 세계 대세와 역사가 직선이 아닌 ‘曲線’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 大勢의 展開는 一直線을 畫치 아니하고 曲線을 作하는도다. 暗黑의 深淵에서 直上하야 光明의 平垣을 畫치아니하고 光明이 잠간 現하얏다가 隱하며 隱하얏다가 現하는지라 或 上하며 或 下하고 或 進하며 或 退하야 紆廻와 屈曲이 滋甚할뿐이로다 ... 眞理는 活物이며 光明은 現物이라 故로 現하면 隱하는 것과 如한 時가 有하되 決코 永久히 隱하는 것이 아니오 活하면 死한다 如한 時가 有하되 또한 決코 永遠히 死하는 것이 아니라 隱한듯한 中에 現하며 死한듯한 中에 活하나니, 如何히 紆廻하며 如何히 屈折할지라도 마침내 現할대로 現하며 活할대로 活하야 直線으로 焦點에 至하는 것과 가티 曲線으로도 또한 焦點에 達하는 것이로다.[218]

그는 “大勢의 展開는 一直線을 畫치 아니하고 曲線을 作”하는 것인데, 곡선의 과정을 “光明이 잠간 現하얏다가 隱하며 隱하얏다가 現하는지라 或 上하며 或 下하고 或 進하며 或 退하야 紆廻와 屈曲이 滋甚”한 것이라고 하여 실제 세계사의 흐름을 ‘곡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 사회진화론에서 현재 개조론으로의 사상적 전환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입증된 김명식의 자신감이 표현된 것이었다. 그는 과거가 “적자생존이라는 야수적 철칙이 사회전반의 참극을 연출”하여 “세계 대 전쟁을 주출하였”지만 그 후에 “신시대의 합리적 정의의 소리”가 들리며, “대세의 추향은 정의로 선봉을 삼고 강자를 응징하고 약자를 扶助하야 만민평등의 大道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그는 사회의 진화 과정은 進과 退가 교차하면서 결과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를 종합하여 그 전개방향을 직선의 진보와 우회 및 굴곡이 함께하는 曲線의 ‘나선적 진보’로 형태화하였다.

개조론의 다양한 사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안재홍도 ‘나선적 진

---

217) 그가 전통적 순환론을 활용하는 다른 예는 陰陽과 動靜의 교환을 다룬 「노동문제는 사회의 근본문제이라」(《공제》 제1호, 1920년 9월 10일) 등이 있으며, 1920년대 초 다른 사회주의자들도 이 전통적 순환론을 활발히 사용하여 당시 정세와 사상의 전환을 이해하였다. 대표적으로《공제》 제1호, 1920년 9월 10일「아한반도 유산계급의 맹성을 촉하노라」 이인석; 《공제》 제2호, 1920년 10월 11일 「세계개조와 노동문제」 김광식; 《신생활》 제1호 임시호, 1922년 3월 15일 「각성하라 신사상을」 革菴生 등 참조.

218) 《아성》 제3호, 1921년 7월 15일 「覺醒한 靑年에게」 金明植.

보'를 '형태화'시켰다.[219] 그는 한국사에서 삼국통일을 쇠퇴의 기점으로 보고 조선 건국 100년 이후를 '정체기'로 삼았는데,[220] 이를 토대로 세계사 일반을 살폈다. 그는 「反動線上의 世界와 그 趨勢」에서 "인류사 상 평화기와 전란기 또한 주기적으로 순회"하는데, "우주의 제 현상을 영원히 윤회하고 재기하는 것"이자 "무한히 지나가는 시간의 직선 위에는 동일한 현상이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인류 역사는 마치 波形의 굴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次第로 전복된 전란과 평화의 시기가 있는 것"이라고 인류의 역사를 '波形'의 굴곡선으로 나타냈다.[221]

안재홍은 특히 개조론의 사조 중 하나로 들어왔던 니체의 영원윤회설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 永遠輪回의 思想이 人類의 理想인 向上進步의 信念과 矛盾"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人類의 歷史가 항상 治亂과 興亡 卽 戰亂期와 平和期를 反覆하며 一定한 方向으로 趨進하는 것은 否認할 수 업는 事實"이며 세계정세와 역사를 '波形', 즉 물결처럼 굴곡 있는 형태로 규정하였다. 이 해석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개조론 이전의 서구와 세계 일반의 진보과정은 추상적·실제적으로도 '낙관적 직선'임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인해 '직선적 진보과정'이 서구와 세계 일반의 실제적인 진보과정이 아닌 '이상'적인 차원임을 인식한 것이다. 결국 안재홍은 이상적인 '진보'와는 구별되고 식민지 조선과 세계의 실제를 포괄하는 '波形'의 시간의식을 피력하면서 '나선적 진보'를 형태화하였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나선적 진보'의 형태화 경향은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남선은 "최근 불행히 조선은 패자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고, 온갖 권력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연대가 올라갈수록 조선이 우월하고 강력했던 처지를 가지는 고대의 사적"을 가

---

219)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1981 《민세안재홍선집》 1권 지식산업사, 6~10쪽; 이윤갑, 2014 〈안재홍의 근대 민족주의론 비판과 신민족주의〉 《한국학논집》 제54집 등 참조.

220) 《개벽》 제71호, 1926년 7월 1일 「漢陽朝五百年總評」 安在鴻; 안재홍은 고대의 융성과 조선시대의 유교 및 당쟁으로 인식하는 한국사관을 이선근의 《조선최근세사》 서문(1930)에도 드러냈다. 안재홍, 1930 「序言 - 조선최근세사의 卷頭에 書함」 《조선최근세사》, 9~10쪽 참조.

221) 《개벽》 제55호, 1925년 01월 01일 「反動線上의 世界와 밋 그 趨勢」 安在鴻.

지고 있다면서, '찬란한 고대와 쇠퇴한 최근세'의 구도 속에서 한국 고대사의 신성성을 강조하였다.[222] 그는 「조선역사통속강화」(1922)에서 "민족과 문화는 역사를 연구하는 樞機的 양대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태극)'을 "조선에서 가장 신비한 表號"로서 "우리의 連綿性에 대하야 확실한 支柱요, 우리의 발전성에 대하야 심후한 근원"이라고 하였다.

> 생명의 흐름이 계속과 遍滿으로써 가로는 전 공간과 세로는 전 시간에 발전한다. 이 무궁한 대생명의 오묘한 대활동가운대 '인생의 활동'이란 一波瀾이 잇다. 그 범위는 좁을망정 마찬가지로 생명의 본능을 바다서 유동과 발전의 연속적 동작을 꾸며간다 ... 조선민족의 전생활과 및 그 기록인 전역사는 一◒의 開發에 불과함을 알면 무한한 흥미가 그리로서 소사나옴을 깨달을 것이다. 올타 전적 조선의 전적 역사는 一◒이다. 이 신비를 발명하는 것이 조선역사의 사명이다. [223]

최남선은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는 '波瀾'은 유동과 발전의 연속적 동작이고, 이를 크게 민족과 문화로 확장시키면 '◒'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류의 3대 문화 중 '불함'이라는 찬란한 문화 계통의 핵심이 조선이었는데, "이 문화의 창조적 생명이 차차 무디어"지고 "문화적 외적의 침략을 받은 세월이 오래되면서 진면목이 파묻혀 버렸"지만, "그러나 없어진 것은 형체만이지 생명까지는 아니"라면서, 조선 문화와 그 연구의 부흥이 일어나야한다고 주장하였다.[224] 다시 말해, 최남선은 "◒이 포함하고 있는 무한대를 반만년 사실을 통해 고찰하고 밝혀"서 "온전히 내 정신, 내 능력, 내 준비, 내 공적으로 시간상의 光復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5] 즉, 최남선은 당시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후를 '정

222) 《동아일보》 1925년 10월 21일~22일 「我史人修의 哀 - 최후의 정신적 파산」. 최남선의 1910~1920년대 한국 고대사 인식에 대해서는 《계고차존》(1918), 《불함문화론》(1925) 등 참조.

223) 《동명》 제3호, 1922년 9월 17일 「조선역사통속강화(1)」 최남선.

224) 《동명》 제15호, 1922년 12월 10일 「조선역사통속강화(12)」 최남선.

225) 「조선역사통속강화(1)」, 최남선, 10쪽. 최남선은 무궁한 시간과 그를 채워가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여 《조선역사》(1931)의 「역사를 통하여서 본 조선인」에서도 조선이 "세계에 있는 가장 오래된 나라 가운데 하나요, 상당한 문화를 이룩한 문화의 주인"이지만 "현실의 조선과 조선인이 불구자이며 미성년자임을 역사에서 알"고, "시간이 만능자임을 아울러 역사에서 체득"하여 "영원하고 무궁한 완성으로 나가는 일종의 전환기에 우리가 섰음을 엄숙하게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남선 저, 오영섭 옮김,

체기'로 설정하고,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광복'을 위해서 인간의 '波瀾'을 확장시킨 '◒(태극)'의 상징을 통해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자각을 강조하였으며, '나선적 진보'를 주장하였던 것이다.[226]

이와 같은 1920년대 전반기 '나선적 진보'의 '형태화'는 제1차 대전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와 사회진화론의 개조론 전환으로 인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여, 지식인들이 진보적 시간의식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 이해의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227] 더 나아가 3.1운동과 문화통치 이후 상대적으로 확장된 언론장에서 식민지 현실 해석과 미래 전망을 드러내고, 각자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독자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형태화된 '나선적 진보'는 3.1운동 이후 실천과 방법론의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치열한 논쟁 속에서 활용되었다.[228] 즉, 당시 전반적인 형태화 현상은 이전 시기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한국적인 진보적 시간의식이 1920년 전후 개조론의 시기에 공고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표 3〉에서도 보이듯이 1920년대에 발간된 이중어사전에서는 진보개념 언더우드 부자(H.G.Underwood & H,H.Underwood)의 《英

2013 《조선역사강화》(1930) 경인문화사, 202·205쪽

226) 이는 1910년대 이래 최남선이 한국의 문화적 우위성과 고대사를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영화는 《불함문화론》 등의 논의를 대동아공영권의 전사로 평가하는 것은 후일 친일행적의 소급이라고 보았으며, 류시현은 1911년 설립된 조선 광문회 이래의 조선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 찬란한 고대사의 창출, 그리고 3.1운동 민족과 문화의 발견 속에서 1920년대 최남선의 역사학을 평가하였다. 1910~20년대 최남선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류시현, 2009 《최남선연구》 역사비평사;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등 참조.

227) '나선적 진보'의 '형태화'는 지식인들이 추상적인 시간의식을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은유는 곧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고,(김진우, 2004 《은유의 이해》 나라말) "우리는 은유 없이 시간을 개념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G. 레이코프 외 저, 임지룡 외 역, 2002 《몸의 철학》 박이정, 210쪽)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선적 진보의 전반적인 형태화 현상은 이에 대한 지식인 자신의 사유가 깊어지고 반대로 그것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현하고 이해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종 시간과 관련된 은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데만트 저, 이덕임 역, 2018 앞의 책; 데이비드 로웬덜 저, 김종원 외 옮김, 2006《과거는 낯선 나라다》개마고원 등 참조.

228) 1920년대 식민지 공론장과 그를 활용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헤게모니 경쟁에 대해서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윤해동 외 엮음 2010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김현주, 2013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제3부 '포스트 3.1의 정치문화와 사회적 상상' 등 참조.

鮮字典》(1925) ‘셩쇠 盛衰, 쇼쟝 消長 (국운의)’이 1910년대에 이어 진보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고화된 ‘나선적 진보’가 192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중어 사전 명	1920년대 이후 일제시기 ‘진보’ 관련어 등재 양상	비고
조선총독부, 《朝鮮語辭典》(1920)	進步 : 漸次に發達すること。	850쪽
J.S.Gale, 《三千字典》 (1924)	progress : 진힝 進行 , 진보 進步, 향상 向上, 발달 發達	55쪽
언더우드(H.G.Underwood & H,H.Underwood), 《英鮮字典》(1925)	progress : v.t. (1) 나아가다, 젼진ᄒᆞ다 前進, 진힝ᄒᆞ다 進行, (2) 진보하다 進步, 쳔션ᄒᆞ다 遷善, 향상ᄒᆞ다 向上, n. (1) 나아감, 젼진홈 (2) 진보됨, 향상됨, 경과 經過 (병의), 진도進度 (과학의), 셩쇠 盛衰, 쇼쟝 消長 (국운의).	442쪽
	Evolve : v.v. 나타내다, 젼기케ᄒᆞ다 展開, 진화케ᄒᆞ다 進化, 진보케ᄒᆞ다 進步.	182쪽
김동성, 《최신선영사전》 (1928)	진보 : 進步, progress, advance, improvement 例) 진보당 : The progressists.	563쪽
	발달 n. (發達) development ; progress	279쪽

〈표 3〉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출판 ‘進步’ 혹은 ‘progress’의 이중어 사전 등재 양상

정리하자면 기존의 사회진화론 기반의 ‘진보’ 개념은 1920년을 전후로 한 개조론의 시기에 전환되었고, 주의·반동 등과 함께 쓰이면서 시간의 표상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강하게 띠었다. 또한, 앞선 시기에 형성된 ‘제한적 정체기’론은 여전히 성쇠를 역사 진보의 맥락 속에서 보는 인식이 강고하게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문명 비판의 시대사조에 힘입어 한국사 차원을 넘어 세계사의 굴곡진 전개를 설명하는 논리로 변화하여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사회진화론의 지배적인 위치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나선적 진보’가 서구와 전통적 사상을 거친 ‘정체기’를 기반으로 개조론의 사상과 세계사의 전환 속에서 공고한 위치를 점하였다. 이에 따라 ‘나선적 진보’는 ‘螺旋的’, ‘曲線’, ‘波形’, ‘◒’ 등으로 명확하게 ‘형태화’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세계 대전 이후 세계사와 역사 일반에서 증명된 ‘정체기’를

전제로 한 '나선적 진보'가 공고화되었고, 이 과정에는 개조론의 사조[229] 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유도 여전히 강하게 개입하였다.

229) 본 논문에서 필자는 '나선적 진보'에 영향을 준 개조론의 사조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루었지만, 이후에 1910~1920년대 생명주의 및 신이상주의를 필두로 하는 사상사 차원의 접근과 서구의 역사철학·문화사학 경향의 동아시아 소개 및 그 수용에 관한 사학사 차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鈴木貞美 외 著, 박미정 옮김, 2014 〈에너지의 문화사로〉 《에너지를 생각한다》 민속원; 2015 《近代の超克》 作品社; 1995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이철호, 2013 《영혼의 계보 : 20세기 한국문화사와 생명담론》 창비; 안지영, 2014 〈1920년대 내적개조의 계보와 생명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44; 조지 이거스 저, 임상우·김기봉 옮김, 2003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나가하라 게이지 저, 하종문 옮김, 2011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趙梅春, 2007 앞의 책; 김지훈, 2013 〈근대 중국 신사학의 수용과 변용〉 《한국사학사학보》 27 등 참조.

2. 내적 논리로서 ‘주체성’과 ‘법칙성’ 논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확장되고 공고화된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는 한국 지식인의 주도적인 시간의식으로 발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앞 시기와 달리 구체적인 실천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결합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질적’ 측면에서도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천의 차원으로 옮겨온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선민족은 1919년의 三一운동을 신기축으로 하여 민중적으로 새 기운을 탔고 새 빛을 보았다. 그 표증으로 첫째는 교육적 각성이요 둘째는 경제적 의식이다. 보라 三一운동이후로 아무리 벽향궁촌의 농로취온이라할지라도 자제 교육에 대한 갈앙추구의 열이 여하히 항진하였으며 또한 재래의 역사적 감정으로만 훈련되였던 민족운동은 그 내용을 일변하여 경제적 의식 곧 생활의 토대 위에서 근저를 발견하게 된 것은 확실히 일대진보인 것이다.[230]

특히 3.1운동은 1920년대에 “三一運動을 기회삼어”, “己未運動 이후에”, “己未 이후”, “3.1의 大運動”, “만세 후에” 등의 형태로 해당 시대와 식민지 조선의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혁명 혹은 그에 준하는 기점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1920년대 전반기에는 1910년대부터 이어진 식민통치에 대한 식민지 조선인의 불만과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고조되었고, 개조론의 사조들이 1921년 말부터 1922년 초의 워싱턴 회의가 가져다 준 외교운동의 좌절로 인해 점차 ‘실천’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231]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식인들은 개조론을 기반으로 ‘진보’를 사회개혁과 실천의 차원에서 사유하면서 논쟁과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232]

---

230) 《동아일보》 1925년 8월 31일 「世界大勢와朝鮮의將來(四)」 사설.

231) 《개벽》 제31호, 1923년 1월 1일 「汎人間的 民族主義」. 1910년대 말 ~ 1920년대 초 일본과 한국의 개조론의 유행과 성격, 그 분화에 대해서는 박찬승, 1992 앞의 책; 허수, 2009 앞의 논문 등 참조.

232) 조선총독부경찰국 편, 박경식 해설, 《朝鮮の治安狀況》 - 昭和5年版(1930) 不二出版; 조선총독부 경무국, 《朝鮮治安狀況》 - 大正11년(1922) 1권 고려서림; 조선총독부 경

그리고 그 논쟁에서 '나선적 진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정체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예로 「민족개조론」 논쟁을 살펴보자. 「민족개조론」의 필자 이광수는 개조론의 영향 속에서 세계정세를 평가하면서 "西洋人의 頭腦는 과거 五世紀間의 過勞에 疲憊"하여 "個人의 精力에 限定이 있음과 같이 民族의 精力에도 限定이 있는 것이니 古來로 盛者必衰라 한 것이 이를 니름일 것"이라고 하였다.[233] 그는 세계대전 전후 서구 국가들의 쇠퇴를 '성자필쇠', '극도에 달한 뒤의 피로'와 '민족 정력의 한정' 등의 순환론과 자연메타포를 통해 평가하면서, 이러한 경향에서 식민지 조선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광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국제 연맹 결성도 실패하자 개조론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회의하였고, 1922년 5월 「民族改造論」을 발표하기에 이른다.[234] 이광수는 "우리 민족의 성질은 劣惡"하여 "민족의 장래는 오즉 쇠퇴 또 쇠퇴로 점점 떨어져 가다가 마침내 멸망에 빠질"것 이라 하면서 정체의 원인을 민족성의 쇠퇴로 보았다. 그는 "조선 민족은 적어도 과거 오백년간은 공상과 공론의 민족"이었다며 "지나간 30년을 돌아 보"아도 "오즉 족음 進步한 것은 신지식"이지만 "이 소득으로 족히 所失의 十一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235] 그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총체적인 쇠퇴'로 설명하고,[236] 3.1운동 또한 문명인의 목적과 노력을 갖추지 않은 "無知蒙昧한 野蠻人種이 自覺 업시 推移하여 가는 變化와 가튼 變化"라고 폄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민족개조론」에 앞서 《개벽》에 연재한 「소년에게」

무국, 《朝鮮の治安狀況》 - 大正13년(1924) 12월 불이출판;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조선사회운동개관」 赤城山人; 《개벽》 제64호, 1925년 12월 1일 「朝鮮의 一年·世界의 一年 起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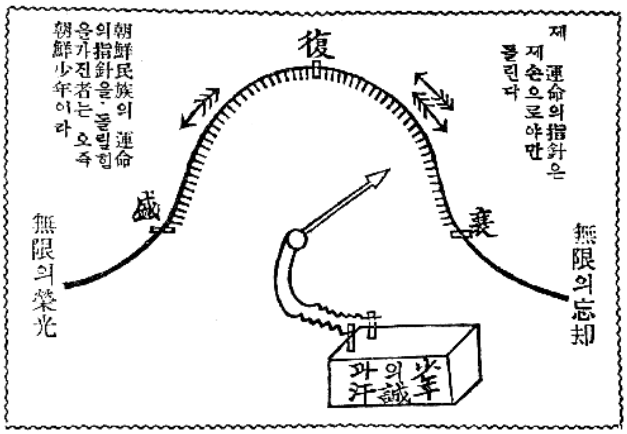
233) 《학지광》 제14호, 1917년 11월 「우리의 理想」 이광수.

234) 이광수의 일본 유학과 독립선언서 서술, 민족개조론 서술에 걸친 과정에 대해서는 김윤식, 1986 《이광수와 그의 시대》 2~3권 한길사; 류시현, 2009 〈동경삼재를 통해 본 1920년대 '문화정치'의 시대〉 《한국인물사연구》 12 등 참조.

235) 《개벽》 23호, 1922년 5월 1일 「민족개조론」 이광수.

236) 이광수는 《개벽》에 「소년에게」를 연재하면서 조선민족의 경제적, 도덕적, 지식적 파산을 주장하면서 "現在의 朝鮮民族에게 거의 民族的 生活의 能力이 업"다고 하였다. 《개벽》 제21호, 1922년 3월 1일 「少年同盟과 그 具體的 考案, 少年에게 (五)」 魯啞子(이광수).

에서 이광수가 “운명의 바늘은 마치 전류계의 지침”과 같다면서 「민족운명도」를 〈그림 2〉처럼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민족의 운명은 사람의 힘에 따라 ‘盛-復-衰’의 과정을 경유하는 ‘포물선’으로 정의하였다. 이광수는 “운명의 궤도의 自然의 方向은 興에서부터 衰로 向하는 것”인데, “운명도로 보건대 그 지침은 이미 復이라고 쓴 포물선의 정점을 지나 衰에 이르는 거의 반에 이른 것”이니 “그 쇠퇴의 속력이, 이 그림으로 보면 衰를 向하고 달아나는 운명의 지침의 속력이 심히 급속한 것을 표한 것”이다.[237]



〈그림 2〉 「이광수의 ‘민족운명도’」(《개벽》 제20호, 1922년 02월 08일,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少年에게 (其四)), 魯啞子(이광수)의 그림.)

이와 같은 무한의 망각과 무한의 영광을 상정하는 시간의식 속에서 그가 중요시 한 것은 이 지침을 움직이는 ‘인간’, 즉 식민지 조선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이광수는 전통적 순환론이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쇠 → 성’의 낙관적인 흐름을 상정한다고 보고 이를 ‘낙관론’이자 ‘숙명론’으로 비판하였다. 위의 「민족운명도」를 제시하면서 부기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 古語에 天運이 循環이라 하엿스니 循環이라 하면 그 軌道가 圓形이나 楕圓形일 것이니까 ... 따라서 興한다고 깃버할 것도 업고 또 衰한다고 크게 슬퍼할 것도 업겟지마는 내가 밋는 바로는 運命의 軌道는 抛物線的이라 ... 朝鮮民族이 저 志士의 흔히 말하는 바와 가티 이미 衰頹의 極點에 達하지 아니하엿고, 아즉 얼마동안 더 衰하야 잇다가는 亡에, 마츰내는 씨도 업서지고 永遠의 妄却에 들어

237) 《개벽》 제20호, 1922년 2월 8일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少年에게 (其四))」 魯啞子(이광수).

갈 수도 잇다 ... 只今 우리의 할 일은 진실로 이 指針을 復의 方向으로 逆行시켜서 마츰내 興을 지내어 無窮한 榮光의 方向으로 永遠히 나아가게 함이니...[238]

이광수는 “숙명론, 또는 천운설”이 “우리의 운명의 지침을 돌리는 동력이 우리 인력 이외의 무슨 신비한 힘임을 일컫는” 것이며 “나는 단정코 이를 배척하야 이 운명의 지침을 돌리는 원동력은 결코 天運도 地運도 時運도 아니오, 오직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의 할 일은 진실로 이 지침을 復의 방향으로 역행시켜서 마침내 興을 지내어 무궁한 영광의 방향으로 영원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순환론을 “유치한 숙명관”이자 《周易》의 영향으로 보고, 이를 믿는 자는 “생존할 격이 없는 열패자”라고 하였다.[239]

정리하자면, 이광수는 전통적 순환론을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는 ‘숙명론’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수동적으로 만들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와 구별되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抛物線的 시간의식’을 〈그림 2〉처럼 ‘형태화’하여 낙후된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고자하였다. 다만 그는 식민지 조선의 정체가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정체 속에서의 부흥과 재진보의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는다면 ‘무한한 망각’의 상태에 빠지거나 ‘멸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잡지 《신생활》의 사회주의자 신일용[240]은 이광수를 정면에서 비판하였다. 기존의 이광수의 저작들을 “몇 개 읽어본 일이 잇다”는 신일용은 「민족개조론」과 「소년에게」 등을 바탕으로 이광수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신일용은 조선인의 민족성이 쇠퇴했다는 이광수의 비판에 대해 “춘원군, 사람은 진화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가? 이것을 시

238) 魯啞子(이광수),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少年에게 (其四))」.
239) 《학지광》 제17호, 1919년 1월 「宿命論的 人生觀에서 自力的 人生觀에」 이광수; 그는 이와 같은 논지를 《개벽》 제14호(1921년 8월 1일)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에」에서 강조한 바 있다.
240) 신일용의 신생활 참여와 김윤식 사회장 사건 이후 김명식과 신일용, 이성태 등을 중심으로 한 신생활사의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박종린, 2014 앞의 논문; 박순섭, 2018 〈1920년대 신일용의 이론투쟁과 통일전선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4 참조.

인한다면 개인의 집합인 민족도 진화할 것"이지만, "이 변화의 정도"는 "외국의 사정과 시대의 특색을 따라서 정도의 상이가 생길 것도 자연한 이세"라고 하였다. 신일용은 이광수가 비교적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인류 진보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상기시키면서, 역사 진보를 진화의 법칙과 제도 변혁의 2가지 동력에 의한 '원추형'이라고 주장하였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류 진화의 원칙에 평행하는 자연적 변화와, 사회사정의 격변에 가세되는 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보라! 어떠한 시기에 발현된 역사적 사실이 시간적으로 前하여서나 後하여서 반복하는 일이 없지 아니한가? 반복이 있다하더라도 유사까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는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변화는 오직 진화의 법칙과 제도 변혁의 2개 동력에 의하여 圓錐形으로 전개되어갈 따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케 추리하여보면 군의 주장인 민족개조라는 것은 일종의 囈語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241]

그는 역사가 "전 계급의 퇴폐유물과 인습적 타성이 신건설의 참신한 영역에 필연적으로 유전"되어 "심한 경우에는 다소의 변태를 띄고 구문화를 역전케 하는 일도 있"[242]다며 제한적인 의미의 '정체기'가 역사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역사 발전의 2가지 동력인 "인류진화의 원칙에 의한 자연적 진화와 사회사정의 변혁에 의한 급격한 변화"가 '원추형'으로 일어나 "자유발전도 難事가 아니며 진보향상도 용이"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이렇듯 진화의 법칙뿐만 아니라 '제도 변혁'이라는 혁명적·능동적 요소를 강조한 그는 3.1운동을 "정복에서 번민하다가 그 해방을 절규하는 운동보다 더 거룩한 운동"이며 "수십년래 악정누습에서 신음하다가 세계적 신기운에 투합하야 生을 욕구하는 운동"으로 그 변혁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김명식과 함께 신생활파 사회주의자인 신일용은 제1차 대전 이후 세계정세의 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제한적 정체기'론을 바탕으로 내적 논리로서 계급투쟁의 주체성을 강조한 '나선적 진보'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과학적 사회주의로서 맑스주의의 역사발전론으로 역사 진

241) 《신생활》 제7호, 1922년 7월 5일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평함」 신일용.
242) 《신생활》 제5호, 1922년 4월 22일 「신사론」 신일용.

보의 필연성 또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일용은 “인류의 문명사에 충만한 만흔 사회현상, 만흔 진보가 사회주의를 위한 필연의 준비시대 내지 현상”임을 증명하고자 했으며,[243] 김명식도 “맑쓰의 말과 같이 역사적, 전통적 인류사회에 있어서는 계급전쟁은 피치 못할 사실”이니 “이 전쟁에는 인류는 모름즉이 모든 용기와 정력과 성심을 경주하야 최후까지 대진치 아니치니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44] 그들은 이렇듯 맑스주의 역사발전 법칙과 주체적인 변혁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역사 일반의 ‘제한적 정체기’를 설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선적 진보’를 圓錐와 曲線으로 ‘형태화’하여 계급투쟁의 주체성과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적 논리를 가진 ‘나선적 진보’를 통해 신일용은 이광수의 시간의식이 역사 진보의 법칙성과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류의 역사를 단조한 振子運動式으로 관찰하야 進化의 사실을 부인하엿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에는 역사 진보의 필연성과 주체성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역사 진보의 법칙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오히려 반대파에게서 ‘숙명론’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이광수는 이후 「민족적 경륜」에서 유물사관을 “사회현상도 물리현상과 같이 필연적인 자연의 철칙에게 定命論的으로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여겼는데,[245] 이는 그가 기존의 전통적 순환론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숙명론으로 비판하였다는 점과 유사하게 사회주의의 법칙성을 숙명론으로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광수와 신일용 모두 진보적 시간의식을 ‘형태화’하였지만 내적 논리에서 차이가 엿보인다. 신일용의 비판은 이광수가 민족성 쇠퇴와 무한한 망각의 위기에서 재 진보할 수 있는 역사 진보의 ‘법칙성’을 부정하는 측면을 비판한 것이며, 반대로 이광수의 반론은 사회주의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고 당시 맑스주의가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강조했던 측면을 ‘숙명론’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광수의 포물선적 시

243) 《신생활》 제8호, 1922년 8월 5일 「자본주의와 철학사상」 신일용.
244) 《신생활》 제8호, 1922년 8월 5일 「전쟁철학에 비판」 孳山(김명식).
245) 《동아일보》 1924년 1월 2일 「민족적 경륜 一」 이광수.

간의식은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진보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근세 이후 식민지 기로 이어지는 식민지 조선의 '제한적 정체기'를 일시적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인들로부터 비판 받았다. 즉, 한국 지식인의 진보적 시간의식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체기'를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식민지 조선인의 주체적인 노력에 따른 필연적인 부흥을 강조하느냐에서 지식인들 간의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물산장려논쟁은 '제한적 정체기'론을 토대로 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간 진보적 시간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세계 경제 호황이 끝나면서 1920년 공황 이후 만성적인 불황이 계속되었고, 회사령 폐지와 관세의 철폐로 인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부각되었다.

동양물산의 김윤수는 "원래 사회란 오인의 심의와 같이 一直線으로 활동함은 물론 아니라 항상 螺線上으로 進함과 같이 경제계"도 "一直線으로 進치 못하고 시시로 경기나 불경기가 있"지만, "이번의 공황은 국제적 공황임에 불구하고 경제태가 불완전한 미개국에는 그 타격이 격심"하며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하면 불출기년"하여 "장차 민족적 파산을 불면할 것"이라면서 민족자본의 양성을 위한 물산장려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렇듯 당시의 경제 불안 속에서 국산 물품을 애용하여 민족 자본을 키워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923년 1월 23일 조선물산장려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쟁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물산장려운동에 관해서는 생산력 증식론과 계급투쟁론의 갈등이 두드러지는데,[246] 각각 우선의 자본증식을 통해 단계적인 연속혁명을 주장한 《동아일보》 계열 및 나경석 등의 상해파 사회주의계열[247]과 즉각

246) 기존 연구에서 물산장려운동 논쟁은 토산장려와 생산력증대론의 구도와 국내 공산주의 세력인 상해파의 생산력 증식론과 신생활사의 계급투쟁론의 논쟁이 조명 받은 바 있다. 물산장려의 배경과 그 논쟁에 대해서는 조기준, 1969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역사학보》 41; 윤해동, 1992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이념과 그 전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린, 2007 《일제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920년대 전반기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소개 및 수용〉 《역사문제연구》24 등 참조.

247) 상해파의 단계적인 연속혁명론에 대해서는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적인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한 동시혁명을 주장하는 이성태, 박형병, 주종건 등의 신생활파 및 서울파[248]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었다. 이들 논쟁의 쟁점은 사회주의 혁명론을 어떻게 식민지 조선의 역사와 그 현실에 적용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정체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방점이 있었다.

상해파 사회주의자이자 생산력 증식론을 대표하는 나경석[249]은 당시 식민지 조선을 위기 상태로 보고 "조선 무산자의 응급생활책의 일계단"으로 물산장려운동을 제기하였다. 그는 "만약 조선이 정치혁신의 계단을 경치 아니하고 즉시 경제조직의 변혁을 단행할 수 잇다하면 모르거니와 그럿치 못하면 위선 생명을 보전하야 무산자의 단결을 도모함이 순서가 된다"고 하였다.[250] 그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완성"인 "칼 막스의 학설"에 따라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야 빈부의 양계급이 서로 이해상반한 처지에 거"해야만 "혁명의 도화선을 作"하는 것인데, "그 순서와 계단을 무시"하면 "곳 공상적 사회주의라 지칭할수박게 없"다고 하였다.[251] 즉, 나경석은 맑스주의 역사발전법칙에서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의 물산장려운동을 주장한 것이다.

나경석은 러시아의 예를 들면서, "노서아가 대혁명을 완성하고도 기근과 궁핌에 대중을 일천오백만명이나 희생되게 한 것은 구사회의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까닭"이라며,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혁명이 돌발되

역사비평사, 441~447쪽 참조.

248) 서울파는 서울청년회가 조직되고 김윤식 사회장 사건, 사기공산당 사건 등을 겪으면서 1922년 10월 사회주의 분파로서 조직되었다. 비록 조선공산당으로 승인받지 못했으나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농총동맹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를 장악하였다. 특히 물산장려논쟁에 참여한 주종건, 장적파, 박형병 등은 서울파의 대중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서울파의 형성과정과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 사회주의운동연구》 선인: 박종린, 2007 앞의 논문 등 참조.

249) 나경석은 기존 연구에서 예속적인 성격의 자칭 사회주의자이자 자본가(윤해동), 상해파 공산주의자(박종린) 혹은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민족주의자(류시현), 아나키스트(이호룡) 등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되었다. 나경석의 물산장려운동 참여와 그 사상에 대해서는 윤해동, 1992 앞의 논문; 류시현, 1997 〈나경석의 '생산증식'론과 물산장려운동〉 《역사문제연구》 2; 박종린, 2007 위의 논문.

250) 《동아일보》 1923년 2월 26일 「物産奬勵와 社會問題 三」 나공민(나경석) 寄.

251) 《동아일보》 1923년 2월 26일 「物産奬勵와 社會問題 三」 ; 1923년 3월 2일 「物産奬勵와 社會問題 六」 나공민(나경석) 寄.

는 순간까지 또는 파괴가 종료한 순간으로부터 생산력의 증가는 절대로 필요한 일"이므로 생산력 증식을 통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았다.[252] 만약 그렇지 않고 계급투쟁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않고 혁명을 수행한다면 "그 조잔한 生産力이나마 반다시 退步되야 조선 사람은 滅亡"하거나 "생산력이 정체"되어 "그대로 영구히 멸망한 예가 역사상 不少"하고, "혁명이 기한다 하더래도" 오히려 "또 다시 자본주의의 사회가 반복"[253]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물산장려논쟁에서 우선의 생산력증식론을 주장한 나경석은 식민지 조선이 물질적, 경제적으로 정체된 상태임을 전제하면서, 맑스주의의 역사발전론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진행하여 우선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자 법칙론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발전 법칙'을 거치지 않으면 조선인이 멸망하거나 역사의 진보가 아닌 반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신생활파 및 서울파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서 자본주의 선이행이라는 물질적 조건의 성숙보다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취를 통한 '계급투쟁론'을 주장하였다. 주종건은 나경석의 동아일보 논설을 반박하면서, "금일의 조선이 물질적 위기에 처"했지만, "계급적 의식 각성으로 하야만 대중으로 하여금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에 약진케 할 수 잇"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형병은 역사의식의 차원에서 나경석을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나경석의 사회주의 발전론을 토대로 한 단계설을 "혁명의 순서를 학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군(나경석)은 맑쓰의 숙명적 경제론은 시인하고 動的 정부탈취론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맑스의 유물사관에 따른 역사발전론의 법칙성만 고려하지 말고, 계급투쟁에 의한 즉각적인 혁명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나경석을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

252) 나경석의 이 주장은 특히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로 약 3년 동안 망명하여, 러시아 동포의 실상과 대기근을 목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경석, 1980 〈연보〉 《공민문집》 정우사 참조.

253) 《동아일보》 1923년 3월 1일 「物産奬勵와 社會問題 六」 ; 1923년 4월 29일 「社會問題와 物産奬勵 - 주종건군 其他 諸氏에 對答하기 爲하야 四」 나공민(나경석) 寄.

> 군이 흐리멍텅하게 염려하는 '또 다시 자본주의의 사회가 반복될는지도 알 수업지 아니한가'라는 말은 군이 조금이라도 사회진화가 역사적 발달을 인정하면 그런 희미한 의심을 아니 일어날 줄 안다. 인류사회가 점점 진화하여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 증명으로 능히 알바가 아닌가? 자본주의의 박멸이 인류사회진화 상 필연한 운명을 가졌다하면 설령 국부적 혁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영구적 실패가 아니고 반듯이 또 승리를 득할 것이니 무엇을 그다지 염려하리요?

박형병은 계급투쟁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실패 또한 '필연적'인 역사 진보의 도정으로 해석하고, 나경석의 맑스주의 이론이 가진 결정론적 성격을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쟁의 사상적 배경은 사회주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론과 주체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맑스주의 발전단계설을 따라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계급의식이 생겨나 혁명이 일어나길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계급의식을 고취시켜 우선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주의 발전과 그 방법론에서의 고민과 관련 있는 것이다.[254] 생산력 증식론과 계급투쟁론은 각각 결정론과 주체성의 입장에서 논쟁하며, 식민화의 경험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제한적 정체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즉, 나경석은 "정치상으로 봉건제도"와 "경제상으로 산업혁명을 經"하는 맑스주의 역사관의 법칙성에 중시하였다. 따라서 봉건제와 자본주의발전이 식민지 상에서 '停息(정체)'되었음을 단계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비판하고, 이 발전론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식민지 조선인들의 자체적인 물산장려를 주장하였다.

---

254) 박종린, 2007 앞의 논문 참조. 사회주의 운동론에서 결정론(법칙성)과 능동성(주체성)의 대립 사례는 20세기 초 독일과 일본의 사회주의에서 논쟁에도 나타났다. 독일의 사례는 최영태, 1997 〈카우츠키주의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학연구》 11, 543~545쪽; w.z. 포스터 지음, 동녘 편집부, 1987 《세계사회주의 운동사》 1 동녘; 최선아, 2017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5 등 참조. 일본의 경우 김병진, 2017 〈20세기 전환기 자유의 각성과 생명의식 - 월경의 사상가 오스기 사카에〉 《일본문화연구》 62, 34쪽; _____, 2014 앞의 논문, pp.170~171; 梅森直之, 2016 《初期社會主義の地形學 -大杉榮とその時代》 有志舍, pp.247~251 등 참조.

(서양의 봉건제와 자본주의 발전에 대비하여 - 인용자)그러나 조선 사회의 생산관계가 하나도, 이러한 順調의 경로를 통한 形迹이 업스니 곳 과거에 잇서 정치상으로, 봉건제도를 지내지 아니하얏고, 경제상으로 산업혁명의 기회가 업섯고 ... (현재는) 생산이 발전될 여지가 충분히 잇스면서 정책상 XX이 되야 停息되고 잇다.[255]

그는 '멸망'을 상정한 계급투쟁론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이 "맑스의 의견에 의하면, 「생산발달이 되지 못한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면, 그 생산력이 감퇴하든지 그대로 멸망한다.」 하였으니 於此에 朝鮮사람의 주관적 자존심을 위하야 「滅亡」이란 문자를 짐짓 廢"해도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할 慘境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 발전 법칙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성태는 "구미의 자본주의는 꽤 고도의 발달"을 이루었고 "조선은 그에 비하여 아직 유치한 상태"에 있다며 식민지 조선의 정체와 서양과의 자본주의 발달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 서양국의 사회사 발달이나 이민족 발달의 跡과 조선의 그것과는 기묘하게 근본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볼 수 잇는 것(이며) ...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은 결코 조선이 타국에 비하여 자본주의적 침략과 착취를 비교적 「덜」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오 ... 하루바삐 노동계급의 철저한 계급의식을 促成하고 혁명의 전선으로 돌진케 하는 것이 목전의 급무가 되는 것이다[256]

그렇지만 그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국제적 자본주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착취제도의 발전이 어느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제 자본주의의 '착취 문제'에서 일치하므로 현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 "계급투쟁이 난숙하고 사회적 변혁의 요소가 충분이 발효" 되었음을 지적하였다.[257]

결국 물산장려논쟁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 전개에서 공통적으로 '제한적

255) 《개벽》 제45호, 1924년 3월 1일 「思想의 歸趨와 運動의 方向」 O民(나경석).
256) 《개벽》 제38호, 1923년 8월 1일 「왼편을 向하야」 성태(이성태).
257) 《개벽》 제56호, 1925년 2월 1일 「自由權과 生存權」 ST(이성태).

정체기'를 인정하고 그를 사회주의 발전 상의 봉건제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정치·경제적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과 이를 능동적인 계급의식 고취와 투쟁을 통해 '비약할 수 있다'는 계급투쟁론 간의 진보적 시간의식의 차이에서 촉발되었다. 특히 후자의 계급투쟁론은 식민지 조선의 '정체'를 '국제 자본주의의 착취'의 관점에서 "계급투쟁이 난숙하고 사회적 변혁의 요소가 충분이 발효"되었고, 한국 경제사의 관점에서 주체적인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제한적 정체기'론을 바탕으로 한 '나선적 진보'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사 상의 정체기 설정은 1920년대 식민주의 역사학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고쿠쇼 이와오(黑正巖)와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등이 한국 경제사에서 봉건제 결여론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론을 주장하였는데,[258] 특히 고쿠쇼는 《經濟史論考》(1923)에서 후쿠다의 견해를 일부 계승하고 있지만, 절대적 정체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고쿠쇼는 「길드로서의 경성 六矣廛」에서 "점차 상전의 면목을 갖추어 그 내부의 조직으로써 보면 일종의 길드"이며 "옛날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座(즉, 독일의 길드)와 전연 같"고 '契'도 "흡사 우리나라 諸種의 講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259] 즉, '조선사'가 정체된 것은 맞지만, 봉건제가 존재했다고 상정된 유럽과 일본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진보적' 요소들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경제적 문화의 발전은 결코 구미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사정이 아니"며 "동양의 경제사는 동양인만의 경제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경제사"라는 점을 강조했다.[260] 즉, 그는 서양사와의 대결의식을 기반으로 동양사 또한 '진보적'인 세계 역사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했으며 식민지인 한국사도 이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즉, 한국사를 '특수한 예외'로 두고자 했던 후쿠다와 달리 고쿠쇼는 식민지이자 '一變態'[261]를 이루는 한국사에서도 역사 진보의 거대 서사를 찾고

258) 식민지 시기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7 〈일제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통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104, 87~93쪽;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2007 〈일본사·조선사 연구에서의 '봉건제'론(1910-1945)〉 《한일공동연구총서》 12; 강진철, 1992 앞의 논문 등 참조.

259) 黑正巖,《經濟史論考》(1923) 岩波書店, pp.8~9.

260) 黑正巖,《經濟史論考》(1923), p.2.

261) 黑正巖,《經濟史論考》(1923), pp.100~102.

자 한 것이다.

그러나 고쿠쇼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가 국민경제 시대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시장들을 중심으로 한 교환경제를 발전 단계의 한 형식을 거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갑오개혁 혹은 개항을 그 기점으로 삼고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부식에서 일본 내지인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타율적인 식민주의적 성격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262] 결국 식민주의 역사학은 '정체기'의 해소를 일본인과 일본 자본주의 편입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결국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는 국가 위기와 식민지화에 직면한 근대 전환기에 서구의 진보적 시간의식이 전통적 사유를 거치면서 1900년대 중반에 형성되었고, 1920년 전후 개조론이 등장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양적·질적 확장을 통해 공고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나선적 진보'의 내적 논리는 대체적으로 역사 진보의 필연성과 인간의 능동성이었으며, 지식인들은 '나선적 진보'를 통해 '정체기' 속에서 한국사의 재 진보와 부흥을 강조하였다.

앞서 '螺旋的' 시간의식을 주장한 이돈화는 이른바 '사람성 주의'를 "不完全으로부터 漸次 完全에 나아가는 向上進步主義"라고 정의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완전함을 향한 필연적인 진보 가능성을 중시하였다.[263] '曲線'의 시간의식을 주창한 김명식도 사회주의자로서 역사발전의 법칙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급투쟁론을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신성한 인격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계급적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위상 또는 인도상 투쟁"이라고 하여,[264]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발전의 능동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근대 전환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현실 속에서 근세 이래 현재로 이어지는 쇠퇴를 인정하여 국가 위기와 식민지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현재에 주체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해 '제한적 정체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 전통적 사유를 경유한 '정체기'를 바탕으로 구상된 '나

262) 黑正巖,《經濟史論考》(1923), pp.71~76.
263) 《개벽》 제17호, 1921년 11월 1일 「時代精神에 合一된 사람性主義」 이돈화.
264) 《아성》 제4호, 1921년 10월 1일 「現代思想의 硏究」 金明植.

선적 진보'는, 내적 논리로서 인간의 능동성과 역사 진보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 일반의 '정체기'가 있고, 이를 극복하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필연적인 진보가 있을 것임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근대 전환기에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난 '나선적 진보'의 비정형성은 인간의 '주체성(능동성)'때문이었으며, 이를 '절대적 정체' 혹은 패배주의적 시각으로부터 구분 짓는 것이 역사 진보의 '법칙성(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30년대 초반을 전후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한국사에서 봉건제 결여와 '정체기'를 인정하지 않고 '직선적 진보'의 성립을 시도하거나,[265] 한국사를 변증법적 과정으로 보는 사례도 나타났다.[266] 그렇지만 이후의 통사와 사론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식민지 조선에서 '제한적 정체기'론은 지속되었고,[267] 전통적 사유도 '나선적 진보'의 전개에 강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의 근대 전환기 한국 지식인의 진보적 시간의식은 끊임없는 근대의 맥락과 전통적 사유의 결합, 그리고 지식인의 의도에 조응하여 전개되었다. 이후의 진보적 시간의식의 전개 과정을 살피는 것은 추후 작업으로 남기고자 한다.

---

265) 백남운 저, 박광순 옮김, 1989 《조선사회경제사》(1933) 범우사; 백남운 저, 하일식 옮김, 1993 《백남운전집 2 -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 1937)》 이론과 실천 참조.

266) 안확, 1932년 6월 「조선사의 개관」 《자산안확국학논저집》 4권 여강출판사(《조선》 제176호)

267) 1930년대 백남운의 정체성론 비판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식민지 조선인 맑스주의자에게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김정인, 2016 앞의 논문; 우대형, 2016 〈일제하 사회경제사학과 백남운〉 《사회와 역사》 제110집; 미야지마 히로시, 2007 앞의 논문 등 참조) 이는 여전히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가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본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8세기를 전후로 보편적 역사의 진보를 상정하는 근대적 '진보' 개념이 형성된 서구와는 달리, 조선 후기 進步 용어는 '앞으로 걸아가다', '나아가다'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竿頭進步, 進步之地, 進步處 등의 형태로서 주로 '개인의 도덕적·학문적 향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진보적 시간의식의 수용과정에 개입하는 전통적 시간의식으로 조선 후기 정통론과 순환론이 있다. 정통론의 역사 서술은 '동국'의 정체성과 기자 문화의 계승을 나타내는 '연속'의 측면에서, 순환론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역사와 시세가 전환(순환)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변화'의 측면에서 시간의식을 담지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개항 이후 일본을 거친 서구의 근대적 '진보' 개념이 유길준에 의해 선구적으로 수용되면서, '진보'는 그 단위가 개인에서 문명·국가로 확장되었고 단계적 시간의식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대한제국 초기에 점차 사용되기 시작한 '진보' 개념은 1900년대 중반 사회진화론을 통한 국가 위기론 속에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특히 19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진보' 개념은 서구문명과 민족국가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근대화와 주체화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지식인들은 舊에서 新으로의 변화가 곧 진보의 과정이고, 우주 및 역사의 진화 법칙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는 퇴보의 언설을 통해 시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진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사의 전개과정은 세계 일반과 서구의 직선적 진보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근대 역사학의 3시기 구분법과 사회진화론의 단계적 발전론은 한국의 진보적 시간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지식인들은 1900년대 중반 전후 한국의 낙후된 현실과 진보의 부재를 인정하는 공통인식 상에서 '암흑기'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암흑기'는 서양사에서 근대 시기에 극복된 중세의 암흑시대를 모방한 측면도 있지만, 고대 이후 현재까지 하강·쇠퇴의 구도에서 서양사의 전개와는 변별되는 한국사 진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의 '보편 법

칙’을 전통적인 시간의식으로 설명하여 쇠퇴의 원인을 밝히고 그 극복을 주장하는 실천 논리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에 순응하는 논리를 받아들이게 될 우려가 있었고, 식민주의 역사학의 ‘절대적 정체’는 그 우려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한제국 지식인의 ‘암흑기’는 ‘주체적 진보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일시적’인 의미를 가진 ‘제한적 정체기’의 성격을 가졌다. 이 ‘정체기’를 내포하면서 전통적인 시간의식과 결합한 ‘나선적 진보’는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상대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렇듯 서구 사상과 전통적 사유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제한적 정체기’론과 ‘나선적 진보’는 1900년대 당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맹점이 있었지만, 이후 민족주체가 국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단한 실천과 독립의 방략을 모색하게 하는 원천으로 기능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3.1운동 등 1920년 전후 전환된 ‘진보’ 개념은 그 방법과 궁극적인 목표를 추동하는 기제로 主義를 사용하고 시대 진보의 대세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세력을 反動으로 지칭하는 경향에 힘입어 점차 시간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개조론이 대두된 시기에도 ‘제한적 정체기’론이 존속하여 성쇠의 순환론을 역사 진보의 맥락 속에서 보려는 인식은 지속되었고, 역사 일반과 세계사를 포괄하는 ‘정체기’론의 ‘양적 확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과거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추상적이었던 ‘나선적 진보’가 서구와 전통적 사상을 거친 ‘정체기’를 기반으로 개조론 사조와 세계사 전환 속에서 ‘형태화’되었다. 즉,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세계 대전 이후 세계사에서 증명된 ‘정체기’를 전제로 한 ‘나선적 진보’가 공고화되었고, 여기에는 개조론의 서구 사조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유도 강하게 개입하였다.

‘제한적 정체기’를 바탕으로 한 ‘나선적 진보’는 3.1운동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 및 방법론의 차원과 결합하였다. 특히 점차 개조론의 사조가 분화되고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위기가 부각되면서 이 ‘정체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민족개조론」 논쟁에서 사회주의자 신일용은 이광수가 한국사의 ‘정체기’를 일시적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역사 진보의 법칙성을 부정하는 측면을 원추형의 시간의식으로 비판하였다. 반대로 이광수는 신일용과 김명식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의 역사 진보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견해를 숙명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물산장려논쟁」에서 상해파 사회주의자 나경석은 맑스주의의 유물사관에 따라 생산력을 증식시켜 사회주의 혁명에 앞서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화하려는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강조하였고, 박형병과 이성태 등의 계급투쟁론자들은 적극적인 계급의식 고취와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단계 없이도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주창하여 대립하였다. 결국,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나선적 진보'를 둘러싼 대립은 내적 논리로서 역사 발전의 법칙성과 이를 추동하는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두 요소, 그리고 한국사 '제한적 정체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개항 이후 1920년대 전반에 이르는 근대 전환기에 서구와 전통적 사유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제한적 정체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나선적 진보'가 형성·전개되었다. 이는 서양사의 직선적·단계적 진보와 식민주의 역사학의 절대적 정체와는 구분되는, 일시적·제한적인 정체기를 주체적으로 극복하여 진보·발전할 미래의 기대를 나타내는 시간의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진보적 시간의식은 한국의 근대 시기 국가 위기와 식민지화를 배경으로 지식인들의 치열한 자기화를 거쳐, 그 내적 논리로서 역사 진보의 필연성과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한국사를 발전적으로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시간의식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진보적 시간의식의 보완·대안가치로 재등장하고 강하게 개입하였는데, 이를 통한 근대 시기의 시간의식과 역사철학 탐구는 향후 한국 근·현대 사상사와 사학사의 재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참고 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
동양고전 DB(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Ⅱ. 자료

1. 조선시대 편년 자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2. 신문·잡지자료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태극학보》 《서우》 《학지광》 《동아일보》 《아성》 《신생활》 《개벽》 《공제》

3. 전집·통사류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7 《단재 신채호 전집》 제1~6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2002 《백암 박은식 전집》 제1~3권 동방미디어.
백남운 저, 박광순 옮김, 1989 《조선사회경제사》(1933) 범우사.
_____, 하일식 옮김, 1993 《백남운전집 2 - 조선봉건사회경제사(上, 1937)》 이론과 실천.
안정복 저, 조선고서간행회 편, 1989 《동사강목》 1~3권 경인문화사.
안확, 1994 《자산안확 국학논저집》 2 저서류 여강출판사.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編, 1971 《유길준 전서》 1, 3권 일조각.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1, 15, 19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현채 저, 임이랑 역, 2011 《근대 역사 교과서》 2 - 《중등교과 동국사

략》(1906) 소명출판.
김상연 저, 임이랑 역, 2011 《근대역사교과서》 6 - 《정선만국사》(1906) 소명출판.
이광수 저, 1972 《이광수전집》 三中堂.
황의돈, 1909《대동청사》(동국대학교 소장본).

4. 사전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4 《漢韓大辭典》 7권.
_____, 2008 《漢韓大辭典》 13권.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2015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황호덕·이상현, 2012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1, 3, 4, 5, 6, 7, 8, 9권 박문사.
par Charles Alévēque, 1901 《법한ᄌᆞ뎐》 Seoul Press.

Ⅲ. 연구서

1. 단행본

금장태, 1990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욱동, 2010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김도형, 1994 《대한제국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나경석, 1980 《공민문집》 정우사.
나리타 류이치, 일본근대와 젠더세미나 팀 역, 2011 《근대 지의 성립》 소명출판.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노관범, 2007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데이비드 로웬덜 저, 김종원·한명숙 옮김, 2006《과거는 낯선 나라다》개마고원.
데이빗 베빙톤 지음, 천진선·김진영 옮김, 1986 《역사관의 유형들》 두란노서원.
라인하르트 코젤렉·크리스티안 마이어 지음, 황선애 옮김, 2010 《코젤렉

의 개념사 사전》 2 - 진보 푸른역사.
라인하르트 코젤렉 저, 한철 옮김, 1979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루이스 멈퍼드, 2013 《기술과 문명》 책세상.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편저, 이수정 옮김, 2001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박정심, 2016 《한국근대사상사》 천년의 상상.
박종린, 2007 《일제하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박충석, 1982 《한국정치사상사》 삼영사.
박헌호 편저, 2015 《백 년 동안의 진보》 소명출판.
송승철·김용수 옮김, 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 비판적 소개》 소화.
송호근·양일모·권용립·김상조·김인영 저, 2014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 푸른역사.
신용하, 2004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사회사》 나남출판.
알렉산더 데만트 저, 이덕임 역, 2018 《시간의 역사》 북라이프.
야나부 아키라 지음, 박양신 옮김, 2013 《한 단어 사전, 문화》 푸른역사.
윤해동, 2010 《근대역사학의 황혼》 책과 함께.
앙드레 슈미트 저,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이광린, 1989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이송희, 2011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국학자료원.
이신철 편저, 2013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2006 《근대 일본 사상사》 소명출판.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진관타오·류칭펑 지음, 양일모·송인재·한지은 역, 2008 《관념사란 무엇인가 1 -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조동걸, 1998 《현대한국사학사》 나남.
최기영, 2003 《한국 계몽사상 연구》 일조각.

허수, 2011 《식민지 조선, 오래된 미래》 푸른역사.
____, 2011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H.E.반스 지음, 허승일·안희돈 옮김, 1994 《서양사학사》 한울아카데미.

2. 논문

강진철, 1992 〈일제 관학자가 본 한국사의 정체성과 그 이론〉 《한국사회의 역사관》 일지사.
권보드래, 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대동문화연구》 66권.
_____, 2015 〈1910년대의 '혁명' -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개념과 소통》제15호.
김동식, 2015 〈진화 · 후진성 · 1차 세계대전〉《백 년 동안의 진보》 소명출판.
김병진, 2014a 〈朝鮮の社會主義と大杉榮〉 《일본어문학》 61.
_____, 2014b 〈오스기의 '혁명적 생디칼리즘'〉 《일본역사연구》 39.
_____, 2017 〈20세기 전환기 자유의 각성과 생명의식 - 월경의 사상가 오스기 사카에〉 《일본문화연구》 62.
김정심·정재훈, 2000 〈조선후기 정통론의 수용과 그 변화〉《한국문화》 26.
김정인, 2007 〈식민지시대 조선의 자화상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김정하, 2015 〈지중해 : 역사철학의 전통과 문명적 정체성〉《인문과학연구논총》 36.
김종복, 2011 〈조선 후기의 신라정통론과 발해사의 인식〉 《사림》 39.
_____, 2017 〈한국 근대역사학의 발해사 인식〉 《한국사연구》 179.
김준현, 2014 〈1950년대 '진보'개념의 변화와 반공주의 내면화의 문제〉 《한국학연구》 제35집.
김학이, 2015 〈롤프라이하르트의 개념사〉《개념사의 지평과 전망》(개정증보판) 소화.
김한종, 2010 〈역사교육 개념어의 용례 검토 - 역사적 사고, 역사해석, 역사인식, 역사의식〉 《역사교육》113.

김현우, 2013 〈구한말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변통론적 근대 인식〉 《인문학연구》 제24호.
노관범, 2013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 - 언론 매체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두 시점의 개념사》 푸른역사.
_____, 2016 〈자강, 역사와 미래의 가교〉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푸른역사.
도면회, 2008 〈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 체계의 확립〉 《역사와 현실》 70.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2000 〈일본 '국사'의 성립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한일공동연구총서》 3.
_____ 2007 〈일본사·조선사 연구에서의 '봉건제'론(1910-1945)〉 《한일공동연구총서》 12.
류시현, 1997 〈나경석의 '생산증식'론과 물산장려운동〉 《역사문제연구》 2.
_____, 2010 〈1920년대 전반기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소개 및 수용〉 《역사문제연구》 24.
박근갑, 2012 〈'근대'의 의미론〉 《개념과 소통》 제9호.
_____, 2015 〈개념사의 꿈과 짐 - 하나의 방법론 소고〉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개정증보판) 소화.
_____, 2014 〈역사·문명·진보 - 후쿠자와 유키치와 유길준의 시간인식〉 《사총》 83.
박종린, 2008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역사와 현실》 67.
_____, 2014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사림》 제49호.
박양신, 2009 〈진보 개념의 수용과 근대 일본〉 《일본역사연구》 29.
_____, 2011 〈근대 일본 '진보'에서 '발전'으로 - 제국주의 성립기의 역사·사회의식〉 《翰林日本學》 18.
_____, 2012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 《일본역사연구》 35.
송민호, 2015 〈문명적 이상의 굴절과 진보하는 시간〉 《한국학연구》 제38집.

신승엽, 2017 〈시간을 차이로, 차이를 시간으로 - 19세기말 20세기초 외국인들이 인식한 조선의 시간과 문명의 위계〉 《한국학연구》 45.
안지영, 2012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인식의 변화: 《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8.
양일모, 2013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 중국과 한국의 '진화'개념 형성〉 《두 시점의 개념사》 푸른역사.
_____, 2014 〈진보개념의 기원과 전개 - 개항기에서 식민지시기까지〉 《좌·우파에서 보수와 진보로》 푸른역사.
오항녕, 1999 〈성리학적 역사관의 성립 : 초월에서 현실로〉 《조선시대사학보》 9.
_____, 2003 〈성리학 역사서의 형성과 구조〉 《한국실학연구》 6.
우남숙, 1999 〈한국근대사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양식 -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를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21.
윤해동, 2007 〈'진보라는 욕'에 대하여 - 메타 역사학적 비판〉 《문학과 사회》 20.
이경구, 2015 〈한국의 역사는 개념사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개정증보판) 소화.
_____, 2016 〈이용후생 - 중세의 균열과 근대의 기획〉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푸른역사
이선경, 2014 〈주역의 변통론과 율곡의 개혁사상〉《사회사상과 문화》29
전복희, 1993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 한국에서의 기능〉 《韓國政治學會報》27.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고대사연구와 중화주의의 변용〉 《역사학보》 202권.
진기행, 1999 〈근대성에 관한 역사철학적 탐구 - 서설〉《철학논총》19.
허수, 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50.
황호덕, 2010 〈번역가의 왼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 《상허학보》 28.

3. 외국저서

川尻文彦, 2008 〈〈進化〉と加藤弘之, 嚴復, 梁啓超〉,《東アジアにおける知的システムの近代的再編をめぐって》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Morris Ginsberg, 櫻井万里子 外 譯, 1987 〈近代における進歩〉 《進歩とユートピア》 平凡社
渡辺 浩,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 東京大學出版會.
三谷太一郎, 1995 《大正デモクラシー論》 제3판(2013) 東京大學出版會.
松尾尊兌, 1990 《大正デモクラシーの群像》 岩波書店.
大田英昭, 2013 《日本社會民主主義の形成 - 片山潛とその時代》 日本評論社.
福田德三 著, 1904「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改正增補)經濟學研究》(1909).
恒屋盛服 著, 1989 《朝鮮開化史》(1900) 景仁文化社.
菊池謙讓 著, 1989 《朝鮮王國》(1896) 景仁文化社.
黑正巖, 1923 《經濟史論考》 岩波書店.
四方博, 1976 「조선에 있어서 근대자본주의의 성립 과정 - 그 기초적 고찰」(1933)《朝鮮社會經濟史研究》 上 도서간행회.
大杉榮 著;大杉榮全集刊行會 編, 1925~26 《大杉榮全集》 1권 大杉榮全集刊行會.
梅森直之, 2016 《初期社會主義の地形學 -大杉榮とその時代》 有志舍.

4. 학술대회 자료집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1 《근대 동아시아에서 진보의 재발견 - 동아시아 기본개념의 상호소통 제4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Abstract】

A Study of the linear Time Consciousness of Korean Intellectuals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Era

Kim, Myung Ja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eriod from the opening up of the nation's ports to the world 開港 (1876) to the first half of the 1920s can be seen as one of the modern transition of time consciousness in Korean history, and it saw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modern Western ideas and the country's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朝鮮 王朝 (1392-1910). However,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West's linear time consciousness was introduced into Korea did not proceed in a one-sided and abrupt manner. Here was the active intervention of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which combined with contemporary time consciousness and was used to form Koreans' unique time conscious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lucidat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inear time consciousness

in the modern age in Korea by exam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estern concept of "progress" and Koreans'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In the West, the concept of "progress," which presupposes the progress of universal history, came to be formed around the 18th century. In contrast, the word *jinbo* 進步 (one translation of the Western word "progress" today) was used mainly to signify "individuals' moral and academic improvement"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Meanwhile, as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embracing linear time consciousness, the theory of legitimacy 正統論 reflected time consciousness in terms of continuity in guaranteeing the identity of the "Eastern Kingdom 東國" (vis-à-vis China; i. e., Korea) and the succession of culture originating from Jizi 箕子 (11th century BC), a semi-legendary Chinese émigré who took over and ruled the Korean state of Ancient Joseon 古朝鮮 (?-108 BC), and the theory of cycles 循環論 did so in terms of change in viewing history and the currents of the times as cyclical and crises as surmountable through human efforts instead of depending on fatalism, respectively.

With the acceptance of the modern concept of "progress" from the West via Japan following the opening up of Korea's ports, "progress" went beyond individual levels and expanded to civilizational and national levels and turned into a concept of "progress" encompassing a step-by-step time consciousness. Amidst theories of national crisis during the mid-1900s, the concept of "progress" was used as a central concept, with the acceptanc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state as the goals. In addition, Korean intellectuals used "progress" as a change from the old to the new and, through statements regarding the principle of the evolution and regress of both the cosmos and history, an index demonstrating time

consciousness. Perceived through this concept, Korean history came to be seen as a process contrasting with the West's linear progress.

In the mean time, the three-age system of modern historiography and the theory of step-by-step development of social Darwinism affected linear time consciousness in Korea around the mid-1900s. Out of a shared perception acknowledging the nation's backward reality and lack of progress, a tendency to set up a "dark age 暗黑期" arose. This "dark age" was used to explain Korean history as being based on a scheme of descent and decline since the ancient period. In this process, Korean intellectuals explicated the universal laws of social Darwinism with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and claim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the country's decline in the 1900s. Like the "absolute stagnation 絶對的 停滯" of colonialist historiography, such a tendency had the danger of creating a logic that prompted one to conform to the imperialist world order. However, to intellectuals under the Empire of Korea 大韓 帝國 (1897-1910), the "dark age" generally signified a "period of limited stagnation 制限的 停滯期" that encompassed the possibility of self-reliant progress and was temporary. In addition, "spiral progress", which acknowledged this "period of stagnation" and combined with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was used also to relativized the logic of social Darwinism. Though these "period of limited stagnation" and "spiral progress" failed to occupy firm positions in the 1900s, they nevertheless functioned as sources for national/ethnic subjects to search for stratagems for ceaseless praxis and independence even amidst the crisis of national demise.

Transformed into the theory of reformation 改造論 around 1920, the concept of "progress" came to establish itself as a representation of time through its use together with -isms 主義 and reactions 反動. The theory of a "period of limited stagnation" still existed so that

approaches seeking to view the theory of cycles within the context of historical progress continued, and, furthermore, quantitative expansion that sought to explain both general history and world history by encompassing them in this theory of a period of stagnation arose. In addition, “spiral progress,” which had failed to occupy a solid position in the past, came to be formalized based on the “period of stagnation,” which had expanded quantitatively. In other words, “spiral progress,” which presupposed the “period of stagnation” that had been demonstrated in world history since World War I, was consolidated among Korean intellectuals. In this process, not only Western ideas but also traditional thought still intervened considerably.

Based on this “period of limited stagnation,” “spiral progress” combined with the former on the level of concrete praxis and methodology, with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三·一 獨立 運動 (1919) as the occasion.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logic, fierce debates and conflicts arose among Korean intellectuals.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of contention in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theory of national reformation 民族 改造論 and the Korean Product Promotion Movement 物産 奬勵 運動 was: How were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 concept of “spiral progress,” the laws of historical development as the internal logic of this idea, humans’ self-reliance driving such progress, and the “period of limited stagnation” to be viewed?

.....

keywords : “period of limited stagnation”, “spiral progress”, the linear time consciousness, progress, modern historiography, the theory of reformation, social Darwinism, traditional time consciousness

Student Number : 2015-20068